

2021년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프랑스
France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3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16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27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36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VA)는 311억 유로(한화 약 42조 원)로, 전년 대비 5.3% 감소

- 전체 GVA에서 농업 GVA의 점유율은 1.5%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프랑스 농업 부문 총 부가가치액(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십억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996.8	2,046.1	2,101.8	2,169.3	2,054.3	△5.3	1.0
	농업 ²⁾	26.3	29.8	33.6	31.7	31.1	△1.9	△5.7
	비중	1.3	1.5	1.6	1.5	1.5	-	-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VP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2020년 농업 고용인구는 36만 8,000명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8.4%씩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함
 - 고용인을 제외하고 고용주와 그 배우자 등의 인원까지 합친 연간작업단위¹⁾ 농업종사자는 2020년 67만 8,700명으로 추정됨

1) UTA(Unités de Travail Annuel) = AWU (Annual Work Units)

프랑스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26,580	26,803	27,022	27,133	26,995	△0.5	0.5
농업 고용인구 (비중)	479 (1.8)	436 (1.6)	409 (1.5)	398 (1.5)	368 (1.4)	△7.5	△8.4

* 주1 : 농축업 포함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2020년 농업용지 2,876만 ha 가운데 1,791만 ha가 경작지로 사용됨
 - 곡물 재배면적이 891만 ha로 가장 넓으며 유지류 212만 ha, 영구작물은 103만 ha에서 재배가 이뤄짐
 - 유지류, 영구작물, 단백질작물, 감자, 과일 및 견과류, 섬유 식물, 사료용 작물 등의 작물 재배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섬유식물, 건채류 그리고 사료용 작물의 증가 폭이 큼.

프랑스 유형별 농지면적(2016~2020)

(단위 : 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용지 전체	28,901,579	28,880,025	28,843,614	28,802,666	28,761,444	△0.1	△0.2
경작지	18,442,118	18,415,694	18,054,798	18,025,051	17,910,672	△0.6	△1.0
곡물	9,529,781	9,340,308	9,056,412	9,395,128	8,909,408	△5.2	△2.2
유지류	2,257,572	2,169,061	2,357,362	1,906,836	2,120,970	11.2	△2.1
영구작물	1,012,595	1,018,929	1,024,626	1,029,257	1,033,586	0.4	0.7
사탕무	405,078	486,097	485,855	446,601	420,911	△5.8	1.3
단백질작물	300,084	298,588	227,270	241,582	312,121	29.2	1.3
채소	213,589	221,933	221,822	226,078	224,899	△0.5	1.7
감자	179,246	194,055	199,557	207,157	214,480	3.5	6.2
과일 및 견과류	198,267	198,348	199,333	201,453	203,742	1.1	0.9
섬유식물	102,877	116,874	122,373	136,230	158,228	16.1	15.4
건채류	31,766	52,721	66,848	72,910	60,405	△17.2	23.9
사탕수수	40,883	40,323	40,242	40,138	39,907	△0.6	△0.8
사료용 작물	11,775	13,822	13,517	15,216	17,107	12.4	13.3
구근류	9,959	9,899	9,996	9,996	9,970	△0.3	0.0
기타 공예작물	6,975	6,603	7,637	7,308	6,672	△8.7	△1.5
휴경지	487,287	503,404	505,161	487,532	518,251	6.3	2.1

* 출처 : 프랑스 농무부 산하 농업통계청(Agreste)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농산물의 생산액 비중이 크며, 생산규모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음

- 프랑스의 농축산물 생산액은 총 705억 유로(한화 95.2조 원)로 집계됨
 - 농산물의 생산액은 443억 유로(한화 59.7조 원)로 전년 대비 2.4% 감소함
 - 축산물의 생산액은 263억 유로(한화 약 35.5조 원)로 전년 대비 0.9% 감소함

프랑스 농업 생산액(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 총생산액	64,986.5	67,603.5	72,441.1	71,875.0	70,546.8	△1.8	2.8
농산물	40,525.6	41,696.7	46,546.2	45,345.3	44,254.5	△2.4	3.0
축산물	24,460.9	25,906.8	25,894.9	26,529.8	26,292.3	△0.9	2.4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곡물과 사탕무, 기타 공예작물, 와인 등의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유지류, 단백질 작물, 과일과 원예작물의 생산은 증가함

- 2020년 곡물 생산량 5억 7,544만 킬로그램(약 5,754만 톤)로 집계
 - － 밀 생산액 55억 유로(한화 약 7.5조 원)로 곡물 전체 생산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옥수수, 보리의 순서로 생산액이 높게 집계됨
- 감자의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8,671만 킬로그램(약 867만 톤)과 40억 유로(한화 약 5.4조 원)를 기록함
- 채소류는 구근류, 잎줄기채소, 과채류 등의 순서로 생산량이 많으며 채소류의 생산액 합계는 34억 유로(한화 약 4.6조 원)인 것으로 조사됨
- 과일류는 2,765만 킬로그램(약 277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액은 33억 유로(한화 약 4.4조 원)임
- 고품질 와인 생산액은 86억 유로(한화 약 11.6 조 원)로 나타남

프랑스 농산물 부류별 생산량(2016~2020)

(단위 : 킬로그램(=100kg))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곡물, 지방종자 및 단백질 작물	전체	612,626,703	769,132,153	699,851,998	774,117,050	636,773,976
	곡물	541,905,400	685,254,325	625,653,010	712,078,631	575,437,676
	유지류	63,096,568	74,075,895	66,801,910	53,099,660	53,382,561
	단백질작물	7,624,735	9,801,933	7,397,078	8,938,759	7,953,739
공예작물	전체	379,338,546	499,475,932	430,834,822	414,833,278	295,316,446
	설탕작물	371,869,316	491,605,505	421,831,045	404,888,328	286,059,998
	섬유식물	6,866,950	7,264,110	8,133,962	9,283,995	8,627,464
	기타	585,166	589,169	851,802	640,563	597,416
감자 및 괴경류	전체	70,159,772	86,096,803	79,241,847	86,242,169	87,347,242
	감자	69,549,832	85,473,537	78,603,822	85,604,144	86,709,217
	얌, 카사바 외	609,940	623,266	638,025	638,025	638,025
채소 및 과채류	전체	52,542,260	60,706,447	58,107,358	59,810,449	58,508,764
	잎줄기채소	16,512,720	17,140,004	16,442,437	15,688,508	15,490,572
	과채류	16,910,905	16,277,717	14,781,535	15,284,553	14,580,887
	구근류	8,402,734	14,612,463	13,940,228	15,889,867	16,123,908
	두류	5,691,864	6,819,222	6,657,867	6,575,709	6,279,855
	옥수수	3,546,722	4,203,123	4,555,661	4,466,593	4,527,465
	껍질콩	478,179	792,271	939,649	1,029,353	738,542
	버섯 및 트러플	999,136	861,647	789,981	875,866	767,535
과일류	전체	31,146,716	29,284,854	28,477,014	29,379,546	27,652,896
	이과류	20,211,422	18,852,408	19,250,809	19,325,003	18,179,267
	핵과류	6,032,682	6,613,768	5,310,757	6,010,992	5,224,379
	열대과일	3,408,776	2,376,596	2,406,869	2,712,827	2,785,416
	감귤류	752,654	788,824	717,006	617,941	743,819
	견과류	619,843	505,247	631,779	550,850	553,979
	베리류	121,339	148,011	159,794	161,933	166,036

* 주1 : 전체 공예작물에 향수, 방향성 작물, 약용 및 조미료 식물 포함.

* 출처 : 프랑스 농무부 산하 농업통계청(Agreste)

프랑스 농산물 부류별 생산액(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40,525.6	41,696.7	46,546.2	45,345.3	44,254.5
곡물	곡물	7,996.5	9,840.0	10,619.7	10,938.0	9,961.7
	밀	4,395.9	5,738.8	6,268.9	6,601.1	5,530.1
	옥수수	1,927.0	2,046.8	2,107.5	2,076.7	2,486.2
	보리	1,363.6	1,697.9	1,881.0	1,849.3	1,541.1
	기타	310.0	356.5	362.2	410.9	404.4
원예작물 전체		5,853.9	5,774.5	5,998.0	6,136.5	6,259.6
채소		3,058.2	2,969.3	3,104.4	3,279.0	3,393.1
감자		2,483.7	2,418.1	3,425.4	3,971.6	3,978.5
전체		3,888.6	4,427.8	3,991.7	3,529.4	3,506.3
공예작물	유지류	2,309.8	2,528.7	2,305.6	1,936.3	2,172.5
	사탕무	833.3	999.3	775.8	726.8	566.7
	단백질작물	172.3	194.5	157.0	186.3	189.3
	기타	543.7	681.4	734.0	666.8	567.5
과일		3,029.8	2,978.8	3,066.5	3,149.8	3,267.1
와인		9,318.2	8,984.7	11,189.4	9,377.4	8,613.6

* 주1 : 프랑스통계청의 분류에 따름

* 주2 : 전체 농산물에 사료작물, 대중 와인 포함. 공예작물에 생담배 포함.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육류와 우유가 주요 축산품목이며 소고기와 우유의 생산액 비중이 높음

- 2020년 육류 전체 생산액은 143억 유로(한화 약 19.2조 원)이며, 그 중 소고기 생산액이 56억 유로(한화 약 7.6조 원)에 달함
- 다음으로 돼지와 가금육의 생산액이 각각 35억 유로(한화 약 4.7조 원)와 32억 유로(한화 약 4.4조 원)로 나타남
 - 이외에 송아지와 양고기, 염소고기 등 또한 생산되고 있음
- 우유의 생산액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96억 유로(한화 약 12.9조 원)를 기록하였고, 난류는 2017년 이후 생산액이 감소세에 있음

프랑스 축산물 부류별 생산액(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육류	전체	14,218.0	14,232.9	14,121.8	14,489.7	14,250.8
	소	5,889.8	5,820.7	5,826.0	5,635.6	5,594.9
	돼지	3,082.4	3,277.1	2,928.0	3,568.8	3,450.9
	가금육	3,288.7	3,145.6	3,282.4	3,328.8	3,223.6
	송아지	1,222.1	1,200.8	1,247.4	1,157.5	1,106.2
	양·염소	723.9	710.6	747.4	716.6	783.4
	말	10.9	78.0	90.5	82.6	91.9
우유 및 기타 낙농품	전체	8,404.0	9,426.3	9,565.7	9,989.7	10,012.6
	우유	8,057.3	9,026.9	9,158.1	9,569.2	9,575.0
	기타 낙농품	346.7	399.4	407.7	420.5	437.6
난류	1,239.0	1,619.3	1,519.4	1,400.4	1,338.8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677억 달러(한화 약 74.5조 원)로 집계됨

- 주로 독일(10.6%), 벨기에(10.3%), 영국(8.7%), 이탈리아(8.1%) 등 유럽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큰 편
 - 독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72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로 집계되었으며 벨기에로의 수출액은 0.3% 증가한 69억 달러(한화 약 7.6조 원)로 집계됨
 - 對영국 수출액은 59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對이탈리아 수출액은 55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로 5.5% 감소
 - 이 외에도 스페인(7.5%), 미국(7.5%), 네덜란드(6.3%) 순의 수출비중을 보임
- 한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5억 달러(한화 약 0.5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5% 증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61,935,853	65,533,929	69,910,661	68,636,478	67,715,266	100.0	△1.3	3.0
1 독일	6,723,017	7,028,650	7,328,817	7,133,303	7,170,678	10.6	0.5	2.2
2 벨기에	6,592,166	7,031,260	7,324,819	6,923,796	6,945,853	10.3	0.3	1.8
3 영국	5,708,123	5,883,824	6,252,772	5,870,846	5,886,839	8.7	0.3	1.0
4 이탈리아	5,295,146	5,660,127	5,973,652	5,816,554	5,497,923	8.1	△5.5	1.3
5 스페인	4,964,144	5,266,812	5,577,189	5,196,299	5,104,651	7.5	△1.8	0.9
6 미국	4,352,680	4,806,783	5,288,846	5,644,317	5,056,361	7.5	△10.4	5.1
7 네덜란드	3,679,142	3,926,918	4,281,128	3,975,619	4,258,526	6.3	7.1	5.0
8 중국	2,180,837	2,718,445	2,574,521	2,928,523	3,630,350	5.4	24.0	18.5
9 스위스	1,724,070	1,790,161	1,916,262	1,889,247	1,954,515	2.9	3.5	4.3
10 알제리	1,260,926	1,255,080	1,743,761	1,497,530	1,405,283	2.1	△6.2	3.7
25 대한민국	385,444	433,868	476,203	438,462	465,184	0.7	6.1	6.5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포도주(9.4%), 포도주나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4.9%), 기타 밀과 메슬린(6.0%) 등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포도주’ 수출액은 64억 달러(한화 약 7조 원)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임
 - ‘포도주나 포도즙 찌꺼기로 얻은 증류주’는 33억 달러(한화 약 3.7조 원)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19.2% 감소함
 - ‘기타 밀과 메슬린’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1억 달러(한화 약 4.5조 원)로 집계되었고, ‘발포성 포도주’ 수출액은 16.2% 감소한 32억 달러(한화 약 3.5조 원)로 나타남
 - 이 외에도 ‘기타 치즈’(3.5%), ‘기타 베이커리 제품’(2.8%), ‘기타 조제 식료품’(2.5%) 등을 주로 수출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61,935,853	65,533,929	69,910,661	68,636,478	67,715,266	100.0	△1.3	3.0
1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	5,634,377	6,424,373	6,905,183	6,742,087	6,377,896	9.4	△5.4	4.2
2 기타 밀과 메슬린	3,075,679	2,633,258	3,668,757	3,858,792	4,052,159	6.0	5.0	9.6
3 포도주나 포도즙을 찌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3,265,674	3,697,414	3,941,308	4,140,467	3,345,242	4.9	△19.2	0.8
4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3,190,734	3,552,150	3,761,954	3,840,621	3,218,708	4.8	△16.2	0.3
5 기타 치즈	2,155,913	2,210,607	2,394,242	2,322,059	2,356,192	3.5	1.5	3.0
6 기타 베이커리 제품	1,556,292	1,684,800	1,918,239	1,950,814	1,878,561	2.8	△3.7	6.5
7 기타 조제 식료품	1,515,065	1,679,897	1,718,668	1,648,905	1,674,678	2.5	1.6	3.4
8 기타 보리	1,065,068	995,515	1,310,286	1,503,065	1,338,033	2.0	△11.0	7.9
9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641,475	937,707	1,024,723	1,083,249	1,253,530	1.9	15.7	25.0
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803,131	1,013,966	1,012,596	1,050,161	1,028,810	1.5	△2.0	8.6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580억 달러(한화 약 63.8조 원)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벨기에(14.7%), 네덜란드(14.2%), 스페인(14.0%), 독일(12.7%), 이탈리아(6.3%)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벨기에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86억 달러(한화 약 9.4조 원)로 집계되었으며 네덜란드산은 3.9% 감소한 82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를 수입함
 - 스페인산 수입액은 81억 달러(한화 약 9조 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독일산 수입액 또한 74억 달러(한화 약 8.1조 원)로 4.1% 증가
-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0.3억 달러(한화 약 348억 원)로 집계
 - 2016년 이후 5년 동안 한국산 수입액은 연평균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3,273,360	56,393,564	59,119,588	57,233,569	57,990,652	100.0	1.3	2.9
1 벨기에	8,325,130	8,829,513	9,168,201	8,698,859	8,553,161	14.7	△1.7	0.9
2 네덜란드	8,004,362	8,624,671	8,989,994	8,545,255	8,209,889	14.2	△3.9	0.8
3 스페인	7,303,591	7,516,585	8,045,602	7,658,864	8,143,060	14.0	6.3	3.7
4 독일	6,877,009	7,115,986	7,492,318	7,074,670	7,364,161	12.7	4.1	2.3
5 이탈리아	4,294,732	4,720,144	5,144,777	5,096,715	5,395,414	9.3	5.9	7.9
6 영국	2,456,520	2,564,176	2,628,674	2,457,012	2,258,311	3.9	△8.1	△2.8
7 스위스	1,693,203	1,943,012	1,997,376	1,944,730	1,952,503	3.4	0.4	4.9
8 폴란드	1,360,660	1,489,860	1,716,779	1,883,485	2,019,409	3.5	7.2	14.1
9 아일랜드	839,339	959,256	1,038,546	1,080,104	1,157,554	2.0	7.2	11.3
10 브라질	1,043,682	1,031,545	1,065,884	1,036,045	965,039	1.7	△6.9	△2.6
65 대한민국	21,168	30,527	30,095	33,899	31,608	0.1	△6.8	14.3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입 품목은 볶은 커피(3.6%), 기타 베이커리 제품(2.5%), 기타 조제 식료품(2.0%) 등으로 다양한 편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1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로 집계됨
 -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수입액은 15억 달러(한화 약 1.6조 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12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로 2.7% 증가함
 - 이어서 ‘기타 치즈’(1.8%), ‘맥주’(1.8%),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1.7%) 순의 수입 비중을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3,273,360	56,393,564	59,119,588	57,233,569	57,990,652	100.0	1.3	2.9
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	1,659,440	1,979,166	2,036,144	1,983,875	2,079,051	3.6	4.8	7.8
2 기타 베이커리 제품	1,181,179	1,261,793	1,411,340	1,432,754	1,465,188	2.5	2.3	7.4
3 기타 조제 식료품	946,179	1,066,625	1,218,617	1,147,937	1,179,024	2.0	2.7	7.6
4 기타 치즈	795,952	910,581	994,519	1,023,039	1,059,252	1.8	3.5	10.0
5 맥주	708,009	832,400	983,273	1,017,171	1,029,404	1.8	1.2	13.3
6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935,687	964,551	1,014,397	1,017,994	975,665	1.7	△4.2	1.4
7 버터	572,646	969,256	1,134,330	898,971	721,295	1.2	△19.8	8.0
8 신선 또는 냉장 토마토	635,939	694,783	705,755	706,640	715,329	1.2	1.2	4.0
9 위스키류	831,567	847,066	866,072	777,280	689,647	1.2	△11.3	△6.0
10 뼈 없는 쇠고기	654,605	676,322	731,805	718,064	557,051	1.0	△22.4	△5.2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의 對프랑스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3% 감소한 2.2천만 달러(한화 약 241억 원) 수출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6% 증가함

-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94.3%를 차지하는 농산물 수출액은 2천 1백만 달러(한화 약 227억 원)로
 - 최근 5년간 연평균 8.0%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뒤이어 임산물(4.8%), 축산물(0.9%) 순의 수출액 비중을 보임

對프랑스 수출 규모(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8,075.4	21,693.2	26,746.9	27,451.0	21,882.2	100.0	△20.3	6.6
농산물	16,370.5	20,042.6	25,234.2	25,637.6	20,637.3	94.3	△19.5	8.0
임산물	1,265.2	1,151.6	1,395.2	1,560.0	1,041.4	4.8	△33.2	△6.3
축산물	439.7	499.0	117.5	253.4	203.5	0.9	△19.7	△22.6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중분류로 면류(34.2%)와 기타 조제 농산품(23.7%) 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분류로 라면(23.7%), 인스턴트 면류(5.1%), 베이커리 제품(4.7%), 기타 음료(4.2%), 속을 채운 파스타(3.1%) 순
 - 면류 수출액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6.4% 증가한 748만 달러(한화 약 82억 원)로 집계됨
 - 반면 기타 조제 농산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9% 감소한 519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로 집계됨
 -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8.9% 증가한 518만 달러(한화 약 57억 원)로 나타남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뒤이어 인스탄트 면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111만 달러(한화 약 12억 원)로 나타났으며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35.9% 증가한 103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로 나타남
- 기타 음료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5% 증가, 속을 채운 파스타 수출액은 전년대비 3.6% 감소

한국의 對프랑스 수출상위 5개 품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8,075.4	21,693.2	26,746.9	27,451.0	21,882.2	100.0	△19.5	8.0
면류	3,703.0	3,638.4	5,002.5	4,229.8	7,479.7	34.2	76.8	26.4
기타 조제 농산품	5,799.0	8,918.6	13,451.7	12,953.3	5,193.7	23.7	△59.9	△3.6
1 라면	2,047.1	1,546.2	3,109.0	2,168.3	5,179.4	23.7	138.9	36.3
2 인스탄트면 면류	785.0	995.6	1,133.8	1,017.8	1,113.8	5.1	9.4	12.4
3 베이커리 제품	524.7	595.3	685.1	757.1	1,028.6	4.7	35.9	23.3
4 기타 음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0.0	852.2	619.2	820.3	922.7	4.2	12.5	2.7
5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15.8	678.4	564.9	705.1	679.7	3.1	△3.6	9.6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종자 등은 제외함

* 주2 : 전체는 농산물만 포함 (수산물 제외함)

* 주3 : 기타 음료 연평균 성장률은 '17/'20 으로 계산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농식품 시장 현황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20년 식품시장 규모 1,661억 유로(한화 약 224.3조 원)로 집계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96억 유로(한화 약 66.9조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29.8% 비중을 차지함
 - 이 중 육류 시장규모는 236억 유로(한화 약 31.8조 원)로 전체 시장의 14.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과일류는 107억 유로(한화 약 14.4조 원)로 6.4% 차지, 채소류는 65억 유로(한화 약 8.8조 원)로 3.9% 비중을 보임
 - 이어서 수산물(1.7%) 및 달걀(1.5%), 뿌리채소·괴경류(1.4%), 당류 및 감미료류(0.4%), 견과류(0.2%), 두류(0.1%) 순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166억 유로(한화 약 157.4조 원)로 신선식품보다 높은 비중(70.2%)을 차지함
 - 주식류 시장규모가 355억 유로(한화 약 47.9조 원)로 가장 컸으며 뒤이어 유제품 및 대체품이 209억 유로(한화 약 28.2조 원) 규모로 12.6% 비중을 차지
 - 주류(12.1%), 스낵류(8.7%), 요리 재료 및 식사류(6.7%), 차가운 음료(5.7%), 따뜻한 음료(3.1%) 순으로 시장을 점유함

프랑스 식품시장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체	153,474.5	156,112.2	157,545.1	159,397.7	166,148.5	100.0
신선식품	44,821.7	45,774.2	45,888.1	46,565.2	49,570.2	29.8
육류	22,624.9	22,771.2	22,675.0	22,699.1	23,577.1	14.2
과일류	8,308.5	8,899.4	9,264.8	9,653.9	10,696.5	6.4
채소류	5,360.9	5,706.8	5,829.4	6,017.9	6,507.3	3.9
수산물류	2,782.9	2,855.9	2,832.5	2,841.6	2,833.9	1.7
달걀	1,752.5	1,890.9	1,986.2	2,087.5	2,433.5	1.5
뿌리채소·괴경류	2,932.1	2,601.1	2,230.9	2,199.7	2,358.0	1.4
당류 및 감미료	693.2	660.4	665.1	644.5	699.2	0.4
견과류	217.9	229.7	239.7	250.3	269.8	0.2
두류	148.9	158.6	164.6	170.8	194.8	0.1
가공식품	108,652.7	110,338.2	111,656.9	112,832.5	116,578.4	70.2
주식류	32,922.1	33,369.5	33,652.3	34,000.1	35,500.7	21.4
- 베이커리류	14,374.6	14,568.8	14,818.5	15,123.8	15,556.8	9.4
-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3,026.6	13,219.8	13,251.1	13,212.9	13,766.2	8.3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3,153.6	3,168.0	3,127.0	3,148.5	3,307.6	2.0
- 쌀, 파스타, 면	1,685.7	1,721.3	1,756.8	1,818.2	2,157.4	1.3
- 시리얼	681.6	691.5	699.0	696.7	712.7	0.4
유제품 및 대체품	19,694.6	19,690.3	19,803.5	19,958.1	20,871.9	12.6
- 유제품	18,414.0	18,423.1	18,546.8	18,707.8	19,631.4	11.8
- 영유아용 식품	1,280.6	1,267.2	1,256.7	1,250.4	1,240.4	0.7
주류	19,041.0	19,383.4	19,509.4	19,770.8	20,116.7	12.1
스낵류	13,508.3	13,823.4	14,112.1	14,197.7	14,461.8	8.7
요리 재료 및 식사류	10,304.9	10,484.4	10,658.5	10,759.6	11,065.0	6.7
- 즉석식품	4,712.3	4,797.8	4,890.2	4,920.6	4,988.2	3.3
- 요리 재료	5,592.6	5,686.6	5,768.3	5,839.0	6,076.8	3.3
차가운 음료류	8,910.5	9,111.6	9,283.0	9,310.7	9,418.1	5.7
따뜻한 음료류	4,271.3	4,475.6	4,638.1	4,835.4	5,144.2	3.1

* 주1 : 유제품에 치즈, 우유 대체제, 요거트, 우유, 버터 포함

* 주2 : 주류에 와인, 양주, 맥주, 사과주/배주, 저 알코올 음료 포함

* 주3 : 스낵류에 제과, 비스킷/스낵바/과일 스낵, 세이보리 스낵, 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 포함

* 주4 : 요리 재료에 소스/드레싱/조미료, 달콤한 스프레드, 식용기름, 수프 포함

* 주5 : 차가운 음료류에 물, 주스, 차 음료, 에너지 음료, 커피 음료, 스포츠 음료 및 아시안 스페셜 음료 포함

* 주6 : 뜨거운 음료류에 커피, 차, 기타 음료 포함

* 출처 : Euromonitor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1년 1월 기준 인구 수는 전년동기 대비 0.2% 증가한 6,740만 7,241명으로 집계됨

- 중위연령은 41.1세로 전체 인구에서 25~54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의 중위연령 42.6세, 남성의 중위연령 39.6세로 집계됨
 - 25~54세의 비중은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65세 이상 20.7%, 14세 이하 17.8%, 55~64세 12.6%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의 96.8%가 도시에 거주함
- 성비는 균등한 수준으로, 여성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51.7%인 3,477만 504명, 남성은 3,251만 6,737명으로 48.3%를 차지함

*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2021년 2분기 기준 가처분 소득은 3,743억 유로(한화 약 505조 원)로 나타남

- 2021년 7월 기준 상품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규모는 471억 유로(한화 약 63.4조 원)로 집계됨
 - 같은 기간 농식품 소비지출 규모는 152억 유로(한화 약 20.6조 원)로 전월 대비 3.3% 감소함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553 유로(한화 약 345만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0% 증가함

- 신선식품은 29.8%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액은 761 유로(한화 약 103만 원)로 전년 대비 6.2% 증가함
 - 육류 소비액은 362 유로(한화 약 49만 원)로 신선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과일류 소비액은 164 유로(한화 약 22만 원)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채소류 소비액은 100 유로(한화 약 13만 원)로 전년 대비 7.9% 증가함
 - 이어서 수산물류(1.7%), 달걀(1.5%), 뿌리채소·괴경류(1.4%), 당류 및 감미료류(0.4%), 견과류(0.2%), 두류(0.1%) 순으로 소비액 비중을 차지함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1,792 유로(한화 약 242만 원)로, 전년 대비 3.1% 증가함
 - 주식류 소비액은 545 유로(한화 약 74만 원)로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4.2% 증가함
 - 이어서 유제품 및 대체품 소비액은 322 유로(한화 약 43만 원)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 이 외에도 주류(12.1%), 스낵류(8.7%), 요리 재료 및 식사류(6.7%), 차가운 음료류(5.7%), 따뜻한 음료류(3.1%) 순으로 소비액 규모를 보임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전체	2,380.8	2,415.3	2,430.6	2,454.0	2,552.9	100.0
신선식품	695.4	708.3	707.7	716.4	761.0	29.8
육류	350.9	352.3	349.7	349.3	362.0	14.2
과일류	128.9	137.7	142.9	148.5	164.2	6.4
채소류	83.2	88.3	89.9	92.6	99.9	3.9
수산물류	43.2	44.2	43.7	43.7	43.5	1.7
달걀	27.2	29.3	30.6	32.1	37.4	1.5
뿌리채소·괴경류	45.5	40.2	34.4	33.8	36.2	1.4
당류 및 감미료	10.8	10.2	10.3	9.9	10.7	0.4
견과류	3.4	3.6	3.7	3.9	4.1	0.2
두류	2.3	2.5	2.5	2.6	3.0	0.1
가공식품	1,685.4	1,707.0	1,722.9	1,737.6	1,791.9	70.2
주식류	510.7	516.2	519.0	523.2	545.1	21.4
유제품 및 대체품	305.5	304.6	305.9	307.9	321.6	12.6
주류	295.4	299.9	300.9	304.2	308.9	12.1
스낵류	209.5	213.9	218.0	219.0	222.8	8.7
요리 재료 및 식사류	159.8	162.2	164.4	165.6	169.9	6.7
차가운 음료류	138.2	141.0	143.2	143.3	144.6	5.7
따뜻한 음료류	66.3	69.2	71.5	74.4	79.0	3.1

* 출처 : Euromonitor

- 신선식품 중 과일류와 뿌리채소·괴경류를 제외한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1인당 육류 소비량은 47.0kg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과일류 소비량이 41.9kg, 채소류 40.2kg으로 각각 집계됨
 - 뿌리채소·괴경류의 1인당 소비량은 32.2kg, 달걀 소비량은 11.6kg로 집계

- 가공식품 중 스낵류를 제외한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주식류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 소비량은 1인당 70.3kg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소비량이 20.0kg,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8.3kg 그리고 쌀/파스타/면 16.1kg으로 각각 집계됨
 - 유제품 및 대체품 중 치즈 소비량은 16.9kg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차가운 음료 소비량은 1인당 218.9L로 액체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류 67.8L, 식용기름 4.7L, 따뜻한 음료 4.4kg으로 각각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 규모(2016~2020)

(단위 : kg 또는 L)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선식품	육류	50.1	50.1	49.6	49.0	47.0
	과일류	40.5	40.6	40.6	40.7	41.9
	채소류	40.7	41.1	40.8	40.8	40.2
	뿌리채소·괴경류	34.2	33.3	32.3	31.5	32.2
	달걀	11.7	11.7	11.8	12.0	11.6
	당류 및 감미료	6.8	6.4	6.2	6.1	5.0
	수산물류	5.4	5.4	5.4	5.4	4.7
	견과류	0.7	0.7	0.7	0.7	0.7
	두류	0.3	0.3	0.3	0.3	0.3
가공식품	차가운 음료류	223.8	229.1	232.7	227.5	218.9
	주류	75.4	75.2	74.6	73.8	67.8
	베이커리 및 시리얼	74.0	73.6	74.1	74.7	70.3
	유제품 및 대체품	24.2	24.1	24.0	24.2	22.9
	과일 및 채소 가공품	23.2	22.7	22.2	21.9	20.0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21	20.7	20.3	19.9	18.3
	스낵류	17.9	17.8	17.8	17.7	17.9
	쌀/파스타/면	16	16.1	16.4	16.7	16.1
	즉석식품	11.1	11.1	11.1	10.9	10.2
	소스/드레싱/조미료	9.4	9.5	9.5	9.6	8.5
	식용기름	5.1	5.0	5.0	5.0	4.7
	따뜻한 음료류	4.5	4.5	4.5	4.5	4.4
	달콤한 스프레드	4.5	4.6	4.6	4.5	4.3
	수프	2.9	2.7	2.6	2.5	2.4

- * 주1 : 주류, 차가운 음료류, 식용기름 단위는 L이며, 나머지는 모두 kg임
- * 주2 : 유제품 및 대체품에 계량 가능한 품목인 치즈, 버터/스프레드, 이유식이 포함됨
- * 주2 : 주식류에 베이커리 및 시리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쌀/파스타/면이 포함됨
- * 주2 : 요리 재료 및 식사류에 즉석식품, 소스/드레싱/조미료, 달콤한 스프레드, 식용기름, 수프가 포함됨
- * 주3 : 스낵류 중 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는 계량 불가로 제외됨
- * 출처 : Euromonitor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가. 주요 트렌드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식품의 수요 지속 증가 중

- 프랑스인의 73%는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유기농 식품을 먹고, 유기농 식품을 먹는 가장 주된 이유는 ‘건강’임
 - 프랑스에서 유기농 식품의 약 81%가 과일과 채소이며, 유제품과 계란이 각각 69%임

■ 팬데믹 이후 가정 내 취식 증가로 ‘식재료’ 수요 증가

- 신선식품 중에서는 과일류와 뿌리채소·괴경류가 증가
 - 면역체계 증진을 위해 과일류의 전반적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감자와 같은 괴경류 품목의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류 중 즉석식품, 밀가루나 파스타, 쌀 구입이 증가
 - 특히 2020년 파스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함
 - 2020년 말까지 프랑스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에서의 아시아 식품 판매 중 가장 수익이 높은 부문은 면류와 쌀이었고, 이러한 종류의 제품 매출액은 1억 5천만 유로(한화 약 2,025억 원)에 달함
 - 2021년 1분기 동안 파스타 판매액은 6.2% 상승함 (물량은 5.9% 상승)
 - 하지만, 봉쇄령 조치에 더해 기상 상황으로 듀럼 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며 수급이 불안정함
 - 30% 가격 상승과 듀럼밀 부족에 직면한 파스타 제조업체들은 공공당국에 비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 중임.

나. 이슈품목

■ 가정 내에서 직접 요리하기 위해 밀가루 또는 파스타 등 품목의 수요 급증

- 2020년 두 번의 봉쇄령(Lockdown) 조치로 인해 레스토랑, 제과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이 밀가루, 파스타 등 비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 됨

밀가루, 파스타, 쌀 등 수요가 급증한 식품

		
밀가루	파스타	쌀

* 출처 : courses.monoprix.fr

■ 육류 소비 감소에 따른 식물성 제품군 확장

- 2020년 6월 프랑스인의 40%가 자신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선언하며, 건강과 환경 보호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겠다 선언
- 대형 슈퍼마켓 기업들은 PB상품에 식물성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음

*육식을 피하고(일부 채식주의 단계에서는 닭고기나 가끔의 육식 허용)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

2021년 출시되고 있는 식물성 제품

		
식물성 오일로 만든 치즈	콩과 파프리카로 만든 소시지	쌀, 코코넛, 콩으로 만든 우유 대체품

* 출처 : www.lsa-conso.fr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의 농업 정책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에 근간을 둠

- 1962년부터 시작된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EU 회원국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을 지원함
 - 이를 통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 농촌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는, 역내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설정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사들여 생산 촉진 및 유통 안정화를 꾀하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함
 - 또한 수입농식품에 대한 TRQ 또는 부과금을 설정하여 역내 농식품을 보호함
- 유럽의회와 EU이사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더 친환경적인 새로운 CAP(2023~2027) 개혁에 동의함
 - CAP계획은 환경 및 기후 법규와 일치를 위해 기후 및 환경 법률이 수정되면 계획을 업데이트 해야함
 - 6가지 Farm To Fork와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그린 딜 목표에 기여
 - 모든 농장은 최소 3%의 경작지를 생물다양성과 비생산적인 요소에 할당해야 하며, 7% 달성을 위해 생태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습지와 이탄 습지는 보호됨)
 - 직접 지불되는 예산의 최소 25%가 생태계획에 할당되어 동물 복지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관행 및 접근방식(유기농, 농업생태학, 탄소농업 등)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 농촌개발 기금의 최소 35%는 기후, 생물다양성, 환경 및 동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할당됨
 - 과일 및 채소 부문에서의 운영 프로그램은 최소 15% 지출을 환경에 할당해야 함
 - CAP예산의 40%는 기후와 관련되어야 하며, EU 예산의 10%는 생물다양성 목표에 할당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지해야 함

■ 프랑스는 2016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20년 2월 프랑스는 2025년까지 농식품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현재 수준의 5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
 - 2013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가 조약을 시행한 이래, 2015년 단체급식 관련 규정, 2016년 단계적 음식물쓰레기 저감 조치(Garot법), 2019년 잉여 음식물 기부에 관한 조례(EGAlim 법) 등을 제정함
 - 식품 유통 및 집단 케이터링 부문(슈퍼마켓, 매점 등)은 2015년 대비 50%,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여야 함
 - 식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부문과 상업용 레스토랑도 음식물 쓰레기를 2015년 대비 50%, 2030년까지 줄여야 함
- 2021년 9월 프랑스는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의해 4단계에 걸쳐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점진적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
 - 2025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20% 감소 목표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재사용 및 재활용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22년 1월부터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차와 허브티백은 판매가 금지됨



농식품 유통 현황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식품 유통은 주로 오프라인(95.4%)을 통해 이뤄짐

- 2020년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2,378억 유로(한화 약 321.2조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6% 성장률을 보임
 - 현대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78.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임
 - 하이퍼마켓(37.8%)은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0.2%의 감소율을 기록함
 - 편의점(3.7%)은 연평균 6.8% 성장하며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임
 - 전통식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오프라인 식품 시장의 21.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7% 수준으로 성장함

프랑스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합계	220,352.6	225,572.5	229,696.9	231,892.7	237,791.7	100.0	2.5	2.6
현대식 유통채널	175,598.7	178,446.6	179,979.1	180,782.8	186,426.4	78.4	3.1	2.0
- 편의점	7,252.8	7,724.2	8,171.4	8,179.6	8,825.8	3.7	7.9	6.8
- 할인점	16,643.7	17,490.4	17,087.5	17,531.8	17,847.3	7.5	1.8	2.4
- 포코트 리테일러 ²⁾	1,870.6	1,889.3	1,868.7	1,838.8	1,537.2	0.6	△16.4	△6.3
- 하이퍼마켓	90,223.0	90,661.0	89,328.4	89,519.0	89,787.6	37.8	0.3	△0.2
- 슈퍼마켓	59,608.7	60,681.6	63,523.2	63,713.7	68,428.6	28.8	7.4	4.7
전통식 유통채널	44,753.9	47,125.9	49,717.8	51,109.9	51,365.3	21.6	0.5	4.7

* 주2 : 포코트 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 출처 : Euromonitor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14억 유로(한화 약 15.4조 원)로 팬데믹으로 전년 대비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전자상거래 채널의 비중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큰 폭(35.1%)으로 증가
 - 홈쇼핑 채널은 온라인 유통 채널의 6.4% 비중을 차지하며 전자상거래 채널과 달리 연평균 4.3% 감소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프랑스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합계	7,100.7	7,643.8	8,204.3	8,653.6	11,424.0	100.0	32.0	17.2
전자상거래	6,267.6	6,844.2	7,432.8	7,916.0	10,694.5	93.6	35.1	19.5
홈쇼핑	833.1	799.6	771.5	737.6	729.5	6.4	△1.1	△4.3

* 출처 : Euromonitor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2020년 기준 식료품 유통채널의 점포 수는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13만 392개로 집계됨

- 그 중 현대식 유통채널의 점포 수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2만 6,457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하이퍼마켓은 최근의 매출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 하이퍼마켓의 점포 수와 매출액은 각각 연평균 0.1%, 0.2%의 감소율을 보임
 -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하이퍼마켓은 매장 면적을 줄이고 다양한 브랜드를 흡인숍 (Shop-in-shop)²⁾ 형태로 입점시킴으로써 차별화에 나섬
- Carrefour는 비식품의 규모를 줄이고 유기농 식품에 초점을 맞춰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라벨 부착과 바코드 스캔, 재고관리의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솔루션 기술을 사용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음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E Leclerc (E Leclerc)	Carrefour (Carrefour SA)	Auchan (Auchan Group SA)	Intermarché (ITM Entreprises SA)
매장사진				
설립연도	1948년	1963년	1961년	1973년
점유율	33.9%	21.1%	15.6%	9.7%
매출액	30,398.5	18,934.1	14,009.5	8,705.4
매장수	547개	248개	144개	245개
홈페이지	e-leclerc.com	carrefour.fr	auchan.fr	intermarche.com

* 출처 : Euromonitor

2)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를 일컬음

- 슈퍼마켓은 할인점에 비해 가까운 위치적 이점과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7.4% 증가라는 긍정적인 성장을 보인 가운데, PB 제품 및 유기농 제품 구성을 확대하고 있음
 - Intermarché, Casino, Auchan 등 슈퍼마켓 업체는 일부 매장을 폐쇄하며 재정 안정성을 높임
 - 친환경을 추구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증가하면서 유기농 및 지역 내 신선식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음
 - Carrefour는 '20년 11월 유기농 식품 전문점 바이오세봉(Bio C'bon)을 인수하였고, PB 제품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 Intermarche는 '18년 7월부터 프랑스 내 15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유기농 식품매장(Les Comptoirs des la Bio)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Intermarché (ITM Entreprises SA)	Carrefour Market (Carrefour SA)	Super U (Système U Centrale Nationale SA)	Casino ¹⁾ (Casino Gidard-Perachon SA)
매장사진				
설립연도	1973년	1963년	1894년	1932년
점유율	30.7%	19.7%	14.4%	13.7%
매출액	21,007.6	13,473.6	9,881.1	9,386.3
매장수	1,814개	1,696개	987개	1,595개
홈페이지	intermarche.com	carrefour.fr	superu.mu	monoprix.fr

* 주1 : 카지노그룹 슈퍼마켓은 모노프리(Monoprix) 또는 모눔(Monop'), 나튀랄리아(Naturalia), 카지노 (Casino) 4개의 브랜드가 있고, 모노프리의 매출이 가장 큼

* 출처 : Euromonitor

III. 농식품 유통 현황

- 대형 할인점(하드 디스카운트)은 제품군을 확대하고 매장 범위를 확보하려 함
 - Aldi와 Lidl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5월 봉쇄가 완화되자마자 장거리 이동 소비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성장함
 - Lidl은 광범위한 아울렛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명성을 이어감
 - 한편, Aldi는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 2021년 동안 Leader Price의 모든 매장을 인수함으로써 네트워킹을 광범위하게 늘릴 예정임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Lidl (Schwarz Beteiligungs GmbH)	Aldi (Aldi Group)	Leader Price (Casino Guichard-Perachon SA)	Netto (ITM Entreprises SA)
매장사진				
설립연도	1930년	1946년	1989년	1961년
점유율	61.0%	18.5%	12.7%	6.6%
매출액	10,890.5	3,301.8	2,262.9	1,177.9
매장수	1,532개	916개	628개	301개
홈페이지	corporate.lidl.fr	aldi.fr	leaderprice.fr	netto.fr

* 출처 : Euromonitor

- 편의점(Proxi)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나, 접근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평균 6.8%의 성장세를 보임
 - 대형 마켓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포장 상품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함
 -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으며, 야간 셀프계산 서비스나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함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Carrefour Express (Carrefour SA)	Franprix (Casino Guichard-Perrachon SA)	Spar (Internationale Spar Centrale BV)	U Express (Système U Centrale Nationale SA)
매장사진				
설립연도	2007년	1958년	1932년	2008년
점유율	50.0%	23.3%	7.7%	6.1%
매출액	4,409.3	2,054.5	679.4	534.6
매장수	3,244개	2,724개	673개	406개
홈페이지	carrefour.fr	franprix.fr	spar.fr	uexpress.com

- * 주 1 : 카지노그룹 편의점은 프랑프리(Franprix), 스파(Spar), 비발(Vival), 셰파(Sherpa), 르쁘띠카지노(Le Petit Casino) 그리고 카지노숍(Casino Shop) 등의 브랜드가 있고 프랑프리의 매출이 가장 큼
- * 주2 : 까르푸 편의점은 까르푸 익스프레스(Carrefour Express) 외에도 까르푸 시티(Carrefour City), 프록시(Proxi) 등이 있음.
- * 출처 : Euromonitor

■ 전통 식품 유통채널 시장의 88.3%는 다양한 전통 장인 활동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소매 상점들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0.5%, 최근 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임

- 2020년 전통 식료품을 취급하는 유통채널은 포장되지 않은 제품, 특히 수공업 제품과 대량 식품 및 음료를 피하려는 동기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줌
- 전통 식품 유통채널은 고객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건강과 웰빙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유기농식품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II. 농식품 유통 현황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Picard (Picard Surgelés SA)	Biocoop (Biocoop SA Coop)	Les Comptoirs de la Bio (Les Comptoirs de la Bio SAS)	Paul (Holder, Groupe)
매장사진				
설립연도	1906년	1986년	2012년	1889년
점유율	2.8%	2.7%	0.8%	0.7%
매출액	1,416.4	1,380.0	392.5	351.5
매장수	1019개	630개	151개	404개
홈페이지	picard.fr	biocoop.fr	lescomptoirsdelabio.fr	paul.fr

* 출처 : Euromonitor

프랑스

나. 온라인 유통채널

■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업체는 다양한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품목 중 식품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Amazon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식품업계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이 잇따름
 - * Casino그룹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모노프리(Monoprix)와 카지노(Casino)는 아마존 나우(Amazon Now)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함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트렌드로는 드라이브 보행자(Drive Pedestrian)³⁾ 서비스가 있음
 - 클릭 앤 콜렉트(Click-and-Collect) 등의 개념으로 택배비용이 필요 없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 도심 속 편의점은 우버이츠, 딜리버루와 파트너십으로 홈배송 및 클릭앤콜렉트 서비스를 마련함

(단위 : %, 백만 유로)

매장명	Leclerc (Galc Centre Distributer Eduard Leclerc)	Auchan (Auchan France)	Carrefour (Carrefour SA)	Intermarché (ITM Entreprises SA)	Courses U (Système U Centrale Nationale SA)
설립연도	2007년	2006년	2018년	2004년	2012년
점유율	8.2%	3.7%	2.4%	1.7%	1.5%
매출액	4,550	2,020	1,150	1,100	927
매장수	737개	161개	1,187개	1,495개	797개
홈페이지	e.leclerc	auchan.fr	carrefour.fr	intermarche.com	coursesu.com

- * Amazon은 전자상거래 매출 1위업체이나, 식음료 매출 기준으로는 슈퍼마켓 온라인 서비스에 못 미침
- * 매출액은 해당업체 보고서 기준 전자상 거래 매출로 하되 Euromonitor 순위도 참고하였음
- * Auchan의 매출액은 프랑스 전체 매출액의 12%로 추정하여 계산함
- * 매장 수는 드라이브 또는 드라이브 보행자 등 클릭 앤 콜렉트(Click-and-Collect)가 가능한 대략적인 매장 수임
- * 출처 : Euromonitor, 해당업체 발간 보고서

3) 차가 없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개념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이 사전에 선택한 제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택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

■ 홈쇼핑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하락이 예상됨

-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해 품목 전문성 강화 및 전문옴니채널⁴⁾로의 전환 등을 꾀하고 있음
 -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며 TV 시청시간이 줄어들었고 홈쇼핑 시장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 Toupargel, Thiriet, Maximo 등은 냉동식품 판매에 집중하며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옴니채널 방식을 통해 소비자 유입을 꾀함

(단위 : %, 백만 유로)

채널명	Toupargel (Toupargel SAS)	Thiriet (Glaces Thiriet SAS)	Maximo (Maximo SA)
매장사진			
점유율	10.7%	9.5%	9.0%
매출액	191.3	169.3	160.3
홈페이지	www.placedumarche.fr	www.thiriet.com	www.maximo.fr

* 주1 : 매출액은 2019년 프랑스 홈쇼핑 총 매출액과 매장별 점유율에 기반하여 추산한 값임
 * 출처 : Euromonitor, 해당업체 홈페이지

4) 인터넷, 모바일, 편의점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쇼핑체계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프랑스는 EU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EU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27개(영국제외) 회원국은 관세의 목적상 단일 영역임

- 수입통관을 위해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함
 - 프랑스의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제출 → ②수입신고 → ③검사 및 검역 → ④관세 납부 → ⑤물품 반출의 순서를 따름

■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

- 화물 상세 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유럽 공동 세관등록번호(EORI),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 기재
 -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은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은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에 전송하여야 하며, 단거리 철도/운하운송 화물은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에 전송해야 함
 - 항공운송의 경우 단거리 노선은 출발 전,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은 도착 4시간 전에 전송해야 함
- 수출입업자는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함
 - 2005년 무역공급망의 안전성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EU 세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함
 - AEO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 순서이며, Form-117을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함
-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제운영인이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tariff classification)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품목분류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 제도를 운영함

- EU공동체 내에 있는 세관에 물품을 신고할 때, 물품은 일반적으로 복합품목분류표(CN : Combined Nomenclature)에 따라 분류하는데, CN은 HS, CN 소호(sub-headings)로 표현되는 품목분류표의 세목분류(subdivisions) 그리고 추가적인 부 호는 CN 소호와 관련된 류의 주식 사항을 포괄함
- 실제로 이루어지려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경우 BTI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표상의 분류를 세관당국에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문서로 된 품목분류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 BTI의 유효기간은 교부 후 3년임
- 상품의 수입, 수출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EORI(통관고유부호) 번호가 필요함
 -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인 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음
 - EU 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EORI 번호가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함

■ 수입물품의 대리인은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완료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
 - 수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기타 요구 구비 증명자료 등을 동봉해야 함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및 검역을 실시

- 육안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출입업체 및 대리인 참석 하에 물품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별도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 역내 운송허가 통지함

■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前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음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6,000유로(한화 약 830만 원)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

- 선하증권 원본 및 관세영수증 발행 후 반출 가능하며, 유럽국가 간 관세 철폐로 유럽 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할 필요 없음

통관 시 제출서류

-
-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상세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나. 검역제도

■ 농산물 및 식물성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시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⁵⁾ 제출을 요구함

- 병충해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물위생검역증이 면제되며, 비관매용, 연구용(실험용), 테스트용 등으로 사용될 목적에도 면제될 수 있음
- 위생 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이내 발급, 2) 식물이 생육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급 여부, 3) 식물의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번역 첨부 등임

■ 프랑스로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다음 9개 품목 72종이며, 감자, 감귤 묘목, 소나무 묘목, 재식용 인삼(수삼, *Panax ginseng*) 등 4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42종 수출 불가함

- 제3국산 종자, 분재 등을 제외한 재식용 식물 중 일부 품목은 유럽위원회에 의해 고위험식물류로 지정되어 2019년 12월부터 수입이 금지됨
 - 재식용인 Cydonia속, 명자나무속(*Chaenomeles* spp), 배속(*Pyrus* spp), 복숭아속(*Prunus* spp), 사과속(*Malus* spp), 산사나무속(*Crateagus* spp), 장미속(*Rosa* spp) 식물 등은 고 위험 식물로 지정됨에 따라 Annex III 제9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됨.
 - 단, 잎이 없는 휴면식물, 꽃, 과실은 제외

5) 한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수출가능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 쌀, 보리, 밀, 호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서류 : 고구마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과실·견과류 : 호도, 밤 • 채소류 :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메론, 오이, 호박, 가지, 당근, 무, 양파, 고추, 파, 셀러리, 브로콜리, 양배추, 피망, 파프리카, 배추, 상추, 여주 • 인삼류 : 인삼(수삼, <i>Panax ginseng</i>)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화훼류 : 글라디올러스, 난초, 국화, 카네이션, 백합, 장미, 튜립, 심비디움, 국화,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 재식용 식물류 : 휴면상태의 장미속 식물, 산호수묘목, 목련묘목, 동백나무묘목, 대추묘목, 단풍나무묘목, 느티나무묘목, 낙상홍나무묘목, 감나무속 식물의 묘목 																																										
수출불가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감귤 묘목, 소나무 묘목, 재식용 인삼(수삼, <i>Panax ginseng</i>) 																																										
수출불가품목 (고위험식물)	<table border="0"> <tr> <td>• <i>Acacia</i> Mill.</td> <td>• <i>Crateagus</i> spp.</td> <td>• <i>Nerium</i> L.</td> </tr> <tr> <td>• <i>Acer</i> L.</td> <td>• <i>Chaenomeles</i> spp.</td> <td>• <i>Persea</i> Mill.</td> </tr> <tr> <td>• <i>Albizia</i> Durazz.</td> <td>• <i>Cydonia</i> spp.</td> <td>• <i>Populus</i> L.</td> </tr> <tr> <td>• <i>Alnus</i> Mill.</td> <td>• <i>Diospyros</i> L.</td> <td>• <i>Prunus</i> L.</td> </tr> <tr> <td>• <i>Annona</i> L.</td> <td>• <i>Fagus</i> L.</td> <td>• <i>Prunus</i> spp.</td> </tr> <tr> <td>• <i>Bauhinia</i> L.</td> <td>• <i>Ficus carica</i> L.</td> <td>• <i>Pyrus</i> spp.</td> </tr> <tr> <td>• <i>Berberis</i> L.</td> <td>• <i>Fraxinus</i> L.</td> <td>• <i>Quercus</i> L.</td> </tr> <tr> <td>• <i>Betula</i> L.</td> <td>• <i>Hamamelis</i> L.</td> <td>• <i>Robinia</i> L.</td> </tr> <tr> <td>• <i>Caesalpinia</i> L.</td> <td>• <i>Jasminum</i> L.</td> <td>• <i>Rosa</i> spp.</td> </tr> <tr> <td>• <i>Cassia</i> L.</td> <td>• <i>Juglans</i> L.</td> <td>• <i>Salix</i> L.</td> </tr> <tr> <td>• <i>Castanea</i> Mill.</td> <td>• <i>Ligustrum</i> L.</td> <td>• <i>Sorbus</i> L.</td> </tr> <tr> <td>• <i>Cornus</i> L.</td> <td>• <i>Lonicera</i> L.</td> <td>• <i>Taxus</i> L.</td> </tr> <tr> <td>• <i>Corylus</i> L.</td> <td>• <i>Malus</i> Mill.</td> <td>• <i>Tilia</i> L.</td> </tr> <tr> <td>• <i>Crataegus</i> L.</td> <td>• <i>Malus</i> spp.</td> <td>• <i>Ulmus</i> L.</td> </tr> </table>	• <i>Acacia</i> Mill.	• <i>Crateagus</i> spp.	• <i>Nerium</i> L.	• <i>Acer</i> L.	• <i>Chaenomeles</i> spp.	• <i>Persea</i> Mill.	• <i>Albizia</i> Durazz.	• <i>Cydonia</i> spp.	• <i>Populus</i> L.	• <i>Alnus</i> Mill.	• <i>Diospyros</i> L.	• <i>Prunus</i> L.	• <i>Annona</i> L.	• <i>Fagus</i> L.	• <i>Prunus</i> spp.	• <i>Bauhinia</i> L.	• <i>Ficus carica</i> L.	• <i>Pyrus</i> spp.	• <i>Berberis</i> L.	• <i>Fraxinus</i> L.	• <i>Quercus</i> L.	• <i>Betula</i> L.	• <i>Hamamelis</i> L.	• <i>Robinia</i> L.	• <i>Caesalpinia</i> L.	• <i>Jasminum</i> L.	• <i>Rosa</i> spp.	• <i>Cassia</i> L.	• <i>Juglans</i> L.	• <i>Salix</i> L.	• <i>Castanea</i> Mill.	• <i>Ligustrum</i> L.	• <i>Sorbus</i> L.	• <i>Cornus</i> L.	• <i>Lonicera</i> L.	• <i>Taxus</i> L.	• <i>Corylus</i> L.	• <i>Malus</i> Mill.	• <i>Tilia</i> L.	• <i>Crataegus</i> L.	• <i>Malus</i> spp.	• <i>Ulmus</i> L.
• <i>Acacia</i> Mill.	• <i>Crateagus</i> spp.	• <i>Nerium</i> L.																																									
• <i>Acer</i> L.	• <i>Chaenomeles</i> spp.	• <i>Persea</i> Mill.																																									
• <i>Albizia</i> Durazz.	• <i>Cydonia</i> spp.	• <i>Populus</i> L.																																									
• <i>Alnus</i> Mill.	• <i>Diospyros</i> L.	• <i>Prunus</i> L.																																									
• <i>Annona</i> L.	• <i>Fagus</i> L.	• <i>Prunus</i> spp.																																									
• <i>Bauhinia</i> L.	• <i>Ficus carica</i> L.	• <i>Pyrus</i> spp.																																									
• <i>Berberis</i> L.	• <i>Fraxinus</i> L.	• <i>Quercus</i> L.																																									
• <i>Betula</i> L.	• <i>Hamamelis</i> L.	• <i>Robinia</i> L.																																									
• <i>Caesalpinia</i> L.	• <i>Jasminum</i> L.	• <i>Rosa</i> spp.																																									
• <i>Cassia</i> L.	• <i>Juglans</i> L.	• <i>Salix</i> L.																																									
• <i>Castanea</i> Mill.	• <i>Ligustrum</i> L.	• <i>Sorbus</i> L.																																									
• <i>Cornus</i> L.	• <i>Lonicera</i> L.	• <i>Taxus</i> L.																																									
• <i>Corylus</i> L.	• <i>Malus</i> Mill.	• <i>Tilia</i> L.																																									
• <i>Crataegus</i> L.	• <i>Malus</i> spp.	• <i>Ulmus</i> L.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감귤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⁶⁾에 따라 우려병해충을 관리 및 소독처리한 후 수출되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 감귤류 생과실에 대해 지정한 검역병채충에는
 - ▲*Xanthomonas campestris*(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 ▲*Cercospora angolensis* ▲*Guignardia citricarpa*(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등이 있음

6)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하며 재배지검역을 통과해야 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IV.A.I. points 16.1, 16.2. option(c), 16.3. option(a), 16.4. option(c) and 16.5. option(a)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동 과실은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ANNEX IV, PART A Section I : 16.1, 16.2(c), 16.3(a), 16.4(c) 및 16.5(a)에 부합함)

- 토마토 또한 다음 내용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함

-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무감염되었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5에 기재된 미생물 관련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다. 라벨링 규정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는 2014년 시행된 EU 식품 라벨링법을 따름

- 해당 규정은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의 외양, 식품 광고, 영양 정보,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함
 - 라벨링 필수사항을 소비자들이 읽기 쉽게 표기해야 하며 고기(생선)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제품 성분(원료) 리스트 • 알레르기 항원인자 • 특정 성분의 함유량 • 제품의 실 중량(Net Weight) • 유통기한(Best befo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방법 • 회사명 및 주소 • 원산지 • 사용법 • 도수(알코올 도수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 영양 정보 |
|------------------------------------------------------------------------------------------------------------------------------------------------------------------------------------------|-------------------------------------------------------------------------------------------------------------------------------------------------------------------|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 ① 제품명 : PANSIT LOMI
- ② 식품성분 : 밀가루, 계란, 전분, 소금, 칼륨, 색소 등
- ③ 알레르기 : 계란 항원인자
- ④ 순중량 : 14oz
- ⑤ 유효기간 : 별도표기
- ⑥ 보관방법 : 부패하기 쉬우니 냉동보관 필요
- ⑦ 회사명 및 주소 : PINOY FOOD PRODUCTS 주소
- ⑧ 원산지 : 미국
- ⑨ 사용법 : 뜨거운 물에 2분간 담근 후 급기 위해 물을 버리세요.
- ⑩ 영양정보 : 1회당 56.7g, 열량 112kcal, 지방 1g(포화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나트륨 40mg, 탄수화물 23g (식이섬유 1g), 단백질 4g

* 출처 : www.bigcitydap.com

- 영양정보의 경우 의무 기재사항 및 추가 기재사항(선택 기재사항)이 존재함

의무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 • 지방 함량, 포화지방 함량, 탄수화물 함량, 설탕 함량, 단백질 함량, 소금 함량
추가 기재사항 (선택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포화지방 함량, 폴리올 함량, 전분 함량, 식이섬유 함량,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

- 특정 식품에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공기 충전 포장 식품	공기 충전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감미료 함유 식품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에 'with sweetener(s)' 표기
	설탕과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명에 'with sugar(s) and sweetener(s)' 표기
	아스파탐 혹은 아스파탐-아세설팜 소금을 함유한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ains aspartame(a source of phenylalanine)'을 E번호 형태로 혹은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의 형태로 원료에 표기
	폴리올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cessive consumption may produce laxative effects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유 식품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100mg/kg 혹은 10mg/L 이상인 과자류나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표기 •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시 식품명에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4g/kg 이상인 과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시 식품명에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이나 암모늄염 함량이 50mg/L, 300mg/L 이상인 음료 (알코올성의 경우 함량이 1.2% 이상인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리스트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 혹은 원료 리스트에 없을 시 식품명에 표기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고카페인 음료 및 카페인 첨가 식품	커피, 차를 포함하는 식품으로 식품명에 표기가 되지 않은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농축 혹은 건조 형태의 식품 중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생리학적 목적으로 카페인 첨가된 식품(음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 식품 보충제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 라벨에 1회 섭취 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 기재
착색료가 들어간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색료명이나 번호를 표기(예 : Sunset Yellow, E110) • 부작용이나 어린이 주의 사항을 명시 	

* 출처 : 유럽연합(<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2018-01-01>)

■ 2018년 유럽위원회는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식품 정보에 관한 규정(FIC)에 따라 특정 식품의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 유럽연합(EU)은 2021년 2월 '유럽의 암 퇴치 계획'을 채택

- 해당 계획은 모든 알코올 함유 음료의 라벨에 제품 성분 리스트의 의무 표기와 영양 정보 표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가 통보한 식품부문 TBT는 총 2건으로 나타남

- 식품전반에 대해 2건 집계됨
 - 통보목적 또한 국민건강 및 안전 보호 목적으로 2건 집계됨

식품부문 TBT 통보 품목 및 목적(2016~2020)

품목	건수	통보목적(중복집계)	건수
식품전반	2	국민건강/안전보호	2
식품첨가물	0	기타	0
계	2	계	2

* 출처 : WTO

■ 같은 기간 동안 SPS는 총 6건 통보되었으며 5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건은 유럽연합의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함

- 식품에 대해 5건, 식물(묘목, 화훼 등) 1건으로 집계됨

식품부문 SPS 통보 품목 및 대상국가(2016~2020)

품목	건수	대상국가	
		전 세계	특정국
식품	5	5	-
식물(묘목, 화훼 등)	1		1 ⁷⁾
계	6	5	1

* 출처 : WTO

7) 유럽연합의 비회원

2021년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영국
United
Kingdom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3
1. 농업 현황	
2. 수출입 현황	
II. 농식품 시장 현황	14
1. 시장 개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III. 농식품 유통 현황	25
1. 유통 현황 및 특징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33
1. 수출 프로세스	
2. 수입제도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1 농업 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VA)는 117억 파운드(달러, 한화 약 15조 원)로, 연평균 -0.3%의 성장률을 보임

- 전체에서 농업 GVA의 점유율은 최근 5년간 0.6% 내외의 미미한 비중을 유지함

영국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액(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777,366	1,844,010	1,910,247	1,980,968	1,906,777	△3.7	2.4
	농업 ²⁾	11,850	12,598	12,185	12,947	11,742	△9.3	△0.3
	비중	0.7	0.7	0.6	0.7	0.6	-	-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기초가격 GVA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영국 통계청

- 농업 부문의 고용인구는 32만 명으로 감소 추세, 2020년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함

영국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31,744	32,057	32,439	32,799	32,529	△0.8	0.8
농업 고용인구 (비중)	355 (1.1)	370 (1.2)	345 (1.1)	342 (1.0)	320 (1.0)	△6.4	△3.4

* 주 : 농축업 포함

* 출처 : 영국 통계청

- 활용 가능한 농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71%인 1,727만 ha에 달함
 - 전체 농지면적 가운데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 면적은 602만 ha로 집계되며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작물 재배지가 448만 ha이며, 단기목초지로 118만 ha가 사용됨
 - 이 중 곡물 재배지가 304만 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외 유지류와 원예작물, 감자 순으로 농경지 면적이 집계됨

영국 농지 면적(2016~2020)

(단위 : 천 ha,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경지 전체	6,073	6,131	6,084	6,132	6,024	△1.8	△0.3	
작물 재배지	4,667	4,745	4,667	4,714	4,481	△4.9	△1.3	
경작 가능 작물	전체	4,505	4,577	4,502	4,551	4,314	△5.2	△1.4
	곡물	3,132	3,181	3,106	3,211	3,038	△5.4	△1.0
	유지류	608	590	609	547	415	△24.1	△12.0
	감자	139	145	140	144	142	△1.4	0.7
	기타	627	661	647	649	719	10.8	4.7
원예작물	162	168	165	163	166	1.8	0.8	
단기목초지	1,144	1,144	1,152	1,193	1,181	△1.0	1.1	
미사용지	262	241	265	224	362	61.6	11.4	

* 출처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농업 통계(Farming Statistics)

- 가축의 수는 최근 5년간 가금류와 돼지는 증가, 양과 소는 감소하였는데, 가금류가 1억 8,314만 마리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음
 - 양은 3,270만 마리, 소는 962만 마리, 돼지는 515만 마리로 집계됨

영국 가축 수(2016~2020)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가금류	172,607	181,818	188,880	187,072	183,144	△2.1	2.0
양	33,943	34,832	33,781	33,580	32,697	△2.6	△1.2
소	10,033	10,004	9,891	9,739	9,615	△1.3	△1.4
돼지	4,866	4,969	5,012	5,130	5,148	0.4	1.9

* 출처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농업 통계(Farming Statistics)

나. 주요 생산 품목 및 규모

■ 2020년 영국의 농축산물 생산규모는 총 267억 파운드(한화 42.7조 원)로 최근 5년간 5.0%, 전년대비 2.8% 감소

- 농산물 총생산액 90억 파운드(한화 약 14.4조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2%, 전년 대비 10.0% 감소한 성장률을 보임
- 축산물 총생산액 151억 파운드(한화 약 24.2조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4% 증가

영국 농축산물 총생산액(2016~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합계	23,055	25,993	26,706	27,434	26,670	△2.8	5.0
축산물	12,567	14,236	14,548	14,582	15,072	3.4	6.2
농산물	8,197	9,276	9,477	10,017	9,018	△10.0	3.2

* 주 : 서비스 포함 생산액

* 출처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 농산물 중 곡물이 가장 활발히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채소류, 유지류, 과일류 순으로 생산됨

- 곡물은 농산물 중 생산 규모가 가장 크며, 2020년에는 약 1,896만 톤이 생산되었고 생산금액은 28억 파운드(한화 약 4.4조 원)에 달함
 - 곡물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밀이며,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5% 감소, 곡물 생산의 51%를 차지함
- 채소류는 233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액은 13억 파운드(한화 약 2.1조 원)에 달함
 - 당근, 양파 등 구근작물의 생산량이 총 136만 톤으로 높은 비중(58.5%)을 차지하며, 콜리플라워와 양배추 등을 포함하는 배추속 작물 역시 활발히 생산됨

- 과일류는 66만 톤 생산되어 최근 5년간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나(연평균 4.9% 감소), 생산액은 증가하여 10억 파운드(한화 약 1.7조 원)에 달함
 - 생산량이 가장 높은 작물은 사과로 나타나며, 생산액을 기준으로는 딸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영국 주요 농산물 생산 규모(2016~2020)

(단위 : 천 톤, 백만 파운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곡물	전체	21,964	2,493	23,000	3,090	21,085	3,258	25,517	3,629	18,962	2,759
	밀	14,383	1,667	14,837	2,068	13,555	2,111	16,225	2,434	9,658	1,550
	보리	6,655	730	7,169	909	6,510	1,015	8,048	1,072	8,117	1,054
	귀리	816	90	875	109	850	127	1,076	117	1,031	150
채소류	전체	2,286	1,035	2,409	1,094	2,194	1,106	2,254	1,180	2,330	1,320
	구근류	1,311	356	1,457	372	1,335	395	1,356	403	1,362	428
	당근	746	141	887	155	772	178	821	175	784	185
	양파	372	128	380	134	389	138	357	142	396	148
	배추 속 ¹⁾	435	222	434	247	362	215	346	249	396	302
	양상추	93	154	99	184	92	173	99	178	95	187
	콩류	177	87	145	69	138	76	182	91	195	129
	셀러리	53	26	53	25	54	32	54	35	55	32
과일류	전체	765	699	750	746	731	800	688	903	657	1,045
	과수	608	216	581	224	549	252	502	276	490	340
	사과	247	137	250	128	301	174	288	184	293	239
	딸기	120	261	127	282	141	295	144	357	123	429
	라즈베리	16	113	16	128	16	130	17	154	15	133
지방종자	1,775	541	2,167	761	2,012	654	1,752	586	1,038	358	

* 주1 : 양배추, 콜리플라워 등

* 출처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농업 통계(Farming Statistics), 원예작물 통계(Horticultural Statistics)

■ 2020년 영국의 육류 총 생산량은 414만 톤, 생산액은 85억 파운드(한화 약 13.6조 원)로 집계됨

-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주요 생산 품목은 가금육과 소고기로 나타남
 - 생산량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가금육으로, 195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생산액은 28억 파운드(한화 약 4.5조 원)를 기록함
 - 생산액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소고기로, 2020년 93만 톤이 생산되어 생산액이 29억 파운드(한화 약 4.7조 원)에 달함
- 우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여 153억 리터이며, 생산액은 44억 파운드(한화 약 7조 원) 생산되어 전년 대비 1.8% 감소함
- 달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11억 다스이며, 생산액이 7억 파운드(한화 1.2조 원)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10.7% 증가함

영국 주요 축산물 생산규모(2016~2020)

(단위 : 천 톤, 백만 파운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육류	전체	3,908.3	7,308.3	3,920.1	7,934.3	3,962.1	8,092.8	4,040.6	8,023.9	4,136.7	8,529.5
	소	916.4	2,774.9	904.3	2,988.2	900.6	2,952.4	917.1	2,817.2	934.9	2,929.2
	가금류	1,805.0	2,281.9	1,839.7	2,418.4	1,873.3	2,625.9	1,886.5	2,671.1	1,951.4	2,813.1
	돼지	886.7	1,098.7	867.3	1,326.1	889.8	1,253.0	919.2	1,305.2	944.1	1,441.5
	양	300.1	1,152.9	308.8	1,201.6	298.5	1,261.5	317.7	1,230.3	306.3	1,345.7
우유	14,372	3,300.6	14,964	4,351.0	15,013	4,490.9	15,232	4,461.8	15,250	4,383.3	
달걀	1,031	603.0	1,074	624.3	1,102	641.5	1,128	659.5	1,104	730.3	

* 출처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농업 통계(Farming Statistics)
 * 우유 생산량 단위는 백만 리터(million litres)
 * 달걀 생산량 단위는 백만 다스(million dozen)
 * 2020년 자료는 추정임

2 수출입 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278억 달러(한화 약 30.6조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6%, 전년 대비 7.7%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아일랜드(18.7%), 미국(10.9%), 네덜란드(7.5%)로 집계되며, 對한국 수출액은 0.6%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함
 - 2020년 對아일랜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52억 달러 (한화 약 5.7조 원)로 집계됨
 - 그 뒤를 미국이 이으며, 동년 수출액은 최근 5년간 3.7%, 전년 대비 9.5% 감소한 3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임
 - 對네덜란드 수출액은 21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3.6%으로 성장함
- 한국으로의 수출금액은 2억 달러(한화 약 0.2조 원)로, 감소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18.2%, 전년 대비 25.6% 감소)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8,337,927	28,699,550	30,604,017	30,143,651	27,828,636	100.0	△7.7	△0.6
1 아일랜드	4,753,480	4,978,091	5,611,147	5,190,733	5,210,926	18.7	0.4	3.1
2 미국	3,386,152	3,252,129	3,376,903	3,342,799	3,025,159	10.9	△9.5	△3.7
3 네덜란드	1,874,696	2,039,465	2,325,979	2,250,047	2,086,072	7.5	△7.3	3.6
4 프랑스	2,448,666	2,448,527	2,487,989	2,374,470	2,078,004	7.5	△12.5	△5.3
5 독일	1,834,013	1,875,841	2,025,918	1,947,319	1,777,573	6.4	△8.7	△1.0
6 중국	552,494	599,714	662,650	854,080	890,584	3.2	4.3	17.3
7 스페인	1,196,088	1,027,550	1,121,163	1,161,658	791,118	2.8	△31.9	△12.9
8 벨기에	932,614	879,719	956,324	926,005	736,018	2.6	△20.5	△7.6
9 폴란드	474,821	554,442	600,789	586,013	618,167	2.2	5.5	9.2
10 이탈리아	619,136	607,799	680,460	658,776	575,491	2.1	△12.6	△2.4
29 대한민국	298,801	236,652	226,756	220,241	163,774	0.6	△25.6	△18.2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목은 ‘위스키류’(18.0%),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5.6%), ‘진과 제네바’(2.6%) 등으로 ‘20년 수출 품목의 순위엔 변동이 있었음
 - ‘위스키류’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5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로 집계됨
 -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로 최근 5년간 평균 9.1%로 성장
 - ‘진과 제네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4% 감소한 7억 달러(한화 약 0.8조 원)를 기록함
 - 이어서 ‘기타 베이커리 제품’(2.2%),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2.0%) 포도주(2.0%) 순의 수출 비중을 보임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8,337,927	28,699,550	30,604,017	30,143,651	27,828,636	100.0	△7.7	△0.6
1 위스키류	5,572,614	5,757,620	6,446,705	6,429,289	5,007,186	18.0	△22.1	△3.5
2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196,453	1,323,029	1,493,400	1,579,626	1,553,587	5.6	△1.6	9.1
3 진과 제네바	650,842	687,623	831,525	863,217	730,397	2.6	△15.4	3.9
4 기타 베이커리 제품	593,179	613,216	632,761	626,512	617,229	2.2	△1.5	1.3
5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523,202	515,504	547,116	544,094	547,281	2.0	0.6	1.5
6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537,762	596,700	687,640	695,104	547,218	2.0	△21.3	0.6
7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438,388	466,619	506,205	515,346	525,939	1.9	2.1	6.3
8 맥주	814,105	674,630	656,615	639,386	522,439	1.9	△18.3	△13.7
9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92,245	416,999	506,383	472,036	497,334	1.8	5.4	8.2
10 그 밖의 치즈	407,413	447,369	525,229	524,049	471,447	1.7	△10.0	5.0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617억 달러(한화 약 67.9조 원)로, 전년 대비 0.3% 감소함

- 주요 수입국으로는 네덜란드(13.3%), 아일랜드(10.1%), 프랑스(9.5%), 독일(9.3%), 스페인(7.2%)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네덜란드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82억 달러(한화 약 9조 원)로 집계되었으며 아일랜드산은 2.1% 감소한 62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를 수입함
 - 프랑스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59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였으며, 독일산 수입액 또한 3.0% 감소한 58억 달러(한화 약 6.3조 원)으로 집계됨
-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0.6억 달러(한화 약 621억 원)로 집계
 - 2016년 이후 5년 동안 한국산 수입액은 최근 5년 연평균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9,055,215	59,719,524	63,452,621	61,560,361	61,736,771	100.0	0.3	1.5
1 네덜란드	8,607,865	8,459,013	8,914,775	8,550,213	8,188,985	13.3	△4.2	△1.6
2 아일랜드	6,002,109	6,129,770	6,726,664	6,353,659	6,221,792	10.1	△2.1	1.2
3 프랑스	5,789,447	6,047,525	6,329,357	6,109,709	5,864,994	9.5	△4.0	0.4
4 독일	5,504,326	5,664,983	5,946,218	5,934,359	5,755,769	9.3	△3.0	1.5
5 스페인	4,122,561	3,989,742	4,291,277	4,332,240	4,420,088	7.2	2.0	2.4
6 이탈리아	3,561,837	3,558,138	3,841,303	3,818,529	3,921,541	6.4	2.7	3.3
7 벨기에	3,289,335	3,211,443	3,392,602	3,424,468	3,416,671	5.5	△0.2	1.3
8 폴란드	2,048,247	2,425,288	2,616,337	2,548,284	2,801,724	4.5	9.9	11.0
9 미국	1,875,688	1,923,727	1,998,749	1,800,206	1,831,028	3.0	1.7	△0.8
10 덴마크	1,690,037	1,606,301	1,632,566	1,369,296	1,410,185	2.3	3.0	△5.9
64 대한민국	35,451	45,479	53,508	59,336	56,485	0.1	△4.8	16.8

* 출처 : Global Trade Atlas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 현황

- 수입 비중 상위 품목은 포도주(4.5%), 기타 베이커리 제품(3.5%), 기타 조제 식료품(2.9%) 등으로 나타남
 - '포도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28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로 집계됨
 - '기타 베이커리 제품' 수입액은 21억 달러(한화 약 2.3조 원)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액은 18억 달러(한화 약 2조 원)로 2.6% 증가함
 - 그 외 '닭으로 만든 조제 및 보존 처리한 육·설육이나 피'(2.2%), '그 밖의 치즈'(2.0%),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1.6%) 순임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9,055,215	59,719,524	63,452,621	61,560,361	61,736,771	100.0	0.3	1.5
1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673,081	2,650,072	2,774,233	2,791,007	2,760,936	4.5	△1.1	1.1
2 기타 베이커리 제품	1,728,893	1,725,884	1,924,292	2,129,984	2,133,322	3.5	0.2	7.3
3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018,367	1,806,397	1,950,524	1,770,482	1,816,437	2.9	2.6	△3.5
4 닭으로 만든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屠肉)이나 피	1,209,723	1,248,259	1,361,655	1,407,873	1,364,485	2.2	△3.1	4.1
5 그 밖의 치즈	1,008,591	1,114,237	1,301,266	1,261,514	1,222,680	2.0	△3.1	6.6
6 기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009,223	1,030,105	1,106,854	1,011,246	995,018	1.6	△1.6	△0.5
7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895,366	860,474	919,350	932,049	801,758	1.3	△14.0	△3.6
8 쇠고기 (신선) 뼈 없는 것	896,042	876,566	980,386	831,791	793,873	1.3	△4.6	△4.0
9 기타 장류	593,206	626,976	686,554	721,830	728,112	1.2	0.9	7.1
10 기타 바나나	814,600	783,172	746,123	711,778	683,820	1.1	△3.9	△5.7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의 對영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2천만 달러(한화 약 680억 원) 수출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4.0% 증가세를 보임

- 농산물 수출액은 5천 8백만 달러(한화 약 642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94.0%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3%의 성장세를 보임
- 임산물(3.1%) 수출액은 최근 5년간 70.3%, 전년 대비 110.6% 증가한 189만 달러(한화 약 21억 원)를 기록함
- 축산물(3.0%)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2.2%, 전년 대비 12.2% 증가하여 183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로 집계됨

對영국 수출규모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2,415.9	42,691.9	53,894.6	60,863.5	61,842.6	100.0	1.6	24.0
농산물	31,033.4	39,135.5	49,944.3	58,339.2	58,127.1	94.0	△0.4	23.3
임산물	382.2	580.2	879.0	896.6	1,888.6	3.1	110.6	70.3
축산물	1,000.3	2,976.2	3,071.3	1,627.7	1,826.9	3.0	12.2	22.2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중분류로 면류(25.6%)와 기타 조제 농산품(40.5%)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소분류로 라면(28.7%), 김치(6.1%), 속을 채운 파스타(만두, 4.5%), 기타 음료(3.3%), 고추장(2.3%) 순
 - `20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6% 증가한 1,774만 달러(한화 약 195억 원)로 나타남
 - 뒤이어 김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380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로 나타났으며 속을 채운 파스타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77만 달러(한화 약 31억 원)로 나타남
 - 고추장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143만 달러(한화 약 1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4.1%의 성장률을 기록함

수출 상위 5개 품목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¹⁾	32,415.9	42,691.9	53,894.6	60,863.5	61,842.6	100.0	1.6	24.0
면류	11,377.3	14,056.3	16,388.5	18,143.6	22,540.5	36.4	24.2	25.6
기타 조제 농산품	5,506.3	7,644.1	14,023.9	17,576.0	15,260.9	24.7	△13.2	40.5
1 라면	7,845.0	9,195.9	10,677.0	13,275.4	17,736.4	28.7	33.6	31.2
2 김치 (냉동하지 않은 것)	2,116.4	2,686.4	2,783.8	3,322.3	3,802.3	6.1	14.4	21.6
3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317.4	2,460.8	3,324.1	2,621.0	2,774.2	4.5	5.8	28.2
4 기타 음료(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0.0	3,291.2	3,046.0	3,171.9	2,048.1	3.3	△35.4	△14.6
5 고추장	591.7	879.0	847.4	1,177.7	1,428.4	2.3	21.3	34.1

*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 주2 : 전체는 농산물만 포함 (수산물 제외함)
 * 주3 : 기타 음료 연평균 성장률은 '17/'20 으로 계산함
 *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 시장 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성

■ 2020년 식품 시장규모 1,553억 파운드(한화 약 248.5조 원)로 집계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42억 파운드(한화 약 70.7조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28.4% 비중을 차지함
 - 이 중 육류 시장규모는 175억 파운드(한화 약 28.1조 원)로 전체 시장의 1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채소류는 122억 파운드(한화 약 19.6조 원)로 7.9% 차지, 과일류는 78억 유로(한화 약 12.4조 원)로 5.0% 비중을 보임
 - 이어 수산물(1.6%) 및 뿌리채소·괴경류(1.1%), 달걀(0.9%), 견과류(0.2%), 두류(0.2%), 당류 및 감미료류(0.2%) 순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1,111억 파운드(한화 약 177.8조 원)로 신선식품보다 높은 비중(71.6%)에 차지함
 - 주류 시장규모가 281억 파운드(한화 약 45 조 원)로 가장 컸으며 뒤이어 주식류 231억 파운드(한화 약 36.9조 원)규모로 14.9% 비중을 차지
 - 스낵류(13.4%), 유제품 및 대체품(9.0%), 차가운 음료(7.2%), 요리 재료 및 식사류(7.0%), 따뜻한 음료(1.9%) 순으로 시장을 점유함

영국 식품시장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체	132,140.0	135,156.5	139,422.0	142,893.3	155,310.6	100.0
신선식품	37,390.4	38,084.4	38,889.1	39,774.3	44,166.0	28.4
육류	15,452.3	15,549.4	15,803.9	16,070.6	17,545.3	11.3
채소류	10,617.9	10,748.4	10,875.2	11,021.7	12,241.8	7.9
과일류	6,075.7	6,426.4	6,692.1	6,926.5	7,771.1	5.0
수산물류	1,833.7	1,930.0	2,052.8	2,223.5	2,511.7	1.6
뿌리채소·괴경류	1,490.0	1,461.4	1,478.1	1,496.7	1,727.9	1.1
달걀	1,117.9	1,162.3	1,171.9	1,200.3	1,411.2	0.9
견과류	274.6	289.6	302.4	314.4	349.9	0.2
두류	238.0	247.9	259.0	272.1	321.1	0.2
당류 및 감미료	290.3	268.9	253.7	248.6	286.0	0.2
가공식품	94,749.6	97,072.1	100,532.9	103,119.0	111,144.6	71.6
주류	22,559.9	23,496.5	24,733.2	25,411.1	28,121.6	18.1
주식류	20,012.4	20,488.4	20,956.2	21,438.3	23,091.2	14.9
-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8,048.0	8,179.6	8,351.8	8,511.3	9,244.2	6.0
- 베이커리류	6,466.9	6,697.4	6,872.6	7,086.7	7,517.1	4.8
- 과일 및 채소 가공품	2,301.4	2,364.3	2,428.7	2,477.4	2,657.4	1.7
- 시리얼	1,873.3	1,888.5	1,902.9	1,915.8	2,003.9	1.3
- 쌀, 파스타, 면	1,322.9	1,358.7	1,400.2	1,447.1	1,668.6	1.1
스낵류	18,638.8	18,688.5	19,190.7	19,694.6	20,766.2	13.4
유제품 및 대체품	12,087.6	12,360.9	12,702.5	12,967.1	14,049.4	9.0
- 유제품	11,363.1	11,599.9	11,914.2	12,173.8	13,278.7	8.5
- 영유아용 식품	724.5	761.0	788.3	793.2	770.6	0.5
차가운 음료류	9,478.0	9,739.7	10,218.5	10,544.5	11,211.6	7.2
요리 재료 및 식사류	9,400.2	9,687.5	10,016.8	10,327.7	10,901.1	7.0
- 즉석식품	4,943.3	5,146.9	5,372.2	5,593.0	5,855.3	3.8
- 요리 재료	4,456.9	4,540.6	4,644.7	4,734.6	5,045.8	3.2
따뜻한 음료류	2,572.7	2,610.6	2,715.0	2,735.7	3,003.5	1.9

- * 주1 : 유제품에 치즈, 우유 대체제, 요거트, 우유, 버터 포함
- * 주2 : 주류에 와인, 양주, 맥주, 사과주/배주, 저 알코올 음료 포함
- * 주3 : 스낵류에 제과, 비스킷/스낵바/과일 스낵, 셰이보리 스낵, 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 포함
- * 주4 : 요리 재료에 소스/드레싱/조미료, 달콤한 스프레드, 식용기름, 수프 포함
- * 주5 : 차가운 음료류에 물, 주스, 차 음료, 에너지 음료, 커피 음료, 스포츠 음료 및 아시안 스페셜 음료 포함
- * 주6 : 뜨거운 음료류에 커피, 차, 기타 음료 포함
- * 출처 : Euromonitor

나. 소비인구 및 특성

■ 2020년 6월 기준 인구 수는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한 약 6,708만 1,234명으로 집계됨

- 중위연령은 40.4세로 전체 인구에서 30~59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59세의 비중은 39.4%로 집계되었으며, 뒤이어 29세 이하 36.2% 60~79세 19.3%, 80세 이상 5.1% 순으로 집계됨
 - 전체 인구의 83.9%가 도시에서 거주함
- 여성 인구가 전체의 50.5%(2,856만 7,320명), 남성 인구가 전체의 49.5%(2,798만 2,818명)를 차지하여 성비는 매우 균등한 수준임

* 출처 : 영국 통계청, 월드뱅크

■ 2020년 중위 가계 가처분 소득(세금 및 혜택 후)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여 연간 3만 파운드(한화 약 4,745만 원)을 기록함

- 주당 중위소득은 479파운드(한화 약 77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런던이 640파운드(한화 약 102만원)로 가장 높음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3,491 파운드(한화 약 558만 원)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8.0% 증가함

- 신선식품은 18.9%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액은 659 파운드(한화 약 105만 원)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함
 - 육류 소비액은 262 파운드(한화 약 42만 원)로 신선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채소류 소비액은 183 파운드(한화 약 29만 원)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고, 과일류 소비액은 116 파운드(한화 약 19만 원)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함
 - 이어서 수산물류(1.1%), 뿌리채소·괴경류(0.7%), 달걀(0.6%), 견과류(0.1%), 두류(0.1%), 당류 및 감미료류(0.1%) 순으로 소비액 비중을 차지함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2,832 파운드(한화 약 453만 원)로, 전년 대비 7.4% 증가함

II. 농식품 시장 현황

- 주류 소비액이 420 파운드(한화 약 67만 원)로 가공식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0% 증가함
- 이어서 주식류 소비액은 345 파운드(한화 약 55만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고, 스낵류는 310 파운드(한화 약 50만 원)로 전년 대비 4.8% 증가함
- 이 외에도 유제품 및 대체품(6.0%), 차가운 음료류(4.8%), 요리 재료 및 식사류(4.7%), 따뜻한 음료류(1.3%) 순으로 소비액 규모를 보임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체	3,056.7	3,104.3	3,173.8	3,232.8	3,490.6	100.0
신선식품	571.9	578.4	586.8	596.8	658.9	18.9
육류	236.3	236.2	238.5	241.1	261.8	7.5
채소류	162.4	163.2	164.1	165.4	182.6	5.2
과일류	92.9	97.6	101.0	103.9	115.9	3.3
수산물류	28.0	29.3	31.0	33.4	37.5	1.1
뿌리채소·괴경류	22.8	22.2	22.3	22.5	25.8	0.7
달걀	17.1	17.7	17.7	18.0	21.1	0.6
견과류	4.2	4.4	4.6	4.7	5.2	0.1
두류	3.6	3.8	3.9	4.1	4.8	0.1
당류 및 감미료	4.4	4.1	3.8	3.7	4.3	0.1
가공식품	2,484.8	2,525.9	2,587.0	2,636.0	2,831.7	81.1
주류	345.1	356.8	373.2	381.3	419.6	12.0
주식류	306.1	311.2	316.2	321.7	344.5	9.9
스낵류	281.0	283.8	289.6	295.5	309.8	8.9
유제품 및 대체품	184.9	187.7	191.7	194.6	209.6	6.0
차가운 음료류	145.0	147.9	154.2	158.2	167.3	4.8
요리 재료 및 식사류	143.8	147.1	151.1	155.0	162.6	4.7
따뜻한 음료류	39.4	39.6	41.0	41.0	44.8	1.3

* 출처 : Euromonitor

- 신선식품 중 과일류와 두류를 제외한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1인당 채소류 소비량은 57.2kg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과일류 소비량이 44.6kg, 뿌리채소·괴경류 33.1kg으로 각각 집계됨
 - 육류의 1인당 소비량은 31.7kg, 달걀 소비량은 7.8kg로 각각 집계됨
- 가공식품 중 스낵류를 제외한 품목의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임
 - 주식류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 소비량은 1인당 55.8kg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소비량이 31.2kg,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22.4kg 그리고 쌀/파스타/면 9.0kg 으로 각각 집계됨
 - 유제품 및 대체품 소비량은 1인당 17.0kg 으로 치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차가운 음료 소비량은 1인당 166.4L로 액체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류 97.4L, 따뜻한 음료 3.4kg, 식용기름 3.1L으로 각각 집계됨

1인당 식품 소비량(2016~2020)

(단위 : kg 또는 L)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선식품	채소류	58.3	58.6	59.0	59.5	57.2
	과일류	43.3	43.3	43.5	43.7	44.0
	뿌리채소·괴경류	34.5	34.1	33.8	33.5	33.1
	육류	33.1	33.0	33.0	33.1	31.7
	달걀	8.2	8.3	8.4	8.5	7.8
	당류 및 감미료	6.3	6.0	5.8	5.7	4.8
	수산물류	3.0	3.0	3.0	3.0	2.7
	두류	1.9	1.9	1.9	1.9	2.0
	견과류	0.6	0.6	0.6	0.6	0.6
가공식품	차가운 음료류	164.3	167.4	168.6	169.5	166.4
	주류	108.6	108.4	109.5	108.9	97.4
	베이커리 및 시리얼	57.8	58.1	57.8	57.7	55.8
	과일 및 채소 가공품	38.6	38.3	38.1	37.9	31.2
	스낵류	30.8	30.5	30.3	30.4	30.4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27.3	26.8	26.5	26.3	22.4
	즉석식품	16.6	16.8	17.1	17.4	17.2
	유제품 및 대체품	19.1	19.2	19.2	19.2	17.0
	소스/드레싱/조미료	14.2	14.2	14.2	14.3	12.3
	쌀/파스타/면	9.3	9.4	9.5	9.7	9.0
	수프	4.8	4.6	4.5	4.5	4.3
	따뜻한 음료류	3.6	3.6	3.5	3.5	3.4
	식용기름	3.1	3.2	3.3	3.4	3.1
	달콤한 스프레드	2.2	2.2	2.2	2.3	2.2

- * 주1 : 주류, 차가운 음료류, 식용기름 단위는 L이며, 나머지는 모두 kg임
- * 주2 : 유제품 및 대체품에 계량 가능한 품목인 치즈, 버터/스프레드, 이유식이 포함됨
- * 주2 : 주식류에 베이커리 및 시리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쌀/파스타/면이 포함됨
- * 주2 : 요리 재료 및 식사류에 즉석식품, 소스/드레싱/조미료, 달콤한 스프레드, 식용기름, 수프가 포함됨
- * 주3 : 스낵류 중 아이스크림/냉동 디저트는 계량 불가로 제외됨
- * 출처 : Euromonitor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 환경 변화

가. 주요 트렌드

■ 코로나19로 2020년 1월 도시가 봉쇄되면서, 파스타, 통조림 등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시장조사기관 Mintel이 영국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조사대상의 37%가 ‘유통기한이 긴 식품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함
 -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도시봉쇄가 해제된 후에도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 파스타와 피클



Heinz社 스파게티 통조림



Branston社 피클

* 출처 : www.tesco.com

■ 팬데믹 여파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이 증가함

- 시장조사기관 Mintel이 영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채소와 허브 등의 채소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동일 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전보다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함

나. 이슈품목

■ 과일 및 채소 통조림이 이슈품목으로 부상함

- 도시봉쇄로 인한 불안감으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특히 저장과 섭취가 편리한 통조림 형태의 제품이 인기를 끌
 - 상하기 쉬운 채소나 과일을 저장 기간이 길고 섭취가 편리한 통조림 수요가 증가함

저장과 섭취가 편리한 통조림 식품



Del Monte社 복숭아 조각 통조림



Napolina社 잘게 썬 토마토 통조림

* 출처 : www.tesco.com

■ 채소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비건 식품 등 채소 함량이 높은 식품이 인기를 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자 채소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의 인기가 상승했고, 특히 햄버거보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샌드위치가 주목받음
 - 영국의 유명 샌드위치 브랜드 Max's Sandwich는 채식주의자도 섭취할 수 있는 '채식 샌드위치'를 출시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

영국의 유명 샌드위치 브랜드



Max's sandwich社 채식 샌드위치

* 출처 : www.thetimes.co.uk

■ 다양한 제철 채소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채소 박스(Veg Box)'가 유행함

- 제철채소를 박스 단위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고 Farmdrop, Riverford 등 영국에서 채소를 박스로 판매하던 공급업체는 2달 간 약 350만 개의 박스를 배달하였으며, 이는 평소 주문량의 2배에 달함
 -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채소 소비량이 증가한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영국에서 소비량이 급증한 채소 박스



Kerry's veg box



Riverford veg box

* 출처 : www.kerrysfresh.co.uk, www.riverford.co.uk

3 농식품 관련 정책동향

■ 유기농 식품의 수출입 지침 업데이트

- 유기농 식품 수입시, 영국 검사 인증서(GB Col)를 제출해야 함
 - 제 3국(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외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을 수입할 경우, 영국 검사 인증서(GB Col : GB Certificate of Inspection)이 요구되며, 수입 서류는 종이 문서로 제출되어야 함
 - GB Col의 제출 시기는 영국 국경 통제소(BCP) 또는 현지 무역 기준 지역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이며, 물리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동되어야 함
 - GB Col 의 사본 또는 원본이 전달되지 않고 영국에 물품이 도착하면 물품은 유기농으로 취급되지 않음
 -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식품은 영국에서 별도의 유기농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유기농(Organic)’을 표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임시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임
 - GB Col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음
- 유기농 식품 판매 시 라벨링 요건 및 EU로고 사용 규정
 - 제 3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에 유기농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 ① 유기농 식품 기준 : 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원료의 최소 95%가 유기농으로 생산되어야 함
 - ② 유기농 인증기관 코드 표기 : 영국에서 ‘유기농’라벨을 표기하고자 한다면, ‘유기농 인증기관’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의 코드를 제품 라벨에 표기해야함
 - ③ EU 유기농 로고의 사용 : EU의 유기농 라벨링 요건에 부합하여 EU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영국은 2021년 4월 21일 발표된 EU의 복합식품 수입에 관한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단, 북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

- 영국으로 수출하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육류, 우유 및 유제품, 50% 이상의 기타 동물유래 원료는 하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영국산 이거나 영국 수입 승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이어야 함
 - ② 잔류물질 모니터링 플랜의 EU승인을 획득해야 함
 - ③ EU승인시설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이어야 함
 - 육류, 우유 및 유제품을 50% 이상 함유 하거나 50% 미만이라도 비실온 보관 제품인 경우, 50% 이상 알류를 함유한 제품에 다음 조건이 추가됨
 - ④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열처리 가공 등 기타 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하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복합식품은 검역증명서 제출 및 국경검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상적인 수출입 서류만 구비하면 됨
 - Retained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의 Article 6 조건 충족
 - ① 육가공품, 육류 추출물, 육류 분말을 포함하지 않음
 - ② 50% 미만의 동물유래원료 함유 (단, 유제품은 승인국가산이어야 하며, 해당 열처리가공을 거쳐야 함)
 - ③ 사람이 소비하는 식품
 - ④ 실온보관, 생산과정에서의 열처리로 인해 완조리된 식품
 - ⑤ 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밀봉된 제품
 - Retained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의 Annex II 해당품목
 - ①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사탕류와 초콜릿
 - ②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하고 육가공품을 함유하지 않는 파스타와 면류
 - ③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유제품 및 난류 원료를 함유한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러스크, 구운 빵 혹은 이와 유사한 구운 제품류
 - ④ 20% 미만의 생선으로 속을 채운 올리브
 - ⑤ 열처리가공을 거친 50% 미만의 생선오일, 생선분말, 생선추출물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스프, 스톱과 향료
 - ⑥ 20% 미만의 동물유래원료(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키토산 등)을 포함하는 최종소비자용 건강보조식품 (단, 육가공품은 제외)



농식품 유통 현황

1 유통 현황 및 특징

■ 식품 유통은 주로 오프라인(89.7%)을 통해 이뤄짐

- 2020년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818억 파운드(한화 약 291조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 성장률을 보임
 - 현대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89.7%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성장률을 보임
 - 하이퍼마켓(37.8%)이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 중
 - 슈퍼마켓(20.3%)과 편의점(18.6%)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8.2%, 9.1% 증가함
 - 할인점은 연평균 13.3% 성장하며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임
 - 전통식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오프라인 식품 시장의 10.3%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로 느리게 성장함

영국 오프라인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합계	163,400.0	166,145.7	169,861.5	172,741.1	181,848.0	100.0	5.3	3.6
현대식 유통채널	145,627.9	148,533.5	151,975.5	154,407.5	163,172.9	89.7	5.7	3.9
-하이퍼마켓	64,322.4	64,456.0	65,103.0	65,194.5	66,935.4	36.8	2.7	1.3
-슈퍼마켓	33,300.4	33,086.8	33,654.0	34,110.6	36,918.9	20.3	8.2	3.5
-편의점	29,210.2	29,852.8	30,672.0	31,054.4	33,882.8	18.6	9.1	5.1
-할인점	13,685.0	15,926.8	17,215.5	18,626.3	19,911.2	10.9	6.9	13.3
-포코트 리테일러 ¹⁾	5,109.9	5,211.1	5,331.0	5,421.7	5,524.7	3.0	1.9	2.6
전통식 유통채널	17,772.1	17,612.2	17,886.0	18,333.6	18,675.1	10.3	1.9	1.7

* 주1 : 포코트 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 출처 : Euromonitor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149억 파운드(한화 약 23.9조 원)로 팬데믹으로 전년 대비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 전자상거래 채널의 비중이 98.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큰 폭(77.7%)으로 증가
 - 홈쇼핑 채널은 온라인 유통 채널의 1.3% 비중을 차지하며 전자상거래 채널과 달리 연평균 4.9% 감소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영국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합계	6,429.3	7,068.0	7,848.5	8,491.0	14,917.5	100.0	75.7	32.4
전자상거래	6,196.0	6,846.0	7,633.3	8,281.4	14,716.8	98.7	77.7	33.4
홈쇼핑	233.3	222.0	215.2	209.6	200.7	1.3	△4.2	△4.9

* 출처 : Euromonitor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2020년 기준 식료품 유통채널의 점포 수는 전년 대비 0.6%가 감소한 8만 8,140개로 집계됨

- 그 중 현대식 유통채널의 점포 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3만 9,511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가 조제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백화점 내 입점된 식당(푸드 홀 등)에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식품 유통이 이루어짐
 - 영국 백화점 Selfridge는 매장 내에 고급 푸드홀, 고급 브랜드 식품 매대를 배치하여 소비자 및 방문객의 수를 늘림
 - 푸드 홀 내부에는 컵케익·젤라또 등 디저트 전문점, 굴 요리 전문점 등을 찾아볼 수 있고, 브랜드 식품 판매 코너에서 유명 식품 브랜드의 식용유, 식초, 향신료 등이 판매됨

매장명	Marks & Spencer (Marks & Spencer Plc)	John Lewis (John Lewis Partnership Plc)	Harrods (Harrods Ltd)	Fortnum & Mason (Fortnum & Mason Plc)
매장사진				
설립연도	1884년	1929년	1849년	1707년
점유율	17.5%	15.9%	11.9%	0.9%
매장수	295개	42개	1개	3개
홈페이지	marksandspencer.com	johnlewis.com	harrods.com	fortnumandmason.com

* 출처 : Euromonitor

- 하이퍼마켓은 매출 안정화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및 식품 배달 플랫폼과 협업함
 - ASDA는 식품을 비롯한 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하고,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여 2019년 매출을 증대하였으며, 식품 배달 플랫폼인 ‘Just Eat’과 협업하여 고객에게 주문한 식품을 30분 내로 배달하는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음
 - Sainsbury’s는 배달 식품 판매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자 영국의 배달 서비스 제공사 Deliveroo와 협업하여 피자 등 자사 브랜드 식품을 배달함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Tesco Extra (Tesco Plc)	ASDA (Asda Stores Ltd)	Sainsbury's (J Sainsbury Plc)	Morrisons (Wm Morrison Supermarkets Plc)
매장사진				
설립연도	1919년	1949년	1869년	1899년
점유율	35.9%	25.9%	22.3%	15.9%
매출액	24,597.6	17,699.1	15,052.1	9,311.7
매장수	527개	379개	327개	233개
홈페이지	tesco.com	asda.com	sainsburys.co.uk	groceries.morrisons.com

* 출처 : Euromonitor

- 슈퍼마켓은 셀프 결제 시스템의 도입,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등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끌
 - Sainsbury’s는 자사 브랜드 슈퍼마켓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물건을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계산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함
 - Waitrose는 매장의 수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쇼핑몰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로 창출하는 이익을 증대하고자 함

Ⅲ. 농식품 유통 현황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Tesco Supermarket (Tesco Plc)	Waitrose (Waitrose Ltd)	Morrisons (Wm Morrison Supermarkets Plc)	Co-operative food (Co-operative Group Ltd, The)
매장사진				
설립연도	1919년	1904년	1899년	1844년
점유율	20.1%	17.4%	12.7%	10.5%
매출액	7,434.7	6,422.7	4,694.7	3,882.5
매장수	874개	697개	406개	351개
홈페이지	tesco.com	waitrose.com	groceries.morrisons.com	coop.co.uk

* 출처 : Euromonitor

- 할인점(하드 디스카운트)은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와 타사 배송 서비스를 시행함
 - Aldi는 2020년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매장 내 쇼핑의 대안을 제공하였으며, 딜리버루(Deliveroo) 등 타사 배송 서비스와 제휴하여 30분 이내에 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Aldi (Aldi Stores Ltd)	Lidl (Lidl Ltd)
매장사진		
설립연도	1946년	1930년
점유율	61.7%	37.7%
매출액	12,278.1	7,509.6
매장수	880개	825개
홈페이지	aldi.co.uk	lidl.co.uk

* 출처 : Euromonitor

-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빠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목을 집중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증대함
 - Sainsbury’s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계산대 없는’ 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고객이 매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
 - Nisa-Today’s, Spar 등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는 구입, 조리, 섭취에 드는 시간이 짧은 간편식을 집중 판매하여 젊은 소비층을 공략함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Tesco Express (Tesco Plc)	Marks & Spencer (Marks & Spencer Plc)	Co-operative food (Co-operative Group Ltd, The)	Londis (Booker Group Plc)	Sainsbury’s (J Sainsbury Plc)
매장사진					
설립연도	1919년	1884년	1844년	1959년	1869년
점유율	18.7%	16.9%	13.7%	10.4%	8.9%
매출액	6,340.8	5,740.2	4,647.4	3,528.6	3,003.9
매장수	2,296개	446개	1,925개	5,206개	822개
홈페이지	tesco.com	marksandspencer.com	coop.co.uk	londis.co.uk	sainsburys.co.uk

* 출처 : Euromonitor

■ 전통 식품 유통채널 시장의 93.1%는 브랜드가 없는 독립적인 소매 상점들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1.9%,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임

- ‘20년은 주류와 콜릿 전문점의 매출 상승 폭이 큰 경향이 있었음
 - 바게인 부즈(Bargain Booze)는 ‘20년 9월 아이슬란드(Iceland)와 협업하여 매장에 주류를 공급할 예정임

III. 농식품 유통 현황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Holland & Barrett (Holland & Barrett Retail Ltd)	Bargain Booze (Bargain Booze Ltd)	Majestic Wine (Majestic Wine Plc)
매장사진			
설립연도	1870년	1981년	1980년
점유율	2.7%	1.5%	1.2%
매출액	503.1	280.3	215.4
매장수	790개	444개	220개
홈페이지	hollandbarret.com	bargainbooze.co.uk	majestic.co.uk

* 출처 : Euromonitor

나. 온라인 유통채널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으나, 높은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온라인 유통채널은 배송 기간 단축, 지속가능한(환경을 생각하는) 배송 서비스 등을 내세워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음
 - Sainsbury's는 식료품 온라인 판매는 '20년 9월 기준 102.2% 증가함
 - Sainsbury's는 식품 배송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배송 시 운송 수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이산화탄소 배출 등)를 해결하고자, 배송지별로 식품을 묶어서 배송하는 '친환경 배송'을 지향하며, 식료품 온라인 판매는 102.2% 증가함

(단위 : %, 백만 파운드)

매장명	Tesco	Sainsbury's	Ocado	Asda
매장사진				
설립연도	1919년	1869년	2000년	1949년
점유율	6.2%	3.4%	2.6%	2.4%
매출액	5,545.7	3,327.3	2,000.7	1,781.6
홈페이지	tesco.com	sainsburys.co.uk	ocado.com	asda.com

* 출처 : Euromonitor, ecommercedb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지만 탈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갖고 해당 기간 동안 EU법을 준수하여야 함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영국으로 수출 시 영국의 수입통관 제도를 따라야 하며,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통관절차를 준수해야 함
 - 영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물품반입→ ③수입신고 → ④수입신고 처리(Acceptance of a declaration) → ⑤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⑥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도착 전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전송

- 화물 상세 정보 제출(물품 명세,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봉인 번호, 패키지 수량, 화물의 총 중량 등), 영국 세관등록번호(EORI)¹⁾,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등 기재
 - 영국 세관은 화물에 대한 적절한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화물이 발송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문서 또는 인증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므로 ENS는 상품이 발송되기 전 이루어져야 함
 - 화물 발송이 인정되면 이동 참조 번호(MRN : Movement Reference Number)이 발송인에게 제공됨

■ 통관 전 반입장소인 보세구역에 화물 장치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

-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위해 수출입 화물 통관 처리(CHIEF : Custom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 시스템(2023년 3월 31일 폐쇄 예정) 또는 통관신고서비스(CDS : Customs Declaration Service)를 사용할 수 있음
 - CHIEF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우편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인증서(C79)를 받게됨

1) GB(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경우 GB로 시작하며 북아일랜드의 경우 XI로 시작함

- CDS 사용을 위해선 CDS와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함
- CDS를 통해 연기된 수입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음
- 화물 운송업자(Freight forwarders), 통관 대리인 또는 중개인(Customs agents or brokers), 특송업체(Fast parcel operators) 등의 통관전문업체를 통하면 세관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고, 기록, 기입 등의 절차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관세 및 제반비용 납부 연기계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통관 전문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영국 내 위치해야 함
 -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세를 처리하는 업체가 영국에 설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영국은 공인경제운영인(AEO)에 대해 관세청 우대, 관세의 연체, 더욱 빠른 수송 및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입업자는 AEO를 취득하는 것이 권고됨
 - 영국 AEO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 순서이며, 영국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0일이 소요됨
 - 신청을 위해서는 GB 또는 XI로 시작하는 EORI 번호가 필요하며, 게이트웨이²⁾에 로그인해야 함
-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은 GB로 시작하는 영국 EORI(통관고유부호) 번호가 필요함
 -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수출입한다면 XI로 시작하는 EORI 번호가 필요할 수 있음
 - 영국 정부 사이트³⁾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EORI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① VAT 번호 및 등록 날짜, NI 넘버 혹은 고유납세번호(UTR)
 - ② 기업 설립 날짜 및 표준산업분류 코드
 - ③ 영국 정부 게이트웨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2) <https://www.access.service.gov.uk/login/signin/creds>

3) <https://www.gov.uk/eori?step-by-step-nav=849f71d1-f290-4a8e-9458-add936efefc5>

-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확인⁴⁾해야 함
 -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관세율이 더 낮을 수 있음에 유의

■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및 검역을 실시

-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함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을 채취함

■ 보세구역 반출 전 관세를 납부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음

■ 관세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인도지시서(D/O)를 통해 물품반출이 가능

- 수입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 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 하지 못한 경우
(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4)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sections> 에서 South Korea 또는 상품코드나 상품명을 검색

통관 시 제출서류

-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상세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나. 검역제도

■ 영국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였으나,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따름

- 식물의 위생 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잔류농약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함
 - 식물(화훼류 포함)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
-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

■ 영국으로 수출 가능한 신선 농산물은 다음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 등 3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35종 수출 불가함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 보리, 밀, 호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서류 : 고구마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과실·견과류 : 호도, 밤
- 채소류 :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메론, 오이, 호박, 가지, 당근, 무, 양파, 고추, 파, 셀러리, 브로콜리, 양배추, 피망, 파프리카, 배추, 상추, 여주
- 인삼류 : 인삼(수삼, Panax ginse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화훼류 : 글라디올러스, 난초, 국화, 카네이션, 백합, 장미, 튜립, 심비디움, 국화,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 재식용 식물류 : 휴면상태의 장미속 식물, 산호수묘목, 목련묘목, 동백나무묘목, 대추묘목, 단풍나무묘목, 느티나무묘목, 낙상홍나무묘목, 감나무속 식물의 묘목 																																										
수출불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감귤 묘목, 소나무 묘목, 재식용 인삼(수삼, <i>Panax ginseng</i>) 																																										
수출불가 품목 (고위험식물)	<table border="0"> <tr> <td>• <i>Acacia</i> Mill.</td> <td>• <i>Crateagus</i> spp.</td> <td>• <i>Nerium</i> L.</td> </tr> <tr> <td>• <i>Acer</i> L.</td> <td>• <i>Chaenomeles</i> spp.</td> <td>• <i>Persea</i> Mill.</td> </tr> <tr> <td>• <i>Albizia</i> Durazz.</td> <td>• <i>Cydonia</i> spp.</td> <td>• <i>Populus</i> L.</td> </tr> <tr> <td>• <i>Alnus</i> Mill.</td> <td>• <i>Diospyros</i> L.</td> <td>• <i>Prunus</i> L.</td> </tr> <tr> <td>• <i>Annona</i> L.</td> <td>• <i>Fagus</i> L.</td> <td>• <i>Prunus</i> spp.</td> </tr> <tr> <td>• <i>Bauhinia</i> L.</td> <td>• <i>Ficus carica</i> L.</td> <td>• <i>Pyrus</i> spp.</td> </tr> <tr> <td>• <i>Berberis</i> L.</td> <td>• <i>Fraxinus</i> L.</td> <td>• <i>Quercus</i> L.</td> </tr> <tr> <td>• <i>Betula</i> L.</td> <td>• <i>Hamamelis</i> L.</td> <td>• <i>Robinia</i> L.</td> </tr> <tr> <td>• <i>Caesalpinia</i> L.</td> <td>• <i>Jasminum</i> L.</td> <td>• <i>Rosa</i> spp.</td> </tr> <tr> <td>• <i>Cassia</i> L.</td> <td>• <i>Juglans</i> L.</td> <td>• <i>Salix</i> L.</td> </tr> <tr> <td>• <i>Castanea</i> Mill.</td> <td>• <i>Ligustrum</i> L.</td> <td>• <i>Sorbus</i> L.</td> </tr> <tr> <td>• <i>Cornus</i> L.</td> <td>• <i>Lonicera</i> L.</td> <td>• <i>Taxus</i> L.</td> </tr> <tr> <td>• <i>Corylus</i> L.</td> <td>• <i>Malus</i> Mill.</td> <td>• <i>Tilia</i> L.</td> </tr> <tr> <td>• <i>Crataegus</i> L.</td> <td>• <i>Malus</i> spp.</td> <td>• <i>Ulmus</i> L.</td> </tr> </table>	• <i>Acacia</i> Mill.	• <i>Crateagus</i> spp.	• <i>Nerium</i> L.	• <i>Acer</i> L.	• <i>Chaenomeles</i> spp.	• <i>Persea</i> Mill.	• <i>Albizia</i> Durazz.	• <i>Cydonia</i> spp.	• <i>Populus</i> L.	• <i>Alnus</i> Mill.	• <i>Diospyros</i> L.	• <i>Prunus</i> L.	• <i>Annona</i> L.	• <i>Fagus</i> L.	• <i>Prunus</i> spp.	• <i>Bauhinia</i> L.	• <i>Ficus carica</i> L.	• <i>Pyrus</i> spp.	• <i>Berberis</i> L.	• <i>Fraxinus</i> L.	• <i>Quercus</i> L.	• <i>Betula</i> L.	• <i>Hamamelis</i> L.	• <i>Robinia</i> L.	• <i>Caesalpinia</i> L.	• <i>Jasminum</i> L.	• <i>Rosa</i> spp.	• <i>Cassia</i> L.	• <i>Juglans</i> L.	• <i>Salix</i> L.	• <i>Castanea</i> Mill.	• <i>Ligustrum</i> L.	• <i>Sorbus</i> L.	• <i>Cornus</i> L.	• <i>Lonicera</i> L.	• <i>Taxus</i> L.	• <i>Corylus</i> L.	• <i>Malus</i> Mill.	• <i>Tilia</i> L.	• <i>Crataegus</i> L.	• <i>Malus</i> spp.	• <i>Ulmus</i> L.
• <i>Acacia</i> Mill.	• <i>Crateagus</i> spp.	• <i>Nerium</i> L.																																									
• <i>Acer</i> L.	• <i>Chaenomeles</i> spp.	• <i>Persea</i> Mill.																																									
• <i>Albizia</i> Durazz.	• <i>Cydonia</i> spp.	• <i>Populus</i> L.																																									
• <i>Alnus</i> Mill.	• <i>Diospyros</i> L.	• <i>Prunus</i> L.																																									
• <i>Annona</i> L.	• <i>Fagus</i> L.	• <i>Prunus</i> spp.																																									
• <i>Bauhinia</i> L.	• <i>Ficus carica</i> L.	• <i>Pyrus</i> spp.																																									
• <i>Berberis</i> L.	• <i>Fraxinus</i> L.	• <i>Quercus</i> L.																																									
• <i>Betula</i> L.	• <i>Hamamelis</i> L.	• <i>Robinia</i> L.																																									
• <i>Caesalpinia</i> L.	• <i>Jasminum</i> L.	• <i>Rosa</i> spp.																																									
• <i>Cassia</i> L.	• <i>Juglans</i> L.	• <i>Salix</i> L.																																									
• <i>Castanea</i> Mill.	• <i>Ligustrum</i> L.	• <i>Sorbus</i> L.																																									
• <i>Cornus</i> L.	• <i>Lonicera</i> L.	• <i>Taxus</i> L.																																									
• <i>Corylus</i> L.	• <i>Malus</i> Mill.	• <i>Tilia</i> L.																																									
• <i>Crataegus</i> L.	• <i>Malus</i> spp.	• <i>Ulmus</i> L.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 감귤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⁵⁾에 따라 우려병해충을 관리 및 소독처리한 후 수출되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 감귤류 생과실에 대해 지정한 검역병채충에는
 - ▲*Xanthomonas campestris*(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 ▲*Cercospora angolensis* ▲*Guignardia citricarpa*(All strains pathogenic to Citrus) 등이 있음
 -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되어야 하며 재배지검역을 통과해야 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IV.A.I. points 16.1, 16.2. option(c), 16.3. option(a), 16.4. option(c) and 16.5. option(a)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동 과실은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ANNEX IV, PART A Section I : 16.1, 16.2(c), 16.3(a), 16.4(c) 및 16.5(a)에 부합함)

5)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 토마토 또한 다음 내용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어야 함

1) EU-Regulation 2020/1191/EC, Article 9.1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관련

- 관련된 토마토 종자의 모주는 ToBRFV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수행한 공적적 검역에 기반해서 동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관련된 토마토 종자 또는 그 모주는 ToBRFV에 대한 공식적인 시료 채취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에 따라 동 병원균에 무감염되었음
- 등록된 생산지역명

2) EU-Regulation 2019/2072/EC, 부록5에 기재된 미생물 관련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병해충 무감염 사항을 부기

다. 라벨링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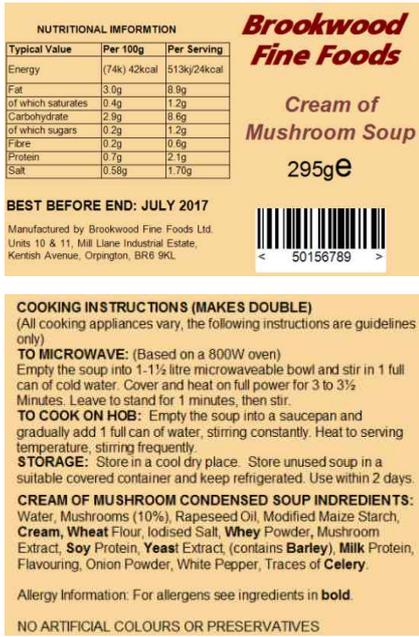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EU의 라벨링 규정을 따르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의 외양, 식품 광고, 영양 정보,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함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고기(생선)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formed meat’ 또는 ‘formed fish’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 | | |
|------------------------|---------------------------|
| • 제품명 | • 보관 방법 |
| • 제품 성분(원료) 리스트 | • 회사명 및 주소(영국 기업의 이름과 주소) |
| • 알레르기 항원인자 | • 로트번호 |
| • 특정 성분의 함유량 | • 원산지 |
| • 제품의 실 중량(Net Weight) | • 사용법 |
| • 유통기한(Best before) | • 보관방법 |

주요 품목 식품 표기사항 예시

	필수 표기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명 : Cream of Mushroom Soup 2. 순중량 : 295g 3. 회사명 : Brookwood Fine Foods Ltd. 4. 원산지 : 영국 5. 성분목록 : 물, 버섯(10%), 옥수수전분, 크립, 밀가루, 염분, 탈지유 분말, 콩 단백질, 효모추출물, 우유단백질, 향료, 양파 분말 6. 보관방법 :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에 보관할 것 7. 유통기한 : 2017년 7월 8. 영양정보 : 100g당 열량 42kcal, 지방 3g, 탄수화물 2.9g, 식이섬유 0.2g, 단백질 0.7g, 염분 0.58g 9. 로트번호 : 50156789 10. 사용법 : 1) 전자레인지 이용 2) 가스레인지 이용 11. 알레르기 : 굵은 글씨체로 기입하였음 향원인자

* 출처 : www.beechman.co.uk

항목별 라벨링 표기 방법

구분	내용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링에서 표시하는 순량은 그램, 킬로그램, 밀리리터 또는 리터로 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또는 5ml 이상의 포장 식품 - 포장 된 허브와 향신료 제품 • 알코올 함량이 1.2 %를 초과하는 음료에는 경고 문구 표시를 해야 함
특정 식품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은 2014년 식품 정보 규정 (FIR 2014)에 의거하여 식품 구성 표준 체계를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프버거' 표시된 제품에는 쇠고기가 62 %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이코노미 비프버거' 표시 제품은 쇠고기가 47%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구분	내용
알레르겐 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목록에 알레르겐 항원 함유 시 글꼴, 색 변경을 활용하여 알레르시 항원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강조함 •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겐 항원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이 함유 된 곡물-밀, 호밀, 보리 및 귀리 포함, 감각류-새우, 게, 랍스터 포함, 달걀, 생선류, 우유, 연체류(오징어, 홍합, 새조개, 썬기풀 및 달팽이 포함), 머스타드, 견과류, 땅콩, 참깨, 콩, 10mg 이상의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
경고문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루 라 레드 (E129) :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아스파탐 : 페닐알라닌 공급원 함유(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 • 150mg / l 이상의 카페인 :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음(Not suitable for children, pregnant women and persons sensitive to caffeine) • Carmoisine (E122) :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감초 : '감초 함유 ' (감초가 함유 된 제과 또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추가 문구가 필요할 수 있음) • 폴리올 : 과도한 소비는 완하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Ponceau 4R (E124) :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가공되지 않은 우유 : 이 우유는 열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유기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This milk has not been heat-treated and may therefore contain organisms harmful to health) • 비유 지방이 함유 된 탈지유 : 고정 된 문구는 없지만 제품이 부적합하거나 아기에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표시해야합니다(There's no fixed wording, but you must show a warning that the product is unfit or not to be used for babies) • 10mg / l 이상의 이산화황 :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염 / 아황산염) 함유(Contains sulphur dioxide (or sulphites/sulfites)) • 선셋 옐로우 (E110) :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감미료 : 감미료 포함(With sweetener(s)) • 감미료와 설탕 : 감미료와 설탕 포함(With sugar and sweetener(s)) • 타트 라진 (E102) : 어린이의 활동과 주의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activity and attention in children)

* 출처 : 영국 관세청(<https://www.gov.uk/guidance/>)

3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 및 현황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이 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총 0건으로 집계됨
 - 식품전반에 대한 통보문이 0건으로 집계됨

- 같은 기간 동안 SPS 통보문은 총 0건으로 집계됨
 - 식품전반에 대한 통보문이 0건으로 집계됨

2021년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독일
Germany

[목 차]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3
1. 농업현황	3
2. 수출입현황	7
II. 농식품 시장현황	13
1. 시장개요	13
2. 시장 트렌드	18
3. 농식품 관련 정책	21
III. 농식품 유통현황	24
1. 유통현황 및 특징	24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26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9
1. 수출 프로세스	29
2. 수입제도	30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35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VA)는 228억 9,200만 유로(한화 약 30조 8,394억 원)로 전년 대비 16.2% 감소

- 이는 전체 총부가가치(GAV)의 0.8%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0.7~0.9%의 비중을 유지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2,822,440	2,936,700	2,822,440	3,449,050	3,336,180	△3.3	4.3
	농업 ²⁾	21,886	26,980	25,706	27,311	22,892	△16.2	1.1
	비중	0.8	0.9	0.9	0.8	0.7	△13.3	△3.0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DP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독일 통계청(2021. 6월 기준)

- 동년 농업인구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7만 7,000명으로 집계
 - 전체 고용인구에서 농업 고용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1.3%로 하락한 뒤 3년간 유지되고 있음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43,952	44,543	45,072	45,327	44,665	△1.5	0.4
농업 고용인구	623	615	608	599	577	△3.7	△1.9
농업 인구비중	1.4	1.4	1.3	1.3	1.3	△2.2	△2.3

* 주 : 농업고용인구는 농축업 종사자를 모두 포함

* 출처 : 독일 통계청(2021. 6월 기준)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2020년 농업 총 생산액은 556억 4,400만 유로(한화 약 76조 3,092억 원)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며 보합세

- 농산물 생산규모는 농업 총 생산액의 48.5%에 달하는 274억 5,900만 유로(한화 약 37조 3,000억 원)로 집계
 -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농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임
- 축산물 생산규모는 259억 4,000만 유로(한화 약 35조 2,366억 원)로 전체 농업 총생산액의 45.8% 차지
 - 축산물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5% 증가

〈농업 및 농축산물 총생산액(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 총생산액	51,803	56,249	52,731	56,814	56,644	△0.3	2.3
농산물	25,206	25,904	23,613	26,027	27,459	5.5	2.2
(비중)	48.7	46.1	44.8	45.8	48.5	5.8	△0.1
축산물	23,498	27,085	25,732	27,252	25,940	△4.8	2.5
(비중)	45.4	48.2	48.8	48.0	45.8	△4.5	0.2
기타	3,099	3,260	3,386	3,535	3,245	△8.2	1.2
(비중)	6.0	5.8	6.4	6.2	5.7	△7.9	△1.1

* 주 : 농업 총생산액은 서비스 생산액을 포함

* 출처 : 독일연방식품농업부(2021. 6월 기준)

□ 곡물, 뿌리작물 등이 주 생산품이며, 이 외에도 포도(특용작물), 채소류 등 생산

- (곡물류) 전년 대비 2.5% 감소한 4,319만 8,000톤 생산, 이 중 밀 생산량이 51.3% 차지
 -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2,217만 톤으로 집계,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2.4% 감소
 - 보리 생산량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25.1%를 차지하는 1,085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
 -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87만 6,000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의 9.0% 차지

- **(뿌리작물)** 사탕무(71.2%)와 감자(28.8%)로 분류되며, 사탕무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반면 감자 생산량은 8.9% 증가
 - 사탕무 생산량은 2,861만 8,000톤, 감자 생산량은 1,154만 9,000톤으로 집계
- **(포도)** 특용작물로 분류되는 포도 생산량은 2020년 869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
- **(채소류)** 주요 채소류 생산량은 208만 1,000톤으로 전년도와 보합세(0.3% 증가), 이 중 당근(38.6%)과 양배추(27.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당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80만 2,000톤, 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57만 1,000톤으로 집계
 - 이 외에도 양상추 20만 5,000톤(9.69%), 딸기 15만 2,000톤(7.3%), 오이 14만 9,000톤(7.2%) 등이 생산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천 톤,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곡물	곡물 계	45,365	45,557	37,948	44,302	43,198	100.0	△2.5	△1.2
	밀	24,464	24,482	20,264	23,062	22,170	51.3	△3.9	△2.4
	보리	10,731	10,853	9,584	11,591	10,852	25.1	△6.4	0.3
	옥수수	4,018	4,548	3,344	3,664	3,876	9.0	5.8	△0.9
	기타	6,152	5,674	4,756	5,985	6,300	14.6	5.3	0.6
뿌리작물	뿌리작물 계	36,269	45,780	35,112	40,330	40,167	100.0	△0.4	2.6
	사탕무	25,497	34,060	26,191	29,728	28,618	71.2	△3.7	2.9
	감자	10,772	11,720	8,921	10,602	11,549	28.8	8.9	1.8
특용작물	포도	9,069	7,505	10,387	8,325	8,692	100.0	4.4	△1.1
채소류	채소류 계	1,918	2,085	1,811	2,075	2,081	100.0	0.3	2.1
	당근	642	734	625	791	802	38.6	1.4	5.7
	양배추	550	625	459	573	571	27.4	△0.5	0.9
	양상추	169	184	178	188	205	9.9	9.5	4.9
	딸기	129	116	1189	113	152	7.3	34.1	4.1
	오이	214	198	207	188	149	7.2	△20.7	△8.7
	아스파라거스	120	131	133	131	118	5.6	△10.0	△0.5
	콜리플라워	93	98	91	91	84	4.0	△7.8	△2.5
유지류	유채씨	4,574	4,268	3,671	2,840	-	-	-	△14.7

* 주: 2020년 통계데이터가 없는 품목의 연평균 증감률은 2016~2019년을 기준으로 집계(누에콩, 유채씨)

* 출처 : 독일연방식품농업부(2021. 6월 기준)

□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782만 톤으로, 이 중 돈육 생산 비중 (65.2%)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돈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510만 1,000톤으로 집계
 - 뒤이어 가금육 생산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1만 3,000톤으로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20.6%를 차지하며, 우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34만 5,000톤으로 전체의 4.4% 차지
 - 이 외에도 양과 염소 고기 생산량은 2만 4,000톤으로 집계되어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유 생산량은 2019년 이후 집계되지 않았으며, 달걀은 전년 대비 13.87% 감소한 129억 개가 생산됨

〈축산물 부류별 생산량(2016~2020)〉

(단위 : 천 톤, 백만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육류 (천 톤)	전체	9,056	8,865	8,723	7,946	7,820	100.0	△1.6	△3.6
	돼지	5,590	5,506	5,348	5,227	5,101	65.2	△2.4	△2.3
	가금류	1,551	1,537	1,594	1,583	1,613	20.6	1.9	1.0
	소	1,099	1,081	1,058	367	345	4.4	△6.0	△25.1
	양·염소	32	32	35	23	24	0.3	4.3	△6.8
	내장	674	603	586	-	-	-	-	-
우유(천 톤)		32,672	32,598	33,087	32,442	-	-	-	△0.2
달걀(백만 개)		14,337	14,478	14,666	14,971	12,900	100.0	△13.8	△2.6

* 출처 : 독일연방식품농업부(2021. 6월 기준)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744억 21만 6,000달러(한화 약 100조 2,587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13.8%), 프랑스(8.8%), 이탈리아(7.2%), 오스트리아 및 영국(각 7.0%) 순
 - 對네덜란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02억 8,774만 6,000달러(한화 약 11조 8,491억 원)로 집계
 - 뒤이어 프랑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65억 1,861만 3,000달러(한화 약 7조 5,081억 원), 이탈리아 53억 3,298만 3,000달러(한화 약 6조 1,425억 원), 오스트리아 52억 1,478만 7,000달러(한화 약 6조 64억 원), 영국 51억 8,209만 7,000달러(한화 약 5조 9,687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독일 농식품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에서 0.9% 수준인 6억 8,947만 9,000달러(한화 약 7,941억 원)로 전년 대비 10.4% 감소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67,446,318	72,428,133	74,485,738	73,355,786	74,400,216	100.0	1.4	2.5	
1 네덜란드	9,373,667	10,219,531	10,020,211	9,736,873	10,287,746	13.8	5.4	2.4	
2 프랑스	6,026,124	6,480,967	6,845,446	6,462,949	6,518,613	8.8	0.9	2.0	
3 이탈리아	5,415,002	5,737,463	5,882,899	5,688,276	5,332,983	7.2	△6.7	△0.4	
4 오스트리아	4,600,623	4,940,202	5,313,449	5,204,860	5,214,787	7.0	0.2	3.2	
5 영국	4,882,389	5,058,214	5,243,448	4,925,312	5,182,097	7.0	5.0	1.5	
6 폴란드	4,226,454	4,746,916	4,634,079	4,467,424	4,558,824	6.1	2.0	1.9	
7 벨기에	3,432,721	3,565,969	3,585,865	3,380,408	3,493,726	4.7	3.2	0.4	
8 덴마크	2,475,630	2,563,320	2,672,981	2,640,684	2,616,384	3.5	△0.9	1.4	
9 중국	1,902,686	1,718,449	1,721,778	2,596,533	2,575,661	3.5	△0.8	7.9	
10 스페인	2,221,001	2,438,718	2,531,121	2,488,523	2,383,965	3.2	△4.4	1.8	
⋮									
21 대한민국	565,859	704,104	721,327	760,885	689,479	0.9	△10.4	5.1	

*출처 : Global Trade Atlas(2021. 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낙농품(14.3%), 육과 식용설육(11.2%), 곡물 등의 조제품과 베이커리류(10.2%), 각종 조제 식료품(9.4%) 등

-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6억 4,674만 1,000달러(한화 약 12조 2,629억 원)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
- 육과 식용설육은 전년 대비 8.9% 감소한 83억 146만 9,000달러(한화 약 9조 5,616억 원)가 수출되었고,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75억 8,312만 2,000달러(한화 약 8조 7,342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조제식료품 69억 7,677만 3,000달러(한화 약 8조 358억 원), 음료·주류·식초 61억 1,037만 6,000달러(한화 약 7조 379억 원), 코코아와 그 조제품 60억 5,859만 6,000달러(한화 약 6조 9,783억 원) 수출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67,446,318	72,428,133	74,485,738	73,355,786	74,400,216	100.0	1.4	2.5
1 낙농품 (HS Code 04)	8,798,893	10,390,778	10,531,063	10,537,287	10,646,741	14.3	1.0	4.9
2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8,475,034	8,987,066	8,547,751	9,116,192	8,301,469	11.2	△8.9	△0.5
3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6,514,205	7,108,337	7,584,449	7,383,426	7,583,122	10.2	2.7	3.9
4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5,801,219	6,293,833	6,735,425	6,698,893	6,976,773	9.4	4.1	4.7
5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6,284,334	6,594,248	6,971,222	6,658,253	6,110,376	8.2	△8.2	△0.7
6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5,711,009	5,787,046	6,194,441	6,180,797	6,058,596	8.1	△2.0	1.5
7 어류·육류 조제품 (HS Code 16)	3,067,851	3,237,879	3,545,433	3,439,656	3,471,423	4.7	0.9	3.1
8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2,893,173	3,152,066	3,470,295	3,314,840	3,323,535	4.5	0.3	3.5
9 커피·차·마테·향신료 (HS Code 09)	2,960,277	3,328,174	3,248,530	3,046,683	3,247,277	4.4	6.6	2.3
10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3,084,108	3,239,244	2,988,906	2,787,205	3,183,815	4.3	14.2	0.8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2021. 6월 기준)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952억 8,943만 달러(한화 약 128조 3,713억 원)로 전년 대비 4.4% 증가

-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31.9%), 이탈리아(11.7%), 프랑스(10.1%), 스페인(9.8%), 폴란드(8.6%) 순
 - 네덜란드산 농식품 수입액은 237억 5,676만 4,000달러(한화 약 27조 3,583억 원)로 전년 대비 3.7% 증가,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86억 8,136만 6,000달러(한화 약 9조 9,975억 원)로 집계
 -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도와 유사한 75억 1,602만 달러(한화 약 8조 6,544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스페인과 폴란드산 농식품 수출액은 각각 12.2%, 8.8% 증가한 72억 9,789만 8,000달러(한화 약 8조 4,043억 원), 64억 1,678만 9,000달러(한화 약 7조 3,909억 원)로 집계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체 수입의 0.1%에 불과한 5,007만 4,000달러(한화 약 577억 원)로 집계되나, 전년 대비 25.9%, 최근 5년간 연평균 17.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83,992,598	90,936,555	94,837,540	91,274,751	95,289,430	100.0	4.4	3.2	
1	네덜란드	20,241,134	22,082,169	23,681,392	22,915,460	23,756,764	31.9	3.7	4.1
2	이탈리아	7,352,763	7,967,601	8,395,873	7,999,725	8,681,366	11.7	8.5	4.2
3	프랑스	7,170,409	7,584,939	7,832,487	7,516,832	7,516,020	10.1	0.0	1.2
4	스페인	5,724,045	6,287,073	6,818,973	6,505,419	7,297,898	9.8	12.2	6.3
5	폴란드	4,719,875	5,457,976	6,044,684	5,899,150	6,416,789	8.6	8.8	8.0
6	벨기에	5,887,316	6,495,661	6,385,100	6,085,645	6,109,755	8.2	0.4	0.9
7	오스트리아	3,901,872	4,401,639	4,720,974	4,787,625	5,000,209	6.7	4.4	6.4
8	덴마크	2,787,207	3,173,768	3,145,603	2,986,512	2,835,073	3.8	△5.1	0.4
9	미국	1,915,517	1,992,662	1,914,913	1,994,933	1,856,584	2.5	△6.9	△0.8
10	영국	1,626,745	1,720,151	1,813,706	1,791,151	1,719,515	2.3	△4.0	1.4
⋮									
71	대한민국	25,907	30,903	35,927	39,772	50,074	0.1	25.9	17.9

*출처 : Global Trade Atlas(2021. 6월 기준)

□ 주요 수입 품목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16.8%), 낙농품(12.8%), 음료·주류·식초(11.4%),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10.3%) 등

- 식용 과실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25억 3,219만 3,000달러(한화 약 14조 4,346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8%의 증가세를 보임
- 뒤이어 낙농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95억 5,836만 6,000달러(한화 약 11조 93억 원), 음료·주류·식초 수입액은 전년도와 유사한 84억 7,751만 7,000달러(한화 약 9조 7,644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육과 식용설육 70억 7,285만 1,000달러(한화 약 8조 1,465억 원), 채소, 과실,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58억 5,702만 1,000달러(한화 약 6조 7,461억 원), 코코아와 그 조제품 51억 4,888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9,315억 원) 등이 수입

<품목별 농식품 수입 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83,992,598	90,936,555	94,837,540	91,274,751	95,289,430	100.0	4.4	3.2
1 식용 과실 및 견과류 (HS Code 08)	10,376,586	11,297,169	11,847,163	11,241,115	12,532,193	16.8	11.5	4.8
2 낙농품 (HS Code 04)	7,630,985	9,327,028	9,610,835	9,144,557	9,558,366	12.8	4.5	5.8
3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7,502,101	8,060,794	8,641,752	8,477,058	8,477,517	11.4	0.0	3.1
4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6,501,213	6,947,288	7,229,145	7,160,953	7,631,206	10.3	6.6	4.1
5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6,977,678	7,668,612	7,996,110	7,651,669	7,072,851	9.5	△7.6	0.3
6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사료용 식물 (HS CODE 12)	5,476,901	5,937,917	6,199,077	5,982,357	6,507,327	8.7	8.8	4.4
7 채소, 과실,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5,097,493	5,630,099	5,861,179	5,581,067	5,857,021	7.9	4.9	3.5
8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5,172,137	5,037,876	5,150,108	5,167,812	5,148,889	6.9	△0.4	△0.1
9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4,387,167	4,764,645	4,956,986	4,825,045	5,074,486	6.8	5.2	3.7
10 커피·차·마테·향신료 (HS Code 09)	4,589,637	4,828,929	4,468,515	4,141,808	4,435,454	6.0	7.1	-0.9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2021. 6월 기준)

나. 한국의 對독일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독일 수출액은 7,151만 8,000달러(한화 약 824억 원)로 전년 대비 4.3% 증가

- 이 중 농산물의 비중이 79.8%로 가장 높으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5,706만 1,000달러(한화 약 657억 원)로 집계
 - 농산물의 對독일 수출액은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9%의 성장률을 보임
- 축산물(1.9%)과 임산물(2.6%)의 수출액은 각각 134만 5,000달러(한화 약 15억 원), 187만 3,000달러(한화 약 22억 원)로 집계
 - 축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3.6%, 최근 5년간 연평균 1.7%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임산물 수출 역시 전년 대비 24.9%, 최근 5년간 연평균 6.4%의 감소세를 보임

〈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2016~2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단위 : 천 달러, %)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0,951.9	52,483.2	67,390.9	68,550.1	71,518.3	100.0	4.3	8.8
농산물	39,082.9	37,143.4	49,759.1	52,634.9	57,061.3	79.8	8.4	9.9
축산물	1,443.2	1,862.1	1,963.3	2,026.2	1,345.4	1.9	△33.6	△1.7
임산물	2,445.2	2,194.0	2,596.9	2,494.4	1,872.8	2.6	△24.9	△6.4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14.3%), 기타 조제품(5.7%), 베이커리류(2.6%), 파스타(2.5%), 김치(1.7%) 등

-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63.6% 증가한 1,024만 9,000달러(한화 약 119억 원)로 집계
 - 2016년 이후 라면 수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5년간 연평균 42.6%의 높은 성장률 기록
- 기타 조제품 수출액은 406만 6,000달러(한화 약 47억 원)로 전년 대비 34.1% 증가한 반면, 베이커리류 수출액은 188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로 전년 대비 5.0% 감소
- 파스타류 수출액은 전년도와 유사(1.1% 증가)한 175만 9,000달러(한화 약 20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김치 수출액은 119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로 전년 대비 118.9%의 성장률 기록

〈對독일 수출 상위 5개 품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0,951.9	52,483.2	67,390.9	68,550.1	71,518.3	100.0	4.3	8.8
1 라면	2,476.6	3,860.3	5,946.5	6,265.2	10,249.3	14.3	63.6	42.6
2 조제품 기타	1,074.8	1,407.5	1,679.3	3,031.4	4,065.9	5.7	34.1	39.5
3 베이커리류	1,132.6	1,404.6	1,400.8	1,978.6	1,879.7	2.6	△5.0	13.5
4 파스타	891.8	1,083.0	1,403.4	1,739.3	1,758.6	2.5	1.1	18.5
5 김치	181.0	245.2	601.9	543.8	1,190.2	1.7	118.9	60.1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II.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징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1,573억 6,600만 유로(한화 약 213조 4,261억 원)로 전년 대비 4.3% 증가
 -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로, 시장규모는 679억 7,300만 유로로 집계
 - 육류 시장이 258만 500만 유로로 전체 시장의 16.4% 차지
 - 과일류(11.4%)와 채소류(6.4%) 시장규모는 각각 179만 7,400만 유로, 101만 4,700만 유로로 집계
 - 신선식품 중 두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7.9% ↑)하였으며, 뒤이어 견과류(7.3% ↑), 뿌리채소·괴경, 과일류(각 5.5% ↑)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뿌리채소·괴경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8.3% 증가하였으며, 달걀(5.8% ↑), 견과류(5.3% ↑)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893억 9,300만 유로로 전체 식품시장의 56.8% 차지
 - 유제품 시장규모가 202억 8,700만 유로로 전체 시장의 12.9% 차지
 - 뒤이어 베이커리류 153억 9,200만 유로,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46억 500만 유로로 각각의 비중은 9.8%, 9.3%로 집계
 - 스프레드류와 스프류의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12.8%, 12.1% 증가하여 가공식품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임
 - 이 외에도 소스·드레싱·조미료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46억 6,900만 유로(한화 약 6조 3,297억 원), 즉석식품은 51억 7,900만 유로(한화 약 7조 211억 원)로 11.4% 증가
 - 스프레드류, 세이보리 스낵, 즉석식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며 가장 큰 시장 성장률을 보임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전체	141,722.0	144,685.2	146,619.7	150,885.2	157,366.2	100.0	4.3	2.7
신선식품	59,861.7	61,134.2	62,292.3	65,221.9	67,973.2	43.2	4.2	3.2
- 육류	23,480.5	24,164.5	24,316.8	25,043.7	25,804.9	16.4	3.0	2.4
- 과일류	15,316.1	15,576.6	16,179.7	17,036.3	17,973.6	11.4	5.5	4.1
- 채소류	8,483.9	8,644.7	8,841.0	9,770.4	10,146.7	6.4	3.9	4.6
- 수산물	9,079.5	9,080.8	8,999.6	9,168.7	9,631.8	6.1	5.1	1.5
- 달걀	1,412.0	1,499.1	1,584.8	1,677.9	1,767.1	1.1	5.3	5.8
- 뿌리채소·괴경	827.7	866.8	991.4	1,080.6	1,139.8	0.7	5.5	8.3
- 당류 및 감미료	654.8	676.5	718.1	753.5	767.4	0.5	1.8	4.0
- 견과류	516.3	530.9	561.4	590.7	633.9	0.4	7.3	5.3
- 두류	90.9	94.3	99.5	100.1	108.0	0.1	7.9	4.4
가공식품	81,860.3	83,551.0	84,327.4	85,663.3	89,393.0	56.8	4.4	2.2
- 유제품	18,384.2	19,106.4	19,328.3	19,495.6	20,287.2	12.9	4.1	2.5
- 베이커리류	14,682.2	14,896.8	14,944.7	15,102.6	15,392.4	9.8	1.9	1.2
-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3,600.6	13,547.2	13,545.0	13,618.2	14,605.0	9.3	7.2	1.8
- 제과류	10,311.8	10,467.9	10,353.0	10,487.4	10,415.5	6.6	△0.7	0.3
- 즉석식품(Ready Meal)	4,244.8	4,335.6	4,469.6	4,648.7	5,178.5	3.3	11.4	5.1
- 소스, 드레싱, 조미료	3,904.8	3,981.3	4,074.8	4,179.0	4,668.6	3.0	11.7	4.6
- 세이보리 스낵	3,309.5	3,523.3	3,702.5	3,932.3	4,048.5	2.6	3.0	5.2
-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3,274.1	3,294.4	3,372.1	3,421.4	3,392.3	2.2	△0.9	0.9
- 채소 및 과일 가공품	2,430.1	2,476.0	2,501.8	2,536.8	2,680.8	1.7	5.7	2.5
- 비스킷, 스낵류	1,857.0	1,939.3	1,952.4	2,032.6	2,048.3	1.3	0.8	2.5
- 쌀, 파스타, 면류	1,544.6	1,580.7	1,622.1	1,656.3	1,760.2	1.1	6.3	3.3
- 스프레드류	1,419.6	1,458.9	1,497.0	1,546.5	1,743.8	1.1	12.8	5.3
- 식용유지류	815.0	856.4	890.7	931.3	985.3	0.6	5.8	4.9
- 이유식	940.1	931.6	916.4	911.7	938.0	0.6	2.9	△0.1
- 시리얼	697.0	712.4	716.9	722.5	754.8	0.5	4.5	2.0
- 수프	444.9	442.8	440.1	440.4	493.8	0.3	12.1	2.6

*출처: Euromonitor(2021)

나. 소비인구 및 현황

□ 2021년¹⁾ 인구 수는 7,990만 3,481명, 중위연령은 47.8세로 나타남

- 중장년층(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8.73%로 가장 높고, 뒤이어 25~54세 38.58%로 집계
 - 0~14세 12.89%, 15~24세 9.81%로 24세 이하 인구 비중은 22.7%에 불과
- 여성이 전체 인구의 51.81%, 남성이 48.18%를 차지하여 성비는 매우 균등한 수준으로 집계됨
 - 여성의 중위연령은 49.1세, 남성은 46.5세로 나타남

□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4만 2,727달러(한화 약 4,941만 원)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

-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7,990유로(한화 약 5,254만 원)로 전년 대비 4.9% 감소

〈독일 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2016~2020)〉

(단위: 10억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38,505	39,315	39,821	39,958	37,990	△4.9	△0.3

*출처: WorldBank(2021)

- 평균적으로 순소득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상 ~ 2,000유로(한화 약 275만 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남성의 경우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상 ~ 2,000유로(한화 약 275만 원) 미만의 비중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뒤이어 2,000유로(한화 약 275만 원) 이상 ~ 3,000유로(한화 약 412만 원) 미만이 25.1%로 집계
 - 여성의 경우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상 ~ 2,000유로(한화 약 275만 원) 미만의 비중이 36.9%로 가장 높으며,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미만의 비중이 35.0%로 뒤를 이음

1) 2021년 7월 기준, CIA Factbook

〈2020년 1인당 순소득 분포〉

(단위: %)

구분	평균	남성	여성
소득 없음	8.1	4.6	11.5
1,000유로 미만	25.4	15.6	35.0
1,000유로 이상 ~ 2,000유로 미만	37.1	37.2	36.9
2,000유로 이상 ~ 3,000유로 미만	18.7	25.1	12.3
3,000유로 이상 ~ 4,000유로 미만	6.0	9.4	2.6
4,000유로 이상 ~ 5,000유로 미만	2.9	4.8	1.2
5,000유로 이상	2.0	3.5	0.5

*출처: STATISTA(2021)

□ 2020년 식품 부문 1인당 연간 소비액은 2,344달러(한화 약 271만 원)로 전년 대비 4.6% 증가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551달러(한화 약 179만 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66.1% 차지
 - 육류 소비액이 537달러(한화 약 62만 원)로 전체의 22.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낙농품 및 난류(16.8%), 채소류(12.8%), 과일 및 견과류(10.5%), 유지류(3.1%) 순으로 소비가 이뤄짐
 - 신선식품 중 육류와 채소류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각각 7.7%, 7.6% 증가한 반면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은 전년 대비 17.9% 감소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740달러(한화 약 86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33.9% 차지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360달러(한화 약 42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의 15.4%를 차지
 - 뒤이어 스낵류(9.6%), 편의식품(4.7%), 소스 및 향신료(2.7%), 스프레드 및 당류(1.1%)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중 편의식품과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소비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각각 11.6%와 11.1%의 증가율을 보임

〈식품 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5~2020)〉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전체	2,112.40	2,123.00	2,146.35	2,240.71	2,344.28	100.0
신선식품	1,405.13	1,412.82	1,428.92	1,516.11	1,550.51	66.1
- 육류	483.68	486.83	492.73	498.81	537.18	22.9
- 낙농품 및 난류	363.01	364.22	367.66	371.05	394.69	16.8
- 채소류	271.70	273.26	276.50	279.71	300.92	12.8
- 과일 및 견과류	221.91	223.23	225.91	299.58	246.00	10.5
- 유지류	64.83	65.28	66.12	66.96	71.72	3.1
가공식품	707.27	710.18	717.43	724.60	793.77	33.9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317.24	318.30	321.30	324.26	360.20	15.4
- 스낵류	200.87	202.11	204.60	207.05	226.05	9.6
- 편의식품	94.74	95.67	97.19	98.72	110.17	4.7
- 소스 및 향신료	61.07	61.04	61.38	61.71	64.05	2.7
- 스프레드 및 당류	26.82	26.50	26.33	26.16	26.27	1.1
- 영유아용 식품	6.53	6.56	6.63	6.70	7.03	0.3

*출처: STATISTA(2021)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 2020년 식품 부문 가계 소비액은 1,758억 1,000만 유로(한화 약 241조 1,726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

- 식품 부문 가계 소비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5.2%의 성장세를 보임

〈식음료 부문 가계 소비액(2015~2020)〉

(단위: 10억 유로,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143.78	147.65	151.80	160.63	165.21	175.81	6.4	5.2

*출처: STATISTA(2021)

2. 시장 트렌드

가. 주요 트렌드

□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이 확대되며 육류 소비 감소

- 유로모니터의 설문조사²⁾에 따르면, 이전보다 육류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에 달해 세계 평균(3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자 중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육류 소비를 이전보다 줄였다고 응답한 비중은 44%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
- 건강을 중시하고 육류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채식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
 - 독일은 인도, 이스라엘, 대만,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채식주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기록
 -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선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신선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

□ MZ세대³⁾의 주 소비층 부상,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를 증가하도록 만들

-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 접근성이 높아짐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약은 온라인 구매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GTAI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코로나 이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온라인 식음료 시장은 31.4% 성장
 - 2020년 4분기 독일 유통업체 Lieferando의 온라인 주문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5,600만 건으로 집계

□ 유기농과 공정무역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식품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

- 2020년 유기농 식품시장 규모는 약 150억 유로(한화 약 20조 2,910억 원)로 전년 대비 20% 증가
 - 유기농산물 경작지는 전국 농산물 경작지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0년 기준 3만 5,000개 이상의 유기농가가 17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를 운영

2) 독일 소비자 573명 대상, Euromonitor International Lifestyle Survey 2020

3)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주관적인 소비를 행하는 것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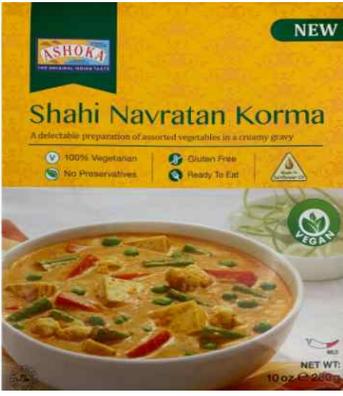
- 미국의 리서치 기업인 퀴틸로프(Quantilope)의 조사 결과⁴⁾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공정무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
 - 또한 독일 공정무역협회(Forum Fairer Handel)에 따르면, 독일인의 71%가 공정 무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이슈품목

□ 건강까지 고려한 즉석식품의 인기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즉석식품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내 즉석식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10만 톤으로 집계⁵⁾
- 기존의 즉석식품은 간편한 섭취가 가능하지만 영양적인 측면이 다소 고려되지 않은 품목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즉석식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
 - 채소가 함유된 스프나 통조림뿐만 아니라 볶음밥, 파스타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며, 베지테리언이 섭취 가능하도록 구성된 즉석식품도 인기
-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즉석식품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독일 내 즉석식품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10만 톤으로 집계⁶⁾

<독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식품>

		
토마토 스프	채소 볶음밥	채소 코르마 ⁷⁾

*출처: www.get-grocery.com

4) 독일 소비자 552명 대상, Die wichtigsten Food Trends 2021

5) 독일 연방통계청

6) 독일 연방통계청

□ 이민자 수 증가, 해외 문화 유입 확산 등으로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 제고

- 2020년 기준 이민자 수는 인구 1,000명 당 4.6명으로, 2010년 1.9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 기준 독일 인구의 13.7%는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8%는 터키인, 폴란드인·시리아인·루마니아인 각 1%, 기타 8.9%로 나타남
- 해외 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며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연방이민난민청(BAMF) 기록에 따르면, 무슬림 소비자가 2021년 기준 지난 6년간 약 90만 명이 증가하면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독일에서 판매되는 에스닉 푸드>

		
카레	터키향신료	할랄식품

*출처: Amazon. de

7) 육류나 채소 등에 요구르트나 크림에 재료를 넣어 만드는 요리

3. 농식품 관련 정책

□ 2021년 1월 20일 포장재법(VerPackG) 개정안 통과

- 독일 정부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폐기물 지침 개정에 따라 국내법을 변경하고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 동 법안의 목적은 ①포장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방지 및 감소하고 ②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및 포장재 처리에 대해 관계자에 더 많은 책임 부여를 목적으로 함
- 동 법의 의무 적용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음
 - 빈 포장재를 상품으로 채우거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회사
 -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독일 내 판매하는 회사 및 업자
 - 독일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체 상표로 제품을 제조한 회사 및 업자
 - 상품 판매 및 전자 상거래의 배송 상자 등 포장을 추가하는 회사 및 업자
 -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B2C 전자상거래 등)
- 개정안에서는 ①등록 ②데이터 신고 ③사용 포장재 수량 신고(완전성 선언) ④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 업데이트의 의무를 명시
 - **(등록)** 개정안에 의거하여 기업이 포장재를 독일로 들여오기 이전에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 포장재를 제조하는 업체는 제외되며, 중앙포장재등록기관(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ZSVR)을 통해 판매업자 등록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음
 - ZSVR의 데이터베이스(LUCID)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독일에서 포장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 **(데이터 신고)**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양과 유형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
 - 포장재의 양과 유형 등의 정보는 ZSVR에도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ZSVR은 규정 준수가 필요한 포장 재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함
 - **(사용 포장재 수량 신고)** 포장재 제조업체 및 유통업자는 매년 5월 15일까지 전년도 판매 수량 및 재포장 자재의 실제 사용 수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해당 정보는 등록된 검사관의 인증을 받아 ZSVR의 데이터베이스(LUCID)에 전자로 제출되어야 함
 - 다만 해당 의무는 전년도에 판매된 포장재의 실제 수량이 다음 중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포장재	유리	종이, 판지	철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 음료수 상자, 기타 복합재
판매량	80,000kg	50,000kg	30,000kg

-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 업데이트) 개정안에 따르면 ZSVR은 독일 환경청과 협력하여 매년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소 표준을 제시해야 함
 - 재활용 가능성 평가 시에는 (i) 기술적으로 분류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 인프라가 존재해야 함 (ii) 개별 구성 요소의 기술적 분류 및 분리가 가능해야 함 (iii) 재활용 비호환성을 배제해야 함(포장 구성 요소 및 포장 재료에 포함된 물질이 모두 재활용 가능해야 함)을 확인 및 고려해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각 브랜드의 품목별로 포장재에 대한 당국 등록이 요구되며, 실제 이로 인한 행정 소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각 제품별 별도의 등록이 요구됨

□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

-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EC no.834/2007)의 개정판으로,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
-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
 -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으로 정의되었으나,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로 정의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과 ‘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GMOs) 및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i)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ii)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ii) 항목을 수정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

- 복합식품이란, ‘육류,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 수산물, 유제품, 난류, 꿀, 로열젤리, 젤라틴,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 향,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 을 의미
 -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굴 추출물(수산물)과 간장(식물성 재료)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
-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
 - (함량 무관 식품)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
 - (함량 기준 분류)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50%)을 기준으로 분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
 - ‘비 상온 보관 식품’과 ‘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요구됨
 -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파스타, 빵, 제과류 등)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
 -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III. 농식품 유통현황

1. 유통현황 및 특징

□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시장 규모는 2,357억 유로(한화 약 319조 5,034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 전년대비 7.7%의 감소세를 보임

-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이 중 할인점(35.0%)과 슈퍼마켓(30.5)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각각의 매출액은 844억 6,900만 달러(한화 약 114조 3,035억 원), 718억 1,900만 달러(한화 약 97조 1,855억 원)로 집계
 - 현대식 유통채널 중 최근 5년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슈퍼마켓(5.0% ↑)이며, 뒤이어 할인점(3.8% ↑), 포코트리테일러(2.1% ↑), 하이퍼마켓(1.2% ↑), 편의점(0.5% ↑)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295억 9,400만 유로(한화 약 40조 466억 원)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시장의 12.6%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208,715.8	214,779.6	221,056.3	255,392.6	235,793.6	100.0	△7.7	3.1
현대식 유통채널	208,715.8	214,779.6	221,056.3	195,882.7	206,199.4	87.4	5.3	△0.3
- 할인점	71,029.70	74,616.70	76,920.10	78,035.50	82,468.50	35.0	5.7	3.8
- 슈퍼마켓	59,046.80	61,172.50	64,202.90	66,797.70	71,818.80	30.5	7.5	5.0
- 하이퍼마켓	36,510.10	36,588.10	36,801.70	37,257.20	38,269.00	16.2	2.7	1.2
- 포코트리테일러	11,932.00	12,266.10	12,854.90	13,060.40	12,950.60	5.5	△0.8	2.1
- 편의점	677.5	690.4	710.2	731.8	692.5	0.3	△5.4	0.5
전통식 유통채널	29,519.7	29,445.9	29,566.6	29,510.0	29,594.2	12.6	0.3	0.1

*주1: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주2: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출처: Euromonitor(2021)

-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의 경우, 아직까지 홈쇼핑(57.0%)의 비중이 높으나 전자상거래(43.0%)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임
 - 홈쇼핑 식품시장 규모는 32억 5,400만 유로(한화 약 4조 4,048억 원)로 전년 대비 4.4%, 최근 5년간 연평균 9.8% 감소
 - 전자상거래 식품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24억 5,400만 유로(한화 약 3조 3,219억 원)로 전년 대비 31.4%, 최근 5년간 연평균 23.8%의 높은 성장률 기록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5,965.1	5,407.7	5,255.9	5,271.3	5,708.3	100.0	8.3	△1.1
- 전자상거래	1,045.7	1,270.5	1,594.5	1,867.7	2,454.0	43.0	31.4	23.8
- 홈쇼핑	4,919.4	4,137.2	3,661.4	3,403.6	3,254.3	57.0	△4.4	△9.8

*출처: Euromonitor(2021)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2020년 현대식 유통채널의 식품 시장규모는 2061억 9,900만 유로(한화 약 279조 1,254억 원)로 전년 대비 5.3% 증가

- (할인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할인점을 방문을 선호
 -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과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장점은 소비자가 할인점을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 방문율이 높으며, 넓은 부지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는 점 역시 할인점을 찾는 요인으로 작용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Kaufland (Schwarz Beteiligungs GmbH)	Real (Metro AG)	Marktkauf (Edeka Zentrale AG&Co KG)	Globus - Maxus (Globus Holding GmbH&Co)
사진				
설립연도	1984년	1992년	1971년	1953년
점유율	41.2%	16.0%	8.4%	7.8%
매장수	664개	270개	104개	47개
홈페이지	www.kaufland.de	www.real.de	www.marktkauf-gelsenkirchen.de	www.globus.de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슈퍼마켓) 신선식품 구매 시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슈퍼마켓을 이용
 - 소비자는 도시 외곽 지역 내 대규모 부지에 위치한 할인점과 달리 거주지에 인접해있는 슈퍼마켓에서 신선식품을 주로 구매
 - 최근 유기농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다수의 슈퍼마켓에서는 유기농 제품 진열대를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며,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슈퍼마켓의 마케팅 전략은 경쟁력으로 작용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Edeka (Edeka Zentrale AG & Co KG)	Netto (Edeka Zentrale AG & Co KG)
사진		
설립연도	1898년	1990년
점유율	2.5%	1.6%
매장수	6,746개	4,270개
홈페이지	www.edeka.de	www.netto-supermarkt.de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 독일에서는 보통 저녁 6시 이전에 식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점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
 - 이에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편의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시장 규모 역시 감소하는 추세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Yorma's (Yorma's AG)	DB Service Store (DB Station&Service AG)	HDS Hub Convenience (Lagardère SCA)	Spar Express (Internationale Spar Centrale BV)
사진				
설립연도	1985년	1999년	-	1953년
점유율	11.9%	9.8%	10.4%	5.9%
매장수	61개	210개	130개	50개
홈페이지	www.yormas.de	www.my-hub-convenience.de	www.my-hub-convenience.de	www.spar-express.de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295억 9,400만 유로(한화 약 40조 623억 원)로 집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0.3% 증가) 유지

- 독일의 전통 식료품 업체는 전통적인 식료품점에서부터 전문 식음료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울렛을 포함
 - 현대식 유통채널에서 쉽게 품질되거나 규제가 심하여 구할 수 없는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 식료품점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전통시장〉

매장명	Wochenmarkt Muenster	Viktualienmarkt
사진		
홈페이지	www.wochenmarkt-muenster.de	www.muenchen.de

*출처: Tripadvisor, 해당 업체 홈페이지

나. 온라인 유통채널

-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57억 800만 유로(한화 약 7조 7,258억 원)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침
 - (홈쇼핑) 아직까지 전체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소폭 높은 상황
 -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홈쇼핑을 통한 식품 구매는 유지되는 수준으로, 홈쇼핑 구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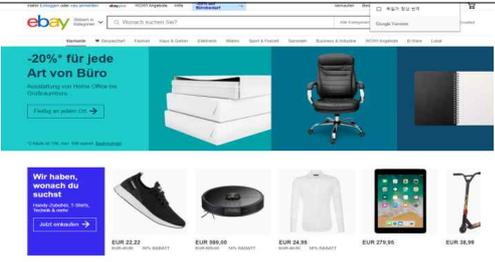
〈주요 홈쇼핑 채널〉

채널명	Bofrost (Bofrost Dienstleistungs)	HSE24 (Home Shopping Europe GmbH)	QVC (Qurate Retail Inc)
사진			
점유율	17.6%	13.5%	15.6%
홈페이지	www.bofrost.de	www.hse24.de	www.qvc.de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전자상거래)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입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시장 활성화 추세
 - 편리하고 신속한 식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아직까지 배송 인프라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주문 후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
 - 또한 비싼 배송 서비스 비용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요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채널명 ¹⁾	Amazon (Amazon.com Inc)	eBay (eBay Inc)
사진		
설립연도	1998년	2002년
점유율	26.7%	9.4%
홈페이지	www.amazon.de	www.ebay.de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1



수입 전 준비

-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 인증 선택 취득
 - AEO C : 세관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세관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및 세관검사혜택
 - AEO F : 세관간소 + 보안안전
- 품목 분류 사전심사(BTI)
-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AEO 인증 담당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수출업자가 보내온 EORI
번호 유효성 확인 후 발급

2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제출서류
 1. 수입신고서
 2. 운임보험
 3. 상업송장
 4. 포장명세서
 5. 선하증권
 6. 원산지증명서
 7. 관세가격보고서
 8.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제품정보, 운송수단 정보,
재무정보 등 신고내용
검토 및 세관신고 처리

3



통관 및 검역

- 각 국가마다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4



관세납부

- 수입관세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시 면제
- 표준부가가치세율 : 15 ~ 25%
- 감면부가가치세율 : 5 ~ 20%
- 특별소비세 : 담배, 주류, 석유 등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세관 규정, 수출입 관리 및 감독

5



반출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제출 → ②입항 → ③보세구역 반입 → ④ 도착 보고 → ⑤하역 및 검사 → ⑥수입신고 → ⑦세금납부 → ⑧역내운송허가 → ⑨물품반출 및 화물인도 순으로 진행됨

단계	내용																
적하목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 상세 정보 제출(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위험품목 코드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제출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제출 																
	<table border="1"> <thead> <tr> <th>화물의 종류</th> <th>통보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td> <td>출발지 선적 24시간 전</td> </tr> <tr> <td>장거리 벌크화물</td> <td>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td> </tr> <tr> <td>단거리 해상화물</td> <td>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td> </tr> <tr> <td>단거리 항공화물</td> <td>비행기 이륙 전</td> </tr> <tr> <td>장거리 항공화물</td> <td>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td> </tr> <tr> <td>철도/운하운송 화물</td> <td>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td> </tr> <tr> <td>육로운송 화물</td> <td>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td> </tr> </tbody> </table>	화물의 종류	통보기한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항공화물	비행기 이륙 전	장거리 항공화물	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
	화물의 종류	통보기한															
	장거리 컨테이너 해상화물	출발지 선적 24시간 전															
	장거리 벌크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EU국가 최초항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항공화물	비행기 이륙 전															
	장거리 항공화물	EU국가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운하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 화물	EU국가 세관 도착 1시간 전																
보세구역 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전 물품 반입장소인 보세구역에 화물 장치 ·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절차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도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역 및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세관당국이 검사 및 현장 출석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함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수입물품의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서를 서면 혹은 세관의 통관시스템 전송방식으로 제출 - EU 수입신고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동봉 																

*출처: 관세청

나. 검역제도

□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농식품 검역 시 EU의 동식물검역지침을 따름

- 식물의 위생 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잔류농약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짐
- 살아있는 동물 및 육류의 수출 시 EU의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사전 검역을 거쳐야 함
- 식물(화훼류 포함) 수출 시 경우에 따라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됨
 - 병충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식물에 한해 식물위생검역증 발급이 면제됨

□ 공식적으로 對독일 수출 가능 여부가 확인된 농산물은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 등 3개 품목과 고위험식물류 35종은 수출 불가함

수출가능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튜립
수출불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여주, 감귤 묘목
수출불가 품목 (고위험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cia Mill. · Acer L. · Albizia Durazz. · Alnus Mill. · Annona L. · Bauhinia L. · Berberis L. · Betula L. · Caesalpinia L. · Cassia L. · Castanea Mill. · Cornus L. · Corylus L. · Crataegus L. · Diospyros L. · Fagus L. · Ficus carica L. · Fraxinus L. · Hamamelis L. · Jasminum L. · Juglans L. · Ligustrum L. · Lonicera L. · Malus Mill. · Nerium L. · Persea Mill. · Populus L. · Prunus L. · Quercus L. · Robinia L. · Salix L. · Sorbus L. · Taxus L. · Tilia L. · Ulmus L.

*출처: 「2021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히 2021년 7월 5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
-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anthomonas citri pv. citri ·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 Phyllosticta citricarpa (McAlpine) Van der Aa
수출단지 지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수출단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
재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
재배지검역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배지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
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출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p><i>"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i></p>

다. 라벨링 규정

□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2014년 시행된 EU 식품 라벨링 법을 준수해야 함

- 해당 규정은 전반적인 식품 라벨링의 외양, 식품 광고, 영양 정보,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함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 고기나 생선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formed meat’ 혹은 ‘formed fish’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라벨링 의무 표기 사항>

· 제품명	· 보관 방법
· 제품 성분(원료) 리스트	· 회사명 및 주소
· 알레르기 항원인자	· 원산지
· 특정 성분의 함유량	· 사용법
· 제품의 실 중량(Net Weight)	· 도수(알코올 도수가 1.2%를 초과하는 경우)
· 유효기간	· 영양정보

- 영양정보의 경우 의무 기재사항 및 추가 기재사항(선택 기재사항)이 존재함

의무 기재사항	· 열량 · 지방 함량, 포화지방 함량, 탄수화물 함량, 설탕 함량, 단백질 함량, 소금 함량
추가 기재사항 (선택 기재사항)	· 불포화지방 함량, 폴리올 함량, 전분 함량, 식이섬유 함량,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

- 특정 식품에 특정 문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함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공기 충전 포장 식품	공기 충전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된 식품	· packaged in a protective atmosphere
감미료 함유 식품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 with sweetener(s) · 식품명에 표기
	설탕과 감미료를 함유한 식품	· with sugar(s) and sweetener(s) · 식품명에 표기
	아스파탐 혹은 아스파탐-아세설팜 소금을 함유한 식품	· contains aspartame(a source of phenylalanine) · contains a source of phenylalanine · 원료 표기란에 표기
	폴리올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	· excessive consumption may produce laxative effects

구분	식품 분류	표기 문구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유 식품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100mg/kg 혹은 10mg/L 이상인 과자류나 음료	·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 혹은 암모늄염 함량이 4g/kg 이상인 과자류	·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리퀴리스 식물(Glycyrrhiza glabra) 등의 물질 첨가로 글리시리진이나 암모늄염 함량이 50mg/L, 300mg/L 이상인 음료 (알코올성의 경우 함량이 1.2% 이상인 음료류)	· 원료 표기란 혹은 식품명에 ‘contains liquorice - people suffering from hypertension should avoid excessive consumption’ 표기
고카페인 음료 및 카페인 첨가 식품	커피, 차를 포함하는 식품으로 식품명에 표기가 되지 않은 식품 중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농축 혹은 건조 형태의 식품 중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이 150mg/L를 초과하는 식품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생리학적 목적으로 카페인이 첨가된 식품(음료 제외)	· High caffeine content,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or pregnant or breast-feeding women · 제품명이 보이는 곳에 해당 문구 기재 · 카페인함량 표기 시 100ml 당 mg 함유량으로 표기 · 식품 보충제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 라벨에 1회 섭취 시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의 양 기재
착색료가 들어간 식품	· 착색료명이나 번호를 표기(예: Sunset Yellow, E110) · 부작용이나 어린이 주의 사항을 명시	

*출처: 유럽연합(<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169/2018-01-01>)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과채류 등 신선식품 수요 증가

-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채소류, 과일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까지 독일 내 과채류 소비량이 코로나 이전 대비 100% 증가
 -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양배추, 뿌리채소, 양파와 같은 채소류와 베리류, 바나나, 감귤류, 석류 등의 과일 소비가 증가
- 과채류 수요가 급증하며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발생
 - 독일 최대 규모의 신선식품 취급 업체 Frutania는 코로나19로 인해 농가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며 과채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분석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농장 및 유통업체의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수요가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재고 부족 사태가 일어남
 - 독일 농업시장정보협회(Agrarmarkt Informations-Gesellschaft, AMI)에 따르면 2020년 4월 신선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함

□ 코로나19로 외출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유통기한이 긴 식품이 선호되는 추세

- 독일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브랜드 REWE는 코로나19로 전국 매장에서 식품이 대량으로 판매되었다며, 특히 유통기한이 긴 식품의 구매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힘
 - 주로 통조림류나 파스타와 같이 집에서도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재료 위주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냉동식품 소비 역시 증가세로, 독일 냉동식품협회(German Frozen Food Institute, DFI)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의 19%가 냉동식품으로 직접 요리해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냉동식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간단한 조리만으로 쉽게 섭취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함

□ 재택근무, 외출 제한 등의 요인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주문량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전 독일의 온라인 식품 주문 비중은 16%였으나, 2020년 5월 기준 온라인 식품 주문 비중은 30%까지 확대
 - 독일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주로 즉석식품, 통조림 제품 등 배달과 보관에도 신선도 하락 염려가 없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많은 양의 주류(알코올 음료)가 소비

- 독일의 시장조사기관인 Forsa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4분의 1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소비한다고 응답
 -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된 주류는 총 6,150헥토리터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의 주류 판매량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주류 소비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는 일종의 대처 메커니즘인 것으로 분석
 - 주류 음용 시 긴장이 풀어지고 진정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고, 이러한 효과로 소비자의 주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2021년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이탈리아
Italy

[목 차]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3
1. 농업현황	3
2. 수출입현황	7
II. 농식품 시장현황	13
1. 시장개요	13
2. 시장 트렌드	17
3. 농식품 관련 정책	20
III. 농식품 유통현황	23
1. 유통현황 및 특징	23
2. 주요 유통채널	25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8
1. 수출 프로세스	28
2. 수입제도	29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37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VA)는 328억 7,810만 유로(한화 약 37조 3,912억 원)로 전년 대비 3.8% 감소

- 이는 전체 총 부가가치(GAV)의 2.2%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2%대의 수준을 유지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522,753.8	1,557,795.8	1,589,765.9	1,605,631.5	1,490,612.9	△7.2	△0.5%
	농업 ²⁾	32,701.1	34,257.5	34,461.0	34,191.3	32,878.1	△3.8	0.1%
	비중	2.1	2.1	2.1	2.1	2.2	4.8	1.2%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VA

* 주2 : 농축산업 포함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18년(최신자료) 농업 고용인구는 87만 1,300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3.4% 차지

〈농업 고용인구(2016~2020)〉

(단위 : 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고용인구	24,849	25,138	25,371	25,503	24,978	△2.1	0.1%
농업 고용인구	871	855	871	N/A	N/A	-	-
농업 인구비중	3.5	3.4	3.4	N/A	N/A	-	-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2020년 농업 총생산액은 557억 4,000만 유로(한화 약 75조 5,288억 원)로, 최근 5년간 보합세(연평균 0.8% 증가)

- 이탈리아의 여름은 고온건조하며, 겨울은 온난다습해 수목농업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보유

- 이에 여름철에는 포도, 올리브, 감귤류 등이 주로 재배되며, 겨울에는 밀, 귀리, 보리 등의 곡물 위주로 생산

〈농업 총생산액(2016~2020)〉

(단위 : 천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농업 총생산액	53,466,769	55,768,801	57,239,794	57,315,825	55,740,000	0.1	0.8

* 주 : 농업 총생산액은 농축산물 생산액을 포함

* 출처 : 이탈리아통계청(2021. 6월 기준)

□ 곡물, 포도, 채소류, 과수 등의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이 외에도 과수, 올리브, 사탕무, 감자 등이 생산

- (곡물) 전년 대비 2.9% 증가한 1억 5,026만 6,163퀸들(약 1,502만 6,616톤) 생산, 이 중 옥수수의 비중이 45.6%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44만 6,513퀸들(약 684만 4,651톤)로 집계
 - 이 외에도 듀럼밀(26.6%) 3,996만 6,919퀸들(약 399만 6,692톤), 밀(17.9%), 2,687만 1,402퀸들(약 268만 7,140톤), 쌀(10.0%) 1,497만 1,329퀸들(약 149만 7,133톤) 생산
- (포도) 단일 품목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 2020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8,295만 1,356퀸들(약 829만 5,136톤)로 집계
- (채소류) 총 8,050만 2,719퀸들(약 805만 272톤)이 생산되었으며, 토마토 생산이 전체의 73.4% 차지
 - 토마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5,910만 4,641퀸들(약 591만 464톤)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의 감소세를 보임
 - 이 외에도 수박 677만 7,281퀸들(약 67만 7,728톤), 멜론 525만 6,890퀸들(약 52만 5,689톤), 호박 411만 3,005퀸들(약 41만 1,301톤) 등 박류 채소 위주로 생산
- (과수) 전년 대비 19.3% 감소한 3,403만 3,723퀸들(약 340만 3,372톤) 생산, 사과(43.5%), 복숭아(22.7%), 배(18.0%), 키위(15.8%)로 구성
 - 사과 생산량은 1,481만 4,830퀸들(약 148만 1,483톤)로 전년 대비 37.0% 감소, 이는 전체 과수 생산량 감소세에 영향
 - 복숭아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9.7% 감소한 770만 9,157퀸들(약 77만 916톤), 키위의 경우 전년 대비 2.2% 감소한 539만 1,601퀸들(약 53만 9,160톤)로 집계
 - 반면 배 생산량은 유일하게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한 611만 8,135퀸들(약 61만 1,814톤) 생산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키토(=100kg),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곡물	곡물 계	166,372,383	147,285,002	148,134,204	145,999,267	150,266,163	100.0	2.9	△2.5
	옥수수	69,033,306	61,118,790	62,831,087	63,914,442	68,446,513	45.6	7.1	△0.2
	듀럼밀	51,292,050	43,204,956	42,463,627	39,634,178	39,966,919	26.6	0.8	△6.0
	밀	30,066,757	27,800,924	28,084,365	27,469,318	26,871,402	17.9	△2.2	△2.8
	쌀	15,980,270	15,160,332	14,755,125	14,981,329	14,981,329	10.0	-	△1.6
포도		83,939,179	72,603,771	86,428,346	79,729,343	82,951,356	100.0	4.0	△0.3
채소류	채소류 계	90,092,528	86,162,472	83,791,430	80,762,118	80,502,719	100.0	△0.3	△2.8
	토마토	66,780,828	62,807,804	60,039,534	59,617,303	59,104,641	73.4	△0.9	△3.0
	수박	5,546,655	5,970,519	6,116,018	6,805,828	6,777,281	8.4	△0.4	5.1
	멜론	6,629,061	6,316,508	6,338,827	5,261,891	5,256,890	6.5	△0.1	△5.6
	휼넬	5,273,601	5,305,572	5,405,828	5,361,806	5,250,902	6.5	△2.1	△0.1
	호박	5,862,383	5,762,069	5,891,223	3,715,290	4,113,005	5.1	10.7	△8.5
과수	과수 계	46,456,655	40,986,721	45,219,591	42,170,289	34,033,723	100.0	△19.3	△7.5
	사과	24,632,304	19,405,973	24,366,487	23,529,743	14,814,830	43.5	△37.0	△11.9
	복숭아	9,375,017	8,074,791	7,799,124	8,534,722	7,709,157	22.7	△9.7	△4.8
	배	7,060,379	7,852,963	7,232,877	4,590,532	6,118,135	18.0	33.3	△3.5
	키위	5,388,955	5,652,994	5,821,103	5,515,292	5,391,601	15.8	△2.2	0.01
올리브		22,134,151	27,675,724	21,518,271	23,174,206	25,027,826	100.0	8.0	3.1
사탕무		22,907,170	27,277,245	22,010,160	20,021,875	20,021,875	100.0	-	△3.3
감자		13,942,274	13,891,561	13,425,453	13,682,179	14,635,208	100.0	7.0	1.2
유지류	유지류 계	13,745,100	13,114,260	14,250,250	13,326,287	12,817,054	100.0	△3.8	△1.7
	대두	11,028,566	10,633,808	11,734,512	10,380,730	9,818,855	76.6	△5.4	△2.9
	해바라기씨	2,716,534	2,480,452	2,515,738	2,945,557	2,998,199	23.4	1.8	2.5
감귤류	감귤류 계	24,239,926	22,591,487	23,117,377	23,538,765	12,526,730	100.0	△46.8	△15.2
	오렌지	17,539,371	16,326,007	16,760,484	17,106,669	12,526,730	100.0	△26.8	△8.1
	귤	6,700,555	6,265,480	6,356,893	6,432,096	N/A	N/A	N/A	N/A
구근류	구근류 계	9,924,014	9,078,201	8,634,581	9,792,347	9,642,755	100.0	△1.5	△0.7
	당근/ 파스닙	5,333,383	4,883,539	4,808,240	4,941,668	4,999,554	51.8	1.2	△1.6
	양파	4,590,631	4,194,662	3,826,341	4,850,679	4,643,201	48.2	△4.3	0.3
견과류	견과류 계	2,061,606	2,281,464	2,249,557	1,885,739	2,292,570	100.0	21.6	2.7
	헤이즐넛	1,265,251	1,434,832	1,402,862	1,069,810	1,445,898	63.1	35.2	3.4
	아몬드	796,355	846,632	846,695	815,929	846,672	36.9	3.8	1.5
두류	두류 계	1,721,605	1,771,757	1,988,900	1,778,390	1,829,373	100.0	2.9	1.5
	강낭콩	1,494,257	1,430,824	1,514,524	1,417,720	1,494,389	81.7	5.4	0.002
	병아리콩	227,348	340,933	474,376	360,670	334,984	18.3	△7.1	10.2
고구마		139,590	93,986	83,576	60,272	68,427	100.0	13.5	△16.3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20년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 생산량은 2,304만 2,947퀵들(약 230만 4,295톤)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며 보합세

- 돈육 생산량이 전체 육류 생산(계육 제외) 중 3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854만 3,029퀵들(약 85만 4,303톤)로 집계
- 뒤이어 양고기(35.0%), 우육(26.0%) 순으로 생산량이 높게 나타남
 - 양고기 생산량은 703만 4,164퀵들(약 70만 3,416톤), 우육 생산량은 599만 3,015퀵들 (약 59만 9,302톤)로 집계
- 동년 계육 생산량은 집계되지 않으며, 2018년(최신자료) 기준 생산량은 13억 7,664만 3,913퀵들(약 1억 3,766만 4,391톤)로 전체 육류 중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
- 2020년 우유 생산량은 1억 1,931만 4,500퀵들(약 1,193만 1,450톤)로 2018년도 대비 6.7% 감소

<주요 축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퀵들(=100kg),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육류	계	1,479,640,914	1,452,503,495	1,399,626,069	22,947,101	23,042,947	100.0	0.4
	돼지	8,447,930	8,570,807	8,492,232	8,510,268	8,543,029	37.1	0.4
	양	7,284,874	7,215,433	7,179,158	7,000,880	7,034,164	30.5	0.5
	소	5,929,767	5,949,393	5,923,204	5,974,947	5,993,015	26.0	0.3
	염소	1,026,263	992,177	986,225	1,058,720	1,065,712	4.6	0.7
	버팔로	385,121	400,792	401,337	402,286	407,027	1.8	1.2
	닭	1,456,566,959	1,429,374,893	1,376,643,913	N/A	N/A	N/A	N/A
우유	121,459,726	125,776,305	127,929,420	N/A	119,314,500	100.0	N/A	

* 주 : 2019~2020년 육류 소계는 닭 생산량을 제외하고 집계

* 출처 : 이탈리아 통계청(2021. 6월 기준)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 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490억 7,248만 8,000달러(한화 약 55조 7,659억 원)로 전년 대비 4.2%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독일(17.8%), 프랑스(11.6%), 미국(11.3%), 영국(8.4%), 스위스(3.9%) 순
 - 對독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87억 1,108만 3,000달러(한화 약 9조 9,027억 원)로 집계
 - 뒤이어 프랑스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57억 1,266만 7,000달러(한화 약 6조 4,930억 원),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55억 6,278만 4,000달러(한화 약 6조 3,226억 원)로 나타남
 - 영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41억 1,634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371억 원), 스위스로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9억 3,622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2,282억 원)로 집계
- 이탈리아 농식품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의 0.7%에 불과하나, 전년 대비 27.5% 증가한 3,565만 5,600달러(한화 약 410억 원)가 수출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642,401	44,119,319	46,909,632	47,105,866	49,072,488	100.0	4.2	4.8
1 독일	7,321,087	7,842,089	8,243,368	7,962,096	8,711,083	17.8	9.4	4.4
2 프랑스	4,548,231	5,064,406	5,521,153	5,567,485	5,712,667	11.6	2.6	5.9
3 미국	4,228,785	4,534,549	4,912,524	5,165,529	5,562,784	11.3	7.7	7.1
4 영국	3,565,210	3,768,993	3,957,877	3,889,679	4,116,344	8.4	5.8	3.7
5 스위스	1,595,597	1,678,591	1,800,780	1,746,550	1,936,227	3.9	10.9	5.0
6 네덜란드	1,462,538	1,590,867	1,725,004	1,759,123	1,835,703	3.7	4.4	5.8
7 스페인	1,417,938	1,675,014	1,723,199	1,750,527	1,633,091	3.3	△6.7	3.6
8 오스트리아	1,314,528	1,435,632	1,469,447	1,444,569	1,487,737	3.0	3.0	3.1
9 벨기에	1,171,088	1,286,229	1,383,815	1,372,582	1,469,145	3.0	7.0	5.8
10 캐나다	844,256	915,349	987,216	972,738	1,081,343	2.2	11.2	6.4
⋮								
25 대한민국	228,564	247,882	261,585	279,627	356,556	0.7	27.5	11.8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주류·식초(22.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13.6%),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8.7%), 낙농품과 식용과실 및 견과류(8.4%) 등
- 농식품 중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은 음료·주류·식초로, 108억 7,902만 2,000 달러(한화 약 12조 5,196억 원) 수출되며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유지(0.2%↑)
 - 다만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보임
 -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66억 6,511만 8,000달러(한화 약 7조 6,689억 원) 수출되었고, 채소, 과일, 견과류 부분 및 조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2억 8,732만 9,000달러(한화 약 4조 9,330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낙농품 41억 3,014만 달러(한화 약 4조 7,521억 원), 식용 과일 및 견과류 40억 9,976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172억 원) 등이 수출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40,642,401	44,119,319	46,909,632	47,105,866	49,072,488	100.0	4.2	4.8	
1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804,155	9,680,884	10,675,832	10,861,939	10,879,022	22.2	0.2	5.4
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4,921,522	5,285,276	5,728,475	6,071,982	6,665,118	13.6	9.8	7.9
3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3,530,255	3,679,711	4,014,197	3,956,758	4,287,329	8.7	8.4	5.0
4	낙농품 (HS Code 04)	3,108,385	3,550,821	3,873,709	4,138,880	4,130,140	8.4	△0.2	7.4
5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3,932,425	4,207,741	4,013,774	3,745,379	4,099,764	8.4	9.5	1.0
6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2,201,077	2,561,822	2,919,218	2,959,148	3,207,236	6.5	8.4	9.9
7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2,378,128	2,423,721	2,432,851	2,204,229	2,394,215	4.9	8.6	0.2
8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2,346,923	2,469,621	2,473,678	2,386,370	2,354,433	4.8	△1.3	0.1
9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696,224	2,060,692	2,132,906	2,172,100	2,183,655	4.4	0.5	6.5
10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1,688,832	1,723,311	1,815,161	1,798,728	1,785,881	3.6	△0.7	1.4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376억 4,041만 2,000달러(한화 약 42조 8,073억 원)로 전년 대비 2.6% 감소

- 주요 수입국은 독일(13.6), 스페인(11.5%), 프랑스(10.9%), 네덜란드(8.2%) 순으로 전반적인 수입 규모 감소세
 - 독일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51억 195만 3,000달러(한화 약 5조 8,036억 원), 스페인산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43억 4,507만 9,000달러(한화 약 4조 9,838억 원), 프랑스산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40억 9,347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6,524만 원)로 집계
 - 반면 네덜란드산 농식품 수입은 전년 대비 3.3%로 증가하여 30억 8,437만 8,000달러(한화 약 3조 5,489억 원) 규모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한 829만 5,000달러(한화 약 94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35,315,878	37,898,451	38,705,270	38,112,973	37,640,412	100.0	△1.2	1.6
1 독일	5,176,976	5,474,448	5,551,260	5,417,193	5,101,953	13.6	△5.8	△0.4
2 스페인	4,000,575	4,761,247	4,463,199	4,739,103	4,345,079	11.5	△8.3	2.1
3 프랑스	4,125,018	4,407,239	4,592,996	4,247,115	4,093,471	10.9	△3.6	△0.2
4 네덜란드	2,892,743	3,102,987	3,253,618	2,986,492	3,084,378	8.2	3.3	1.6
5 벨기에	1,237,011	1,447,035	1,521,545	1,520,880	1,394,358	3.7	△8.3	3.0
6 오스트리아	1,296,326	1,403,018	1,359,183	1,387,689	1,305,075	3.5	△6.0	0.2
7 헝가리	783,068	1,068,635	1,033,238	1,088,104	1,223,225	3.2	12.4	11.8
8 미국	875,566	852,038	1,135,809	1,311,404	1,219,760	3.2	△7.0	8.6
9 브라질	1,013,812	979,361	912,718	1,019,348	1,122,535	3.0	10.1	2.6
10 폴란드	1,150,879	1,267,800	1,273,788	1,264,511	1,109,514	2.9	△12.3	△0.9
⋮								
92 대한민국	8,774	9,796	10,787	9,590	8,295	0.02	△13.5	△0.01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입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12.5%), 동물성·식물성 유지류(10.9%), 낙농품(10.6%), 식용 과일 및 견과류(10.4%), 곡물(9.5%) 등

- 육과 식용 설육 수입액은 47억 1,448만 9,000달러(한화 약 5조 4,245억 원)로 전년 대비 10.2% 감소
-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40억 8,556만 4,000달러(한화 약 4조 7,008억 원), 낙농품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39억 8,107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5,806억 원) 수입
- 이 외에도 식용 과일 및 견과류 39억 3,039만 5,000달러(한화 약 4조 5,223억 원), 곡물 35억 9,032만 8,000달러(한화 약 4조 1,310억 원) 등이 수입

<품목별 농식품 수입 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35,315,878	37,898,451	38,705,270	38,112,973	37,640,412	100.0	△1.2	1.6
1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4,729,637	5,083,038	5,164,228	5,251,862	4,714,489	12.5	△10.2	△0.1
2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4,173,030	4,581,278	4,227,643	3,877,654	4,085,564	10.9	5.4	△0.5
3 낙농품 (HS Code 04)	3,695,103	4,258,790	4,431,428	4,301,190	3,981,078	10.6	△7.4	1.9
4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3,427,100	3,557,691	3,692,545	3,819,312	3,930,395	10.4	2.9	3.5
5 곡물 (HS Code 10)	3,110,320	3,222,170	3,378,409	3,435,475	3,590,328	9.5	4.5	3.7
6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1,798,368	1,982,891	2,253,890	2,219,719	2,071,510	5.5	△6.7	3.6
7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1,687,855	1,822,568	1,805,350	1,995,704	1,858,754	4.9	△6.9	2.4
8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시료용 식물 (HS CODE 12)	1,378,396	1,430,294	1,555,466	1,653,470	1,788,988	4.8	8.2	6.7
9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HS Code 16)	1,572,209	1,694,237	1,832,583	1,698,454	1,768,420	4.7	4.1	3.0
10 커피·차·마테·향신료 (HS Code 09)	1,884,768	2,016,585	1,943,081	1,803,721	1,682,310	4.5	△6.7	△2.8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한국의 對이탈리아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이탈리아 수출액은 1,858만 7,000달러(한화 약 214억 원)로 전년 대비 9.3% 감소

- 이 중 농산물 수출 비중이 69.4%를 차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1% 감소한 1,289만 2,000달러(한화 약 148억 원)로 집계
- 축산물(21.6%)과 임산물(9.0%)의 수출액은 각각 401만 9,000달러(한화 약 46억 원), 167만 7,000달러(한화 약 19억 원)로 집계
 -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9%, 최근 5년간 연평균 15.7% 증가한 반면,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9.8%, 연평균 9.6% 감소

〈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5,513	15,684	19,859	21,607	18,587	100.0	△14.0	4.6
농산물	10,756	11,360	14,669	16,994	12,892	69.4	△24.1	4.6
축산물	2,246	1,871	3,012	2,755	4,019	21.6	45.9	15.7
임산물	2,512	2,452	2,178	1,858	1,677	9.0	△9.8	△9.6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4.6%), 인스턴트 면류(3.4%), 조제·저장 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 기타(2.8%), 기타 조제식료품(2.5%), 기타 음료(2.0%) 등

-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6% 증가한 84만 9,000달러(한화 약 10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9%의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인스턴트 면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8% 감소한 63만 7,000달러(한화 약 7억 원)로 집계
- 조제·저장 처리된 과실 및 견과류의 경우 전년 대비 3.5% 증가한 51만 2,000달러(한화 약 6억 원)가 수출되었고, 2017년부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지되는 추세
-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6% 감소한 45만 8,000달러(한화 약 5억 원), 기타 음료(알코올 미함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36만 5,000달러(한화 약 4억 원)로 집계

〈對이탈리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5,513	15,684	19,859	21,607	18,587	100.0	△14.0	4.6
1 라면	440	396	548	592	849	4.6	43.6	17.9
2 인스턴트 면류	745	1,055	952	993	637	3.4	△35.8	△3.8
3 조제·저장 처리된 과일 및 견과류 기타	81	293	319	494	512	2.8	3.5	58.5
4 기타 조제식료품 (쌀가루의 것)	445	319	514	616	458	2.5	△25.6	0.8
5 기타 음료 (알코올 미함유)	-	981	1,280	424	365	2.0	△14.1	△28.1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2021. 6월 기준)

II.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징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1,388억 5,700만 유로(한화 약 188조 152억 원)로 전년 대비 7.6% 증가

-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9%로, 시장규모는 665억 1,100만 유로(한화 약 90조 572억 원)로 집계
 - 이 중 육류(18.7%)와 과일류(12.9%)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육류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한 259억 5,800만 유로(한화 약 35조 1,477억 원), 과일류의 경우 전년 대비 7.6% 증가한 178억 5,900만 유로(한화 약 24조 1,814억 원)로 집계
 - 이 외에도 채소류(6.4%) 89억 3,500만 유로(한화 약 12조 982억 원), 달걀(2.5%) 34억 4,900만 유로(한화 약 4조 7,763억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신선식품 중 전년 대비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채소류(11.8% ↑)와 두류(11.6% ↑), 당류 및 감미료(10.9% ↑)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채소류(6.2% ↑), 과일류(4.7% ↑), 달걀(3.8% ↑), 당류 및 감미료(3.7% ↑) 순으로 집계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723억 4,600만 유로(한화 약 94조 9,579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52.1% 차지
 - 베이커리류(12.7%) 시장규모는 전년도와 유사(0.4% ↑)한 126억 2,100만 유로(한화 약 17조 891억 원)로 전체 가공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임
 - 뒤이어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10.0%) 138억 2,800만 유로(한화 약 18조 7,234억 원), 유제품(8.8%) 121억 7,600만 유로(한화 약 16조 4,865억 원),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2.8%) 39억 700백만 유로(한화 약 5조 2,90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가공식품 중 쌀, 파스타, 면류 시장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7.9%, 채소 및 과일 가공품 7.4% 순으로 집계됨
 - 최근 5년간 연평균 시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4.6% ↑), 시리얼(4.2% ↑), 스프레드류(3.4% ↑) 등으로 나타남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전체	125,258.0	127,097.5	129,315.5	131,554.3	138,856.9	100	5.6	2.6
신선식품	58,177.4	59,241.0	60,616.6	61,794.0	66,510.7	47.9	7.6	3.4
- 육류	24,062.0	23,556.0	23,808.8	24,237.4	25,958.2	18.7	7.1	1.9
- 과일류	14,883.8	15,685.4	16,212.2	16,598.0	17,859.4	12.9	7.6	4.7
- 채소류	7,026.7	7,483.7	7,775.9	7,991.8	8,934.9	6.4	11.8	6.2
- 수산물	5,589.9	5,743.5	5,851.5	6,038.8	6,310.5	4.5	4.5	3.1
- 달걀	2,966.0	3,054.5	3,180.3	3,196.2	3,448.7	2.5	7.9	3.8
- 뿌리채소·괴경	1,152.4	1,110.2	1,111.5	1,120.1	1,179.5	0.8	5.3	0.6
- 두류	904.6	938.5	935.6	913.2	1,019.1	0.7	11.6	3.0
- 견과류	903.6	939.1	978.7	980.6	1,004.2	0.7	2.4	2.7
- 당류 및 감미료	688.4	730.1	762.1	717.9	796.2	0.6	10.9	3.7
가공식품	67,080.6	67,856.5	68,698.9	69,760.3	72,346.2	52.1	3.7	1.9
- 베이커리류	16,621.5	16,867.2	17,208.0	17,555.8	17,620.6	12.7	0.4	1.5
- 육류 및 수산물 가공품	11,568.6	11,988.9	12,379.0	12,813.9	13,828.0	10.0	7.9	4.6
- 유제품	12,086.6	11,974.0	11,864.5	11,841.7	12,175.6	8.8	2.8	0.2
-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3,680.1	3,737.4	3,806.4	3,882.5	3,906.6	2.8	0.6	1.5
- 쌀, 파스타, 면류	3,180.1	3,165.4	3,139.9	3,177.1	3,517.8	2.5	10.7	2.6
- 제과류	3,509.6	3,481.1	3,434.8	3,415.2	3,394.3	2.4	△0.6	△0.8
- 세이보리 스낵	2,680.2	2,730.6	2,806.3	2,872.4	3,044.4	2.2	6.0	3.2
- 소스, 드레싱, 조미료	2,584.8	2,609.9	2,644.4	2,685.4	2,846.9	2.1	6.0	2.4
- 비스킷, 스낵류	2,241.5	2,268.5	2,320.2	2,391.5	2,481.1	1.8	3.7	2.6
- 즉석식품(Ready Meal)	2,206.8	2,272.9	2,338.9	2,408.5	2,467.4	1.8	2.4	2.8
- 식용유지류	2,195.7	2,169.5	2,147.8	2,091.0	2,193.0	1.6	4.9	0.0
- 채소 및 과일 가공품	1,855.8	1,891.5	1,877.8	1,896.6	2,036.2	1.5	7.4	2.3
- 스프레드류	1,015.1	1,053.4	1,084.3	1,095.1	1,159.2	0.8	5.9	3.4
- 이유식	900.5	869.2	839.1	813.6	807.2	0.6	△0.8	△2.7
- 시리얼	424.9	430.4	449.2	468.1	501.6	0.4	7.2	4.2
- 수프	328.8	346.6	358.3	351.9	366.3	0.3	4.1	2.7

*출처: Euromonitor(2021)

나. 소비인구 및 현황

□ 2021년 인구 수 6,239만 364명, 중위연령 46.5세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낮은 편

- 5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36.08%를 차지하며 장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5세 미만 연령층 비중 23.06%로 낮은 편인 반면, 25~54세 40.86%, 55세~64세 이하 14.00%, 65세 이상 22.08% 순으로 집계됨
- 여성 인구 수 3,300만 7,788명(51.82%), 남성 3,006만 8,892명(48.19%)로 비교적 균등한 성비 구조 지남 (2021년도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있지 않음)
- 2020년 7월 기준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64.20%로 전월(63.60%)대비 소폭 증가 하였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48.8%에 달함

□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3만 2,039달러(한화 약 3,705만 원)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

-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6,684유로(한화 약 3,692만 원)로 전년 대비 8.4% 감소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 추이(2016~2020)>

(단위: 10억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27,737	28,315	28,790	29,146	26,684	△8.4	△1.0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2만 7,997유로(한화 약 3,841만 원)로 집계

- 이 중 남성의 연평균 임금은 3만 451유로(한화 약 4,177만 원)로 여성 2만 7,322유로(한화 약 3,748만 원)로,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평균 임금에 비해 8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인당 평균 임금 추이(2016~2020)>

(단위: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29,126	29,248	29,564	29,828	27,997	△6.1	△1.0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2,650달러(한화 약 324만 원)로 전년 대비 12.4% 증가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1,757달러(한화 약 203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의 66.3% 차지
 - 육류 소비액이 632달러(한화 약 73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의 23.9%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채소류 402달러(한화 약 46만 원), 낙농품 및 난류 355달러(한화 약 41만 원) 순으로 나타남
 -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은 1인당 연평균 273달러(한화 약 32만 원), 유지류 94달러(한화 약 11만 원)로 집계
 - 신선식품 중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뒤이어 채소류와 육류 소비액은 각각 전년 대비 10.7%와 10.4% 증가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894달러(한화 약 103만 원)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 소비액의 33.7% 차지
 - 스낵류 소비액이 410달러(한화 약 47만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1인당 연평균 349달러(한화 약 40만 원)로 집계
 - 편의식품의 경우 1인당 연평균 95달러(한화 약 11만 원) 소비되었고, 소스 및 향신료 21달러(한화 약 2만 원), 스프레드 및 당류 9달러(한화 약 1만 원)로 나타남
 - 이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와 편의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6%와 20.9%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식품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전체	2,340.69	2,341.99	2,348.39	2,356.95	2,650.22	100.0
신선식품	1,584.40	1,585.27	1,589.58	1,595.36	1,756.71	66.3
- 육류	572.26	571.41	571.79	572.69	632.23	23.9
- 채소류	360.08	360.57	361.85	363.46	402.40	15.2
- 낙농품 및 난류	327.42	326.90	327.09	327.58	355.18	13.4
- 과일 및 견과류	240.87	241.97	243.60	245.46	272.61	10.3
- 유지류	83.77	84.42	85.25	86.17	94.29	3.6
가공식품	756.29	756.72	758.81	761.59	893.51	33.7
- 스낵류	354.91	355.19	356.27	357.73	410.06	15.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286.69	286.39	286.72	287.30	349.45	13.2
- 편의식품	76.23	76.79	77.52	78.32	94.67	3.6
- 소스 및 향신료	19.99	20.06	20.18	20.31	21.26	0.8
- 스프레드 및 당류	9.30	9.27	9.24	9.17	9.39	0.4
- 영유아용 식품	9.17	9.02	8.88	8.76	8.68	0.3

*출처: STATISTA(2021)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2. 시장 트렌드

가. 주요 트렌드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며 식량 비축을 위한 주요 식재료 판매 증가

- 락다운 기간 동안 가정 내 취식을 위해 식재료를 비축해두려는 소비 심리 확대로 기본 식재료의 판매량 증가
 -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스타, 우유, 계란, 밀가루와 같은 필수 식재료의 판매량이 20~40% 증가했으며, 식품 구매 규모도 45파운드(한화 약 7만 2천 원)에서 76파운드(한화 약 7만 4천 원)로 69% 증가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탈리아의 유명 요리사인 마시모 보투라(Massimo Botturasms)는 가정 내 비축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기도 함

<마시모 보투라의 비축 식재료 활용 요리법 영상>



*출처: Youtube

□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유지를 위한 식품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음

- MZ세대¹⁾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짙어짐
 - Euromonitor가 이탈리아 소비자 1,13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특히 MZ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칼로리 식품 대신 저열량, 무첨가 제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
 -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품 섭취 전 해당 제품의 열량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성향을 보임

1)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주관적인 소비를 행하는 것이 특징

나. 이슈품목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무첨가 식품 및 콩 기반의 단백질 섭취 소비가 증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글루텐프리와 같은 무첨가 식품 소비를 확대하는 추세
 - 2020년 글루텐프리 파스타 판매량은 코로나 이전 대비 7.1% 증가하였고, 글루타메이트²⁾ 무첨가 제품 소비는 4.9%, 락토스프리 제품 3.6%, 이 외 각종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무설탕, 무방부제, Non-GMO 등) 제품 소비는 2.7% 순으로 증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무첨가식품>

			
글루텐프리 파스타	무지방 조미료	무염(Salt-free) 조미료	무설탕케이크

*출처: supermarketitaly.com

- 콩에 함유된 단백질량이 육류나 생선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콩 기반 스낵 및 파스타류 등의 소비가 증가함
 - 이탈리아에서 널리 판매되는 콩 기반 식품에는 두유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요구르트, 치즈, 두부 등이 있음
 - 또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비타민B, 칼슘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템페³⁾가 수프에 첨가하거나 채소와 함께 섭취되는 방식으로 소비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콩 기반 식품>

			
콩 단백질 기반의 마요네즈	콩 단백질 기반의 치즈	두부버거	콩 단백질 기반의 케이크

*출처: vegaliano.com

2) 단백질에서 추출한 글루탄산의 나트륨염으로,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 조미료를 의미

3)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으로 외관상으로는 두부와 비슷하나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국장과 유사

□ 소규모 가구 수 증가에 따라 한 끼 식사용·소포장 식품 수요 증가

- 이탈리아 내 1~2인 가구 수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이탈리아의 1인 가구는 총 8,562가구로 지난 2012년 대비 15.2% 증가
-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류와 소포장 식품 수요 증가하는 추세
 - 특히 MY cooking box, Second Chef, Quomi 등 이탈리아 내 다양한 밀키트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소비를 촉진
 - 이들 브랜드는 일반적인 메뉴의 밀키트는 물론 로컬푸드, 채식주의자용 밀키트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임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밀키트 제품>



*출처: MY cooking box, Quomi

3. 농식품 관련 정책

□ 2021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설탕 첨가 음료에 대한 세금 규정」이 이탈리아 예산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로 연기

- 해당 규정은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음료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에 해로운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당뇨병, 비만 등의 예방을 통해 국가의 건강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됨
 - 당 초 건의안에서는 20%의 높은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탈리아 상·하원의 논의 과정을 거쳐 리터 당 0.1유로(한화 약 135원) 수준으로 최종 세율이 조정됨
- 설탕세의 과세 대상은 설탕 또는 감미료가 포함된 알코올 농도 1.2% 이하의 무알코올 음료(과일주스, 탄산음료, 무알코올 맥주 등)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완제품 또는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임
 - 즉시 마실 수 있는 완제품의 경우 100리터 당 10유로(한화 약 1만 3,537원),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제품은 1kg당 0.25유로(한화 약 338원)가 부과됨
- 이에 음료 제조업체, 포장업체, 구매자, 수입업체 등은 설탕세 납부 의무를 짐

국내 제조업자	가당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포장업자	재포장 등을 통해 가당음료가 고객 또는 소매점으로 재판매되는 경우
구매자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가당음료 제품을 구매한 경우
수입업자	EU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가당음료가 이탈리아로 수입된 경우

- 다른 EU 국가에서 소비하기 위해 직접 판매하는 수출 음료에 대해서는 설탕세가 적용되지 않음

□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

-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EC no.834/2007)의 개정판으로,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

-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
-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으로 정의되었으나,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로 정의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과 ‘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GMOs) 및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i)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ii)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ii) 항목을 수정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

- 복합식품이란, ‘육류,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 수산물, 유제품, 난류, 꿀, 로열젤리, 젤라틴,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 향,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 을 의미
-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굴 추출물(수산물)과 간장(식물성 재료)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
-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
 - (함량 무관 식품)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
 - (함량 기준 분류)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50%)을 기준으로 분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
 - ‘비 상온 보관 식품’과 ‘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요구됨
 -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파스타, 빵, 제과류 등)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
 -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III. 농식품 유통현황

1. 유통현황 및 특징

□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식품시장 규모는 1,466억 2,990만 유로(한화 약 198조 6,856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0%, 전년 대비 5.6%의 성장

-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74.3%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3%의 성장세를 보임
 - 이 중 슈퍼마켓의 비중(35.9%)이 가장 큰 규모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525억 8,300만 유로(한화 약 71조 1,985억 원)로 집계
 - 뒤이어 하이퍼마켓(14.0%), 할인점(13.7%), 편의점(10.6%) 순으로 나타나며, 이 중 할인점의 성장률(전년 대비 8.5%, 연평균 6.4% ↑)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각 유형별 매출액은 하이퍼마켓 204억 7,600만 유로(한화 약 27조 7,239억 원), 할인점 200억 6,000만 유로(한화 약 27조 1,606억 원), 편의점 155억 8,900만 유로(한화 약 21조 1,070억 원)로 집계
 - 포코트 리테일러의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매출액 역시 2억 7,900만 유로(한화 약 3,77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남
-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376억 4,800만 유로(한화 약 50조 9,697억 원)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25.7%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130,176.7	132,775	135,379.5	138,857.5	146,629.9	100.0	5.6	3.0
현대식 유통채널	95,893.3	97,884.8	100,559.1	103,340.7	108,982.1	74.3	5.5	3.3
- 슈퍼마켓	43,729.2	44,691.2	46,925.8	48,568.2	52,582.8	35.9	8.3	4.7
- 하이퍼마켓	21,392.4	21,561.9	21,466.0	21,035.4	20,475.6	14.0	△2.7	△1.1
- 할인점	15,677.7	16,414.5	17,230.3	18,488.2	20,059.6	13.7	8.5	6.4
- 편의점	14,827.1	14,942.8	14,657.4	14,965.2	15,584.8	10.6	4.1	1.3
- 포코트 리테일러 ¹	266.9	274.4	279.6	283.8	279.3	0.2	△1.6	1.1
전통식 유통채널	34,283.4	34,890.2	34,820.4	35,516.8	37,647.8	25.7	6.0	2.4

*주1: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주2: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출처: Euromonitor(2021)

- 온라인 식품 시장규모는 238억 6,900만 유로(한화 약 32조 3,150억 원)로 전년 대비 24.0% 증가
 - 이 중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이 전체의 95.2%에 달하는 227억 1,200만 유로(한화 약 30조 7,486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해당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5.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반면 홈쇼핑 식품시장 규모는 감소세로, 2020년 매출액은 기준 전년 대비 5.0% 감소한 11억 5,700만 유로(한화 약 1조 5,664억 원)로 집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10,244.3	13,376.1	16,467.4	19,252.2	23,869.3	100.0	24.0	23.5
- 전자상거래	9,056.0	12,176.0	15,257.7	18,034.0	22,712.0	95.2	25.9	25.8
- 홈쇼핑	1,188.3	1,200.1	1,209.7	1,218.2	1,157.3	4.8	△5.0	△0.7

*출처: Euromonitor(2021)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현대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089억 8,200만 유로(한화 약 147조 4,722억 원)로 집계됨

- (슈퍼마켓)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
 -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및 장갑과 같은 위생용품을 구비하여 제공함
 - 또한 각 매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으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슈퍼마켓 방문자 감소에 대응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Conad (CONAD - Consorzio Nazionale Dettaglianti Srl)	Esselunga (Esselunga SpA)	Coop (Coop Italia scarl)
사진			
설립연도	1962년	1957년	1967년
점유율	21.6%	14.8%	11.0%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하이퍼마켓)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감소
 - 이는 슈퍼마켓보다 매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용률이 감소하였고, 또한 이동 제한으로 슈퍼마켓보다 비교적 외곽에 위치하여 방문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주요 하이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Ipercoop (Coop Italia scarl)	Bennet (Bennet SpA)	Auchan (CONAD - Consorzio)
사진			
설립연도	1967년	1964년	1961년
점유율	28.2%	7.7%	6.9%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할인점) 타 유통채널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유해 매출액 증가 추세
 - 이탈리아 소비자는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이에 주요 할인점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유입을 유도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Carrefour Express (Carrefour SA)	Punto Simply (CONAD-Consorzio)	InCoop (Coop Italia scarl)
사진			
설립연도	2009년	1917년	1967년
점유율	4.8%	4.4%	4.2%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은 접근성이 높아 매출 확대가 가능하였음
 -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유기농, 건강 및 웰빙, 간편식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온라인이나 배송을 통한 제품 구매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는 추세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Despar (Internationale Spar Centrale BV)	Sigma (D IT Distribuzione Italiana Soc Coop)	Conad (CONAD - Consorzio)	Crai (Crai Secom Spa)
사진				
설립연도	1932년	1962년	1962년	1973년
점유율	8.0%	6.2%	5.6%	5.2%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2020년 기준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376억 4,780만 유로(한화 약 50조 9,442억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

-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자 야외에 위치한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외출을 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

<주요 전통시장>

매장명	Porta palazzo	Mercato Settimanale di Forte dei Marmi
사진		

*출처: www.piemonteitalia.eu, tripadvisor

나. 온라인 유통채널

□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매출액은 227억 1,200만 유로(한화 약 30조 7,750억 원)로 최근 5년간 25.8%, 전년 대비 25.9%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전자상거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성장
 -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전자상거래(식품) 플랫폼〉

채널명	supermarket italy.com	Bella Italy food store	EATALY
사진			
설립연도	2009년	2013년	2010년
홈페이지	supermarketitaly.com	bellaitaliafoodstore.com	www.eataly.net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홈쇼핑)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의 4.8%에 불과하며, 시장규모 역시 소폭의 감소세를 보임
 - 이에 홈쇼핑 업계에서는 라이브스트리밍 도입, 온라인 플랫폼과 홈쇼핑의 결합 등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홈쇼핑 채널〉

채널명	Bofrost	staples	Eismann
사진			
설립연도	1987년	1993년	1964년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1



수입 전 준비

-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 인증 선택 취득
 - AEO C : 세관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세관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및 세관검사혜택
 - AEO F : 세관간소 + 보안안전
- 품목 분류 사전심사(BTI)
-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AEO 인증 담당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수출업자가 보내온 EORI 번호 유효성 확인 후 발급

2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제출서류
 1. 수입신고서
 2. 운임보험
 3. 상업송장
 4. 포장명세서
 5. 선하증권
 6. 원산지증명서
 7. 관세가격보고서
 8.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제품정보, 운송수단 정보, 재무정보 등 신고내용 검토 및 세관신고 처리

3



통관 및 검역

- 각 국가마다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4



관세납부

- 수입관세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시 면제
- 표준부가가치세율 : 15 ~ 25%
- 감면부가가치세율 : 5 ~ 20%
- 특별소비세 : 담배, 주류, 석유 등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세관 규정, 수출입 관리 및 감독

5



반출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물품 반입 → ③ 물품신고 → ④수입신고 처리 → ⑤관세납부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단계	내용
적하목록 사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수출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EU의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신고대상은 유럽연합 관세구역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이며, 사전 전자형태로 신고해야 함
물품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지역 수입물품의 통관 전 반입 장소(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며 반입 장소는 아래와 같음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하역 및 검사: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임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 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함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 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함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신고 방식은 아래의 두 종류임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수입신고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며,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검증 서류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관세납부 및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는 관세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 · 관세는 통상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1%) 또는 일부 특정제품 (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 물품세가 부과됨 ※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함 ·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단, 수입신고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 납부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출처: 관세청

나. 검역제도

□ EU의 검역지침에 따라 국경검역소에 소속된 세관 사무소에서만 통관절차를 진행함

- 고기 및 육류 가공품의 경우, EU 수입식품 허가리스트에 등록된 식품만 수입 허가
 - EU국에 도착하는 모든 제품은 검역 대상이며, 이탈리아는 보건부 산하 국경검역소(PIF, Posti d'Ispezione Frontaliera)에서 검역을 실시함
 - 모든 검역 대상은 사전에 국경검역소에 신청하며, 통상 샘플로 실시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 조사가 진행됨
 - 한국의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수출 최종 목적지까지의 위생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함
- 채소 및 농수산물의 경우, EU가 정한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 허가
 - EU가 정한 화학물 기준치(살충제, 질산염, 중금속, 방사능 물질, 첨가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탈리아는 항만국경 검역소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에 확인서(nulla osta all'importazione)를 발급
- 제품이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의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므로 관할 검역소에 검역에 대해 사전 문의·신청해야 함
 - 예를 들어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도착하는 수출품은 사전에 밀라노 말펜사 PIF에 검역을 신청해야함
 - 이탈리아의 모든 PIF가 수입제품에 대한 검역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함
 -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EU국을 경유해 제품이 도착하는 경우 도착 국가에서 검역을 하게 되므로 이탈리아에서 따로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이 경우 제품을 발송한 사람이 수입회사 관할 지역 보건소(ASL)에 검역 결과를 통보해야 함

□ 2017년 1월 1일 수입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 품목 규정이 변경됨

- 해당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명시
 -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해야 하며, EU 혹은 EU 승인된 제3국의 인가 시설로부터 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육류 추출물, 육즙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유지방, 계란	함유량이 전체 20% 미만일 경우만 가능

- 수의학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 변경으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육류 추출물, 육류 분말 및 이를 함유하는 제품(예: 면류 및 육수류)
 - 면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복합식품), 별도의 포장을 동봉하고 있는 형태(복합식품 혹은 육류 제품) 모두 해당
-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수입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변경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도착하는 수화물부터 적용

□ 현재 EU 국가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총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은 수출이 불가함

- 해당 품목 외 수출 가능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수출가능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8)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11)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17)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16)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8)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7)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10)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여주, 감귤묘목

*출처: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히 2021년 7월 5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
 -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anthomonas citri pv. citri ·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 Phyllosticta citricarpa (McAlpine) Van der Aa
수출단지 지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수출단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
재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보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
재배지검역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배지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
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출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p><i>"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i></p>

- 분재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함
- 국화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1) 부록VII,4 : *Thrips palmi* Karny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Thrips palmi* Karny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Thrips palmi* Karny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2) 부록VII,7,b : *Bemisia tabaci* Genn 관련

- 생육 기간 동안 관련된 유럽연합 검역병해충의 증상이 없고,
- *Bemisia tabaci* Genn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Bemisia tabaci* Genn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Bemisia tabaci* Genn 박멸을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3) 부록VII,8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Malloch)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출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Liriomyza sativae* (Blanchard) 및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4) 부록VII,9 : 초본성 다년생 재식용 식물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식물의 부스러기, 꽃 및 과실이 없고,
- 수출 전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하였고,
- 유해 세균,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유사 생명체의 증상이 없고,
-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곰팡이의 증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

5) 부록VII,25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관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가 되었음

6) 부록VII,26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관련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되었거나,
- 공식적인 검사와 실험에 의해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없는 생산지에서 전 생육기간 동안 재배되었다는 증명

※ 소독처리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 라벨링 규정

□ 식품 표기는 EU 라벨링 제도를 따르며, 이탈리아는 자국 농산품 보호를 위해 일부 제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등 자체적인 법안을 도입해 시행

- EU는 건강 및 인체에 직결되는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 성분 등 상세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함
- 라벨링 표시 사항은 모든 식품(음료수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 사항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 사항으로 분류되며, 의무 표시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품명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및 이름 및 주소 또는 EU 내 수입·판매업자
 - 섭취방법(섭취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 Net용량, 영양성분, 알코올도수(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 유럽 내 유통되는 식품(음료수 포함)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가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인자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러리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밀, 귀리, 보리, 호밀 등) · 갑각류 · 계란 · 어류 · 루핀 · 우유(락토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페류 ·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넛, 퀴즐랜드넛) · 깨 · 대두 · 10mg/kg 또는 10mg/liter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
------------------------------------------------------------------------------------------------------------------------------------------------------------------------------------	-------------------------------------------------------------------------------------------------------------------------------------------------------------------------------------------------------------

□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포함 성분 원산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우유, 버터, 요거트, 치즈 제품의 경우 원료 생산지를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함

- 동물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경우 우유 생산지와 해당 제품이 가공된 곳 역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같은 나라 안에서 추출, 가공, 패키징된 경우 하나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생산 단계에서 여러 EU 국가 또는 이외 국가를 거친 경우 모두 다른 라벨을 사용해야 함
- 유럽연합의 ‘원산지보호지정(PDO)’ 또는 ‘지리적보호지침(PGI)’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이미 성분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됨
- 우유를 포함하지만 유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기농 식품 역시 제외됨

□ 이탈리아 농림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파스타면과 쌀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성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라벨링 정책 발표

-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쌀 생산국으로 유럽 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동남아산(베트남 등) 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자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쌀에 원산지 표기화를 의무화 함
- 이에 생산자들은 2018년 2월 16일 해당 규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제품의 라벨과 포장을 교체해야 함

□ 건강식품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 사용이 금지됨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라벨링 규칙을 채택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식품 라벨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 글씨 크기 규정
 - 가공식품 내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있는 성분의 경우 명확한 표기
 - 가공식품의 경우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
 - 식물성 성분 원산지 표기
 - 육류, 생선 포함 식품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
 - 해동 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기
-

○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

○ 식품업체의 다양한 식품 가공 방법을 고려해 책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식음료 주문 증가**
 - 2020년 오프라인 레스토랑의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률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접속해 식사를 주문하고 배달을 받는 비중은 전년 대비 23% 증가
 - 2020년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음료를 주문하는 소비자는 860만 명으로 전년도 750만 명 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2017년 580만 명 대비 42.3% 증가

- **코로나19가 식품 구매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스탓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식음료 소비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57%로 집계
 - 음료 소비에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식품(51%) 대비 높음
 - 식음료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평균 26%, 감소했다는 응답률은 17%로 집계
 - 식음료 소비가 증가했다는 응답 중에서는 식품(36%)이 음료(15%)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식음료 소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에서는 식품(12%)보다 음료(21%) 소비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자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
 - 로마 비즈니스 스쿨 연구센터(Rome Business School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이탈리아인의 82%가 자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식품의 유통 및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급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언제든지 공급 가능한 자국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신선 과채류의 소비가 증가**
 - 이탈리아인의 20%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전보다 더욱 자주 건강에 좋은 음식과 음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63%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
 - 이로 인해 이탈리아인의 약 38%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전보다 더욱 자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
 -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세로, 이탈리아인의 25%가 앞으로 프리미엄 식품에 더욱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2021년

농식품 수출국가정보

폴란드
Poland

[목 차]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3
1. 농업현황	3
2. 수출입현황	6
II. 농식품 시장현황	12
1. 시장개요	12
2. 시장 트렌드	15
3. 농식품 관련 정책	18
III. 농식품 유통현황	21
1. 유통현황 및 특징	21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23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6
1. 수출 프로세스	26
2. 수입제도	27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34

I. 농업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1. 농업현황

가. 농업규모

□ 2020년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Gross Added Value, GVA)는 548억 1,100만 즈워티(한화 약 16조 2,471 억 원)로 전년 대비 1.4% 증가

- 이는 전체 총부가가치(GAV)의 2.6% 수준으로, 농업 부문의 총부가가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2%의 감소세를 보임

〈농업 부문 총부가가치(GVA) 및 비중(2016~2020)〉

(단위 : 백만 즈워티,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GVA ¹⁾	전체	1,646,287	1,747,525	1,857,482	2,016,064	2,045,244	1.4	5.6
	농업 ²⁾	47,281	57,154	49,611	53,127	54,811	3.2	3.8
	비중	2.8	3.2	2.6	2.6	2.6	△3.7	△0.2

* 주1 : 당해년가격 기준 GVA

* 주2 : 농축임수산업 포함

* 출처 : 폴란드 통계청(2021. 6월 기준)

- 2018년 농촌인구 1,534만 4,000명, 농업 고용인구 238만 5,600명으로 집계됨
 - 농촌인구는 2015년 이후 연평균 0.2% 수준으로 증가하며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농업 고용인구는 연평균 0.1%의 미세한 감소세를 보임

〈농업 고용인구(2015~2018)〉

(단위 :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전년비 (17/18)	연평균 (15/18)
전체 고용인구	14,504.3	149,644	153,807	15,615	1.5	2.5
농업 고용인구	2,389.4	2,391	2,392	2,389	△0.3	△0.1
농업 인구비중	16.5	16.0	15.5	15.3	-	-

* 주1 : 폴란드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2021.09.07. 기준)

* 출처 : 폴란드 통계청(2021. 9월 기준)

나. 주요 생산품목 및 규모

□ 2019년 농축산물 생산 규모 전년 대비 7.0% 증가한 1,205억 4,820만 즈워티(한화 약 36조 7,973억 원)로 집계

- 농산물 생산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89억 8,280만 즈워티(한화 약 18조 45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1%의 증가세
- 축산물 생산액 전년 대비 2.9% 증가한 615억 6,540만 즈워티(한화 약 18조 7,928억 원)로 연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임

〈농업 총생산액(2015~2019)〉

(단위 : 백만 즈워티, %)

구분	2015	2017	2018	2019	전년비 (19)	연평균 (15/19)
농업 총생산액	98,638.3	115,624.7	112,637.9	120,548.2	7.0	6.9
농산물	49,436.1	56,106.6	52,778.5	58,982.8	11.8	6.1
(비중)	48.9	48.5	46.9	48.9	-	-
축산물	49,202.2	59,518.1	59,859.4	61,565.4	2.9	7.8
(비중)	40.8	51.5	53.1	51.1	-	-

* 주1 : 폴란드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2021.09.07. 기준)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Agriculture in 2019)

□ 곡물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사탕무, 감자 등이 주로 생산됨

- (곡물) 전년 대비 15.7% 증가한 3,354만 7,000톤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202만 4,000톤으로, 전체 곡물 생산량의 35.8% 차지
 - 호밀 생산량은 307만 9,000톤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으며, 전체 곡물 생산량의 9.2%를 차지
- (사탕무) 전년 대비 3.5% 감소한 1,334만 9,000톤이 생산되었으며,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0.3%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 (감자) 전년 대비 39.7% 증가한 905만 6,000톤이 생산되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

〈주요 농산물 생산량(2016~2020)〉

(단위 : 천 톤,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곡물 전체	29,849	31,925	26,780	28,990	33,547	100.0	15.7	3.0
밀	10,828	11,666	9820	11,012	12,024	35.8	9.2	△2.8
호밀	2,200	2,674	2,167	2,461	3,079	9.2	25.1	△4.1
옥수수	N/A	4,022	3,864	3,734	N/A	N/A	N/A	△3.6
사탕무	13,524	15,733	14,303	13,837	13,349	100.0	△3.5	△0.3
감자	8,624	8,956	7,312	6,482	9,056	100.0	39.7	1.2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e)(2021. 6월 기준)

□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6,382천 톤으로, 이 중 계육 생산이 절반 이상(51.1%)을 차지

- 계육 생산량은 전년도와 유사한 326만 4,000톤으로 집계
 - 뒤이어 돈육 생산량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233만 톤으로 집계되어 전체 축산물 생산량의 36.5%를 차지
 - 우육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77만 6,000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미미한 수준으로 말고기(0.1%), 송아지 고기(0.1%), 양고기(0.02%)가 생산
- 우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21억 800만 리터, 달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2% 감소한 5억 2,500만 개로 집계

〈축산물 생산량(2017~2020)〉

(단위 : 천 톤, 백만 리터, 백만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7/20)
전체	4,815	5,186	6,234	6,382	100.0	2.4	9.8
가금류	2,316	2,597	3,263	3,264	51.1	0.03	12.1
돼지	1,894	1,973	2,153	2,330	36.5	8.2	7.1
소	563	571	800	776	12.2	△3.0	11.3
말	-	-	10	7	0.1	△30.0	-
송아지	-	-	5	4	0.1	△20.0	-
양	-	-	3	3	0.02	-	-
우유(백만 리터)	13,305	13,768	11,827	12,108	100.0	2.4	△3.1
달걀(백만 개)	10,998	11,814	823	525	100.0	△36.2	△63.7

* 주 : 육류 생산량은 도축 후의 무게를 기준으로 산정

* 출처 : 폴란드 통계청 농업통계연보(Statistical Yearbook of Agriculture)(2021. 6월 기준)

2. 수출입현황

가.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0년 농식품 수출액은 297억 7,533만 달러(한화 약 33조 7,949억 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

- 주요 수출국은 독일(21.9%), 영국(10%), 네덜란드(5.6%)로 전년 대비 모두 수출 증가세를 보임
 - 독일로의 수출액은 65억 1,156만 7,000달러(한화 약 7조 3,743억 원)로 전년 대비 8.3% 증가
 - 對영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29억 8,283만 9,000달러(한화 약 3조 3,780억 원), 네덜란드로의 수출액 전년 대비 3.6% 증가한 16억 7,937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9,018억 원)로 집계
- 폴란드의 對한국 수출액은 6,145만 8,000달러(한화 약 696억 원)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나, 201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9.8%로 증가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2,184,828	25,292,047	27,556,765	27,790,869	29,775,330	100.0	7.1	7.6
1 독일	4,734,011	5,558,548	6,066,256	6,014,139	6,511,567	21.9	8.3	8.3
2 영국	2,158,747	2,502,794	2,818,932	2,776,632	2,982,839	10.0	7.4	8.4
3 네덜란드	1,140,430	1,509,633	1,722,371	1,621,530	1,679,376	5.6	3.6	10.2
4 프랑스	1,132,382	1,232,430	1,435,274	1,450,814	1,610,108	5.4	11.0	9.2
5 체코	1,567,641	1,399,919	1,502,935	1,418,522	1,402,889	4.7	△1.1	△2.7
6 이탈리아	1,078,788	1,239,659	1,234,184	1,252,816	1,181,153	4.0	△5.7	2.3
7 루마니아	580,391	700,821	819,966	849,786	864,902	2.9	1.8	10.5
8 헝가리	562,296	644,571	735,016	774,753	784,614	2.6	1.3	8.7
9 슬로바키아	689,194	689,554	751,517	729,793	744,981	2.5	2.1	2.0
10 우크라이나	295,036	399,393	480,917	580,317	740,719	2.5	27.6	25.9
⋮								
48 대한민국	42,237	63,645	57,358	57,753	61,458	0.2	6.4	9.8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18.6%),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11.3%), 낙농품(9.3%), 각종 조제 식료품(8.1%) 등

- 육과 식용 설육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55억 3,432만 9,000달러(한화 약 6조 3,700억 원)로 집계
- 뒤이어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33억 4,340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8,483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낙농품 수출액은 전년도와 유사(0.5%↓)한 수준인 27억 6,242만 3,000달러(한화 약 3조 1,795억 원)가 수출
- 이 외에도 조제 식료품 24억 2,533만 8,000달러(한화 약 2조 7,916억 원), 어류 및 육류 조제품 22억 3,871만 2,000달러(한화 약 2조 5,768억 원) 등이 수출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22,184,828	25,292,047	27,556,765	27,790,869	29,775,330	100.0	7.1	7.6
1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4,516,167	5,420,172	6,024,792	5,857,193	5,534,329	18.6	△5.5	5.2
2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2,247,194	2,631,687	2,921,931	3,121,814	3,343,401	11.2	7.1	10.4
3 낙농품 (HS Code 04)	1,950,925	2,816,569	2,865,698	2,777,152	2,762,423	9.3	△0.5	9.1
4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1,666,335	1,946,796	2,188,720	2,286,620	2,425,338	8.1	6.1	9.8
5 어류·육류 조제품 (HS Code 16)	1,448,083	1,772,991	2,013,195	2,009,571	2,238,712	7.5	11.4	11.5
6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654,985	1,621,209	1,827,032	1,943,655	2,153,442	7.2	10.8	6.8
7 곡물 (HS Code 10)	1,210,468	989,563	962,616	930,652	1,953,632	6.6	109.9	12.7
8 채소, 과일, 견과류의 부분 및 그 조제품 (HS Code 20)	1,313,867	1,390,333	1,640,896	1,554,027	1,558,122	52	0.3	4.4
9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66,844	951,495	1,102,905	1,161,866	1,349,184	4.5	16.1	11.7
10 식용 과일 및 견과류 (HS Code 08)	1,189,116	1,284,014	1,333,831	1,286,563	1,344,635	4.5	4.5	3.1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2020년 농식품 수입액은 183억 4,802만 5,000달러(한화 약 21조 1,186억 원)로 전년 대비 5.8% 증가함

- 주요 수입국은 독일(26.0%), 네덜란드(13.1%), 스페인(7.6%), 이탈리아(5.5%) 순
 - 독일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47억 6,564만 1,000달러(한화 약 5조 3,994억 원)로 집계
 - 네덜란드산 수입액은 24억 546만 7,000달러(한화 약 2조 7,265억 원)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
 - 스페인과 벨기에산 농식품 수입액은 각각 14억 183만 7,000달러(한화 약 1조 5,896억 원), 10억 1,593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1,525억 원)로 각각 전년 대비 9.1%, 8.7% 증가
- 한국산 농식품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818만 4,000달러(한화 약 206억 원)가 수입되었으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13,959,963	16,130,934	17,252,990	17,343,968	18,348,025	100	5.8	7.1	
1	독일	3,920,545	4,638,705	4,660,754	4,625,180	4,765,641	26.0	3.0	5.0
2	네덜란드	1,910,568	2,247,193	2,434,714	2,399,932	2,405,467	13.1	0.2	5.9
3	스페인	989,699	1,137,430	1,193,413	1,299,452	1,401,837	7.6	7.9	9.1
4	이탈리아	727,175	865,855	952,445	931,039	1,015,939	5.5	9.1	8.7
5	벨기에	732,990	805,207	889,609	936,892	944,522	5.1	0.8	6.5
6	프랑스	596,641	699,909	782,397	798,600	801,602	4.4	0.4	7.7
7	영국	461,371	520,291	589,498	609,431	687,459	3.7	12.8	10.5
8	우크라이나	403,413	488,562	558,497	615,421	671,344	3.7	9.1	13.6
9	체코	557,716	596,178	622,189	607,621	656,329	3.6	8.0	4.2
10	덴마크	410,663	474,423	443,671	414,407	439,571	2.4	6.1	1.7
⋮									
52	대한민국	8,735	14,915	17,848	16,351	18,184	0.1	11.2	20.1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 주요 수입 품목은 식용 과실 및 견과류(12.6%), 육과 식용 설육(9.8%), 코코아와 그 조제품(8.4%), 각종 조제 식료품(7.5%), 음료·주류·식초(7.3%) 등

- 식용 과실 및 견과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3억 2,156만 5,000달러(한화 약 2조 6,721억 원)로 집계
- 육과 식용 설육 수입액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17억 9,065만 4,000달러(한화 약 2조 610억 원)로 집계된 반면, 코코아와 그 조제품 수입액은 15억 3,683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7,689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
- 이 외에도 각종 조제 식료품 13억 7,101만 6,000달러(한화 약 1조 5,780억 원), 음료·주류·식초 13억 4,247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5,452억 원) 등이 수입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20)	전년비(19/20)	연평균(16/20)
전체	13,959,963	16,130,934	17,252,990	17,343,968	18,348,025	100.0	5.8	7.1
1 식용 과실 및 견과류 (HS Code 08)	1,622,051	2,018,161	2,125,004	2,059,467	2,312,565	12.6	12.3	9.3
2 육과 식용 설육 (HS Code 02)	1,687,406	1,940,372	1,995,343	1,955,290	1,790,654	9.8	△8.4	1.5
3 코코아와 그 조제품 (HS Code 18)	1,178,231	1,274,985	1,341,729	1,353,828	1,536,835	8.4	13.5	6.9
4 각종 조제 식료품 (HS Code 21)	1,111,963	1,255,645	1,393,476	1,327,247	1,371,016	7.5	3.3	5.4
5 음료·주류·식초 (HS Code 22)	847,623	1,003,906	1,144,027	1,213,609	1,342,479	7.3	10.6	12.2
6 동물성·식물성 유지류 (HS Code 15)	921,195	1,105,426	1,091,774	1,106,144	1,306,915	7.1	18.2	9.1
7 낙농품 (HS Code 04)	998,932	1,137,455	1,179,541	1,185,027	1,197,469	6.5	1.0	4.6
8 식용의 채소, 뿌리·괴경 (HS Code 07)	786,186	876,542	972,770	1,148,626	1,134,387	6.2	△1.2	9.6
9 곡물 조제품 및 베이커리류 (HS Code 19)	743,023	954,162	1,011,911	1,000,046	1,075,432	5.9	7.5	9.7
10 곡물 (HS Code 20)	715,917	833,927	916,558	931,963	1,002,589	5.5	7.6	8.8

*주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주2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출처 : Global Trade Atlas (2021.6월 기준)

나. 한국의 對폴란드 농식품 수출현황

□ 2020년 한국산 농식품의 對폴란드 수출액은 2,037만 2,600달러(한화 약 234억 원)로 전년 대비 27.6% 감소

- 농산물 수출액이 전체의 87.4% 차지하며 총 1,797만 6,000달러(한화 약 207억 원) 규모로 수출
- 축산물 수출액은 10만 2,000달러(한화 약 1억 원)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한 반면, 임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5% 감소한 2만 2,000달러(한화 약 2,531만 원)로 집계

〈한국산 농식품 수출 규모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24,424	31,276	33,488	28,151	20,373	100.0	△27.6	△4.4
농산물	23,386	30,329	32,251	26,457	17,796	87.4	△32.7	△6.6
축산물	284	1	79	90	102	0.5	13.5	△22.6
임산물	148	31	50	103	22	0.1	△78.5	△37.8

*출처 : KMI 농식품 수출정보 (2021.6월 기준)

□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44.5%), 기타 음료(12.3%), 라면(5.0%), 물(3.0%), 조제·저장 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기타(2.8%) 등

-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906만 3,000달러(한화 약 104억 원)로 집계, 전체 농식품(농·축·임산물) 수출액의 44.5%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으로 나타남
- 기타 음료(알코올 미함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8% 감소한 249만 6,000달러(한화 약 29억 원),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1만 8,000달러(한화 약 14억 원)로 집계
- 설탕, 감미료, 향미가 첨가된 물 수출은 전년 대비 208.4% 증가하여 60만 5,000달러(한화 약 6억 9,605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조제·저장 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기타 품목 수출액은 57만 4,000달러(한화 약 6억 6,039만 원)로 전년 대비 7.0% 감소

〈對폴란드 수출 상위 5개 품목 (2016~2020)〉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6/20)
전체	50,952	52,483	33,488	28,151	20,373	100.0	△27.6	△20.5
1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674	6,818	7,954	10,117	9,063	44.5	△10.4	91.5
2 기타 음료(알코올 미함유)	N/A	6,592	6,873	4,525	2,496	12.3	△44.8	△27.7
3 라면	667	775	1,115	1,150	1,218	6.0	5.9	16.2
4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N/A	N/A	51	196	605	3.0	208.4	243.4
5 조제·저장 처리한 과실 및 견과류 기타	28	211	161	617	574	2.8	△7.0	113.2

*주1 : 주요 수출 농식품 중 사료, 담배 등은 제외함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1.6월 기준)

II. 농식품 시장현황

1. 시장개요

가. 시장규모 및 특징

□ 2020년 식품시장 규모는 536억 2,800만 달러(한화 약 62조 476억 원)로 전년 대비 12.8% 증가

-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11억 5,400만 달러(한화 약 36조 452억 원)로 집계
 - 육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14억 5,600만 달러(한화 약 13조 2,546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21.4% 차지
 - 뒤이어 낙농품 및 난류 시장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한 76억 9,700만 달러(한화 약 8조 9,054억 원)로 집계되며 전체 시장의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소 시장규모는 58억 4,500만 달러(한화 약 6조 7,627억 원)로 전년 대비 11.8% 증가, 과일 및 견과류 시장규모는 48억 1,100만 달러(한화 약 5조 5,663억 원)로 전년 대비 11.9% 증가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24억 7,400만 달러(한화 약 26조 24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41.9% 차지
 - 이 중 스낵류 시장이 20.2%를 차지하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08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2조 5,164억 원)로 집계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8.8% 증가한 66억 2,000만 달러(한화 약 7조 6,627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편의식품 시장규모는 25억 2,900만 달러(한화 약 2조 9,273억 원)로 전년 대비 17.5% 증가
 - 이 외에도 소스 및 향신료 시장규모 11억 9,5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32억 원), 스프레드 및 당류 시장규모 10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조 2,316억 원)로 집계

〈식품시장 규모(2016~2020)〉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전체	44,071	44,505	45,857	47,554	53,628	100.0	12.8	5.0
신선식품	25,943	26,216	27,002	28,001	31,154	58.1	11.3	4.7
- 육류	9,531	9,631	9,913	10,269	11,456	21.4	11.6	4.7
- 낙농품 및 난류	6,498	6,556	6,744	6,986	7,697	14.4	10.2	4.3
- 채소류	4,823	4,879	5,032	5,227	5,845	10.9	11.8	4.9
- 과일 및 견과류	3,962	4,010	4,138	4,300	4,811	9.0	11.9	5.0
- 유지류	1,129	1,140	1,175	1,219	1,345	2.5	10.3	4.5
가공식품	18,128	18,289	18,855	19,553	22,474	41.9	14.9	5.5
- 스낵류	8,802	8,863	9,121	9,461	10,818	20.2	14.3	5.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199	5,240	5,384	5,571	6,620	12.3	18.8	6.2
- 편의식품	1,968	1,977	2,066	2,152	2,529	4.7	17.5	6.5
- 소스 및 향신료	1,039	1,050	1,083	1,124	1,195	2.2	6.3	3.6
- 스프레드 및 당류	893	930	966	1,001	1,064	2.0	6.3	4.5
- 영유아용 식품	227	229	235	244	248	0.5	1.6	2.2

*출처: STATISTA(2021)

나. 소비인구 및 현황

□ 2020년 인구 수는 3,826만 5,000명, 중위연령은 42세로 나타남

-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6.0%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18.6%, 14세 이하 15.4%로 집계
- 14세 이하 유아 및 청소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
 - 동년 14세 이하 유아 및 청소년은 588만 8,000명으로 1990년 949만 5,000명 대비 38.1%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712만 명으로 1990년 387만 3,000명 대비 83.8% 증가

〈인구 추이(1990/2020)〉

(단위: 천 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	증감율 (1990/2020)
전체 인구 수	38,073	38,254	38,530	38,383	38,265	0.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9,495	7,294	5,856	5,888	5,878	△38.1
비중	(24.9%)	(19.1%)	(15.2%)	(15.3%)	(15.4%)	
15~64세	24,705	26,234	27,484	25,547	25,267	2.3
비중	(64.9%)	(68.6%)	(71.3%)	(66.6%)	(66.0%)	
65세 이상	3,873	4,726	5,190	6,947	7,120	83.8
비중	(10.2%)	(12.4%)	(13.5%)	(18.1%)	(18.6%)	

*출처: 폴란드 통계청(2021)

□ 2020년 가계 가처분소득은 2만 4,220달러(한화 약 2,801만 원)로, OECD의 분류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 해당

- 동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9,500달러(한화 약 5,725만 원)로 전년 대비 1.7% 감소

<1인당 연간 국민총소득(GNI) 추이(2016~2020)>

(단위: 10억 유로,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43,642	45,652	48,096	50,364	49,500	△1.7	3.2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919즈위티(한화 약 58만 원)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210즈위티(한화 약 37만 원)로 집계

- 2016년 이후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연평균 1.7% 증가에 그침

<1인당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2016~2020)>

(단위: 즈위티,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비 (19/20)	연평균 (15/20)
1인당 월평균 소득	1,475	1,598	1,693	1,819	1,919	5.5	6.8
1인당 월평균 지출	1,132	1,176	1,187	1,252	1,210	△3.4	1.7

*출처: WorldBank(2021)

□ 2020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1,417달러(한화 약 164만 원)로 전년 대비 12.9% 증가

- 신선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23달러(한화 약 95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21.4% 차지
 - 육류 소비액이 1인당 연간 303달러(한화 약 35만 원)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낙농품 및 난류 203달러(한화 약 23만 원), 채소류 154달러(한화 약 18만 원)로 나타남
 -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은 1인당 연간 127달러(한화 약 15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유지류는 1인당 연간 36달러(한화 약 4만 원) 소비
 - 과일 및 견과류 소비액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하였고, 뒤이어 채소류 11.9%, 육류 11.7% 증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594달러(한화 약 69만 원)로 전체 식품 소비액의 41.9% 차지
 - 스낵류와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각각 286달러(한화 약 33만 원), 175달러(한화 약 20만 원)로 높게 나타남
 - 편의식품 소비액은 67달러(한화 약 8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소스 및 향신료 32달러(한화 약 원), 스프레드 및 당류 28달러(한화 약 3만 원)가 소비됨
 - 가공식품 중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이 전년 대비 19.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편의식품 17.6%, 스낵류 1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 유형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6~2020)〉

(단위: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중
전체	1,160	1,173	1,209	1,255	1,417	100.0
신선식품	683	691	712	739	823	58.1
- 육류	251	254	261	271	303	21.4
- 낙농품 및 난류	171	173	178	184	203	14.4
- 채소류	127	129	133	138	154	10.9
- 과일 및 견과류	104	106	109	114	127	9.0
- 유지류	30	30	31	32	36	2.5
가공식품	477	482	497	516	594	41.9
- 스낵류	232	234	240	250	286	20.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37	138	142	147	175	12.3
- 편의식품	52	53	54	57	67	4.7
- 소스 및 향신료	27	28	29	30	32	2.2
- 스프레드 및 당류	24	25	25	26	28	2.0
- 영유아용 식품	6	6	6	6	7	0.5

*출처: STATISTA(2021)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규모 제외)

2. 시장 트렌드

가. 주요 트렌드

□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육류보다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 발생

- 스탠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채식주의자(비건 및 베지테리언)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
-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8%가 더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폴란드 중앙통계청(GUS)은 소비자의 28%가 건강을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9년 발표된 폴란드 육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
 - 2019년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은 61.0kg으로 2018년 76.9kg에서 15.9kg 감소
- 이에 폴란드 육류 생산업계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육류 제품을 출시하려는 동향을 보임

□ 소비자의 인식 향상으로 무첨가(Free from) 식품시장 성장세

- 식품알레르기, 유당불내증 등 식품 섭취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무첨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무첨가 식품 시장규모는 9억 4,100만 즈워티(한화 약 2,788억 원)로 전년 대비 13.8% 증가
- 폴란드에서 주로 유통되는 무첨가 식품은 크게 알레르기 유발물질(대두, 우유, 계란 등) 미함유 제품, 락토오스프리, 글루텐프리 제품 등으로 분류
- 아직까지 무첨가 식품의 97.4%는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무첨가 식품 판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슈퍼마켓(26.0%)이며, 하이퍼마켓(23.7%)이 그 뒤를 이음

나. 이슈품목

□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음

- 건강을 위해 고칼로리 식단을 제한하는 식품 섭취가 주목받으며 영양과 칼로리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다이어트 도시락이 주목받고 있음
 - 2020년 다이어트 도시락 시장규모는 약 10억 즈워티(한화 약 2,964억 원)로 2018년 6억 즈워티(한화 약 1,779억 원) 대비 66.7% 증가
 - 또한 폴란드 내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 업체 수는 2017년 350개사에서 2019년 650개사로 85.7% 증가
- 여성 소비자의 경우 칼로리가 낮은 식단 구성을 선호하며, 남성 소비자의 경우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고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도시락 판매업체 쿠쿠와(Kukula Healthy Food)는 다이어트 도시락을 10개의 유형(칼로리별, 채식주의자용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

<다이어트 도시락 제품 예시>



*출처: Kukula Healthy Food

□ 소득수준 향상 및 유기농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수요 증가

- 과거 유기농식품은 주로 전문 판매점에서만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유기농식품을 취급하는 현대식 유통채널이 증가
- 이에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

<유기농 식품 및 매장 예시>



*출처: www.biopoland.pl, serwiskorporacyjny.carrefour.pl

3. 농식품 관련 정책

□ 폴란드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비만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특정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

- 설탕, 카페인, 타우린이 함유된 음료와 300ml 용량으로 판매되는 특정 알코올 음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
 - 설탕이나 첨가당이 함유된 음료에는 ℓ 당 0.5즈워티(한화 약 148원)의 세금이 고정적으로 부과되며, 카페인이나 타우린이 함유된 음료는 기본 설탕세에 0.1즈워티(한화 약 30원)가 추가
 - 알코올, 감미료 등이 첨가된 음료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세금은 ℓ 당 1.2즈워티(한화 약 356원)로 나타남
- 과채주스와 에너지 음료, 특수 목적으로 유통되는 의료용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
- 폴란드 시장감시센터(Market Monitoring Center, CMR)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판매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설탕세 도입으로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10% 이상 인상되었고, 향료를 첨가한 미네랄 워터와 아이스티의 가격은 15% 인상

□ 「유기농식품의 가공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REGULATION (EU) No.2018/848)」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

- 이는 2009년 발효된 현행 유럽 내 유기농 규정(EC no.834/2007)의 개정판으로,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또한 EU 유기농 로고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본래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2차 법안 제정에 제약이 발생해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함
- 이번 개정안에서 수정된 유기농식품 관련 주요 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①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②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③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을 골자로 함
 -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농은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으로 정의되었으나, 2022년 발효 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물질)’로 정의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 개정)**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의 사용을 허용
 - 기존 규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음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유기가공식품으로 생산 시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나노물질을 함유한 식품사용’과 ‘식품 가공처리 시 유전공학기술(GMOs) 및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개정)** 유기농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 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
 - 기존 규정에서는 (i) 사전 포장된 유기농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 (ii)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ii) 항목을 수정하여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확대 적용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이 발효되어 EU로 제품 수출 시 추가 인증 없이 유기농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 유기농 제품 인정 범위 및 유기농식품 표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4월부터 EU 국가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경우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 적용

- 복합식품이란, ‘육류, 뼈와 내장과 같은 부산물, 수산물, 유제품, 난류, 꿀, 로열젤리, 젤라틴, 콜라겐 등 동물성 재료를 가공한 동물성 가공식품과 제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필수적이거나 맛, 향, 점성 등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성 재료가 혼합된 식품’ 을 의미
 -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은 식물성 오일과 수산물이 혼합된 식품이지만, 식물성 오일은 품질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물질이므로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굴 추출물(수산물)과 간장(식물성 재료)이 혼합된 굴 소스는 복합식품에 해당
- 기존 규정에서 복합식품 적용 기준은 ①함량이 무관한 식품과 ②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식품으로 분류
 - **(함량 무관 식품)** 식육 또는 유제품을 함유한 비 상온 보관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의 함량과 상관없이 복합식품으로 규정
 - **(함량 기준 분류)** 식육 및 비상온 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 유래 제품의 동물성 가공식품 함유량(50%)을 기준으로 분류

- 개정된 규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①비 상온 보관 식품 ②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 ③상온 보관 복합식품으로 분류
 - ‘비 상온 보관 식품’과 ‘식육 함유 상온 보관 식품’은 수출입 검역 품목 대상으로 수출국의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ion)를 제출하도록 함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제출이 요구됨
 - 다만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식품(파스타, 빵, 제과류 등)은 수입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
 - 또한 육류를 함유하지 않은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유제품, 난류, 수산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품목이 EU가 승인한 수입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III. 농식품 유통현황

1. 유통현황 및 특징

□ 2020년 오프라인 유통채널 식품시장 규모는 2,560억 1,340만 유로(한화 약 346조 8,802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임

- 전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현대식 유통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3% 증가함
 - 이 중 할인점(34.7%)과 편의점(24.3%)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할인점의 매출액은 885억 6,000만 유로(한화 약 119조 9,589억 원), 편의점의 매출액은 621억 9,000만 유로(한화 약 84조 2,395억 원)로 집계
 - 뒤이어 슈퍼마켓(15.4%) 334억 4,500만 유로(한화 약 45조 3,029억 원), 하이퍼마켓(9.6%) 245억 9,500만 유로(한화 약 33조 3,152억 원), 포코트 리테일러(4.6%) 118억 700만 유로(한화 약 15조 9,93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동년 전통식 유통채널 매출액은 291억 1,700만 유로(한화 약 39조 4,404억 원)로 전체 오프라인 식품시장의 11.4% 차지

〈오프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219,791.6	230,603.6	240,786.6	251,309.4	256,013.4	100.0	1.9	3.9
현대식 유통채널	177,374.9	190,157.0	201,417.3	215,884.8	226,896.1	88.6	5.1	6.3
- 할인점	60,568.1	67,499.9	72,783.2	80,221.1	88,859.6	34.7	10.8	10.1
- 편의점	46,762.8	50,353.4	53,143.4	58,215.3	62,190.3	24.3	6.8	7.4
- 슈퍼마켓	31,374.5	32,742.3	34,917.7	37,177.2	39,444.5	15.4	6.1	5.9
- 하이퍼마켓	29,472.7	29,843.2	28,678.9	27,923.3	24,594.7	9.6	△11.9	△4.4
- 포코트 리테일러	9,196.8	9,718.2	11,894.2	12,347.9	11,807.1	4.6	△4.4	6.4
전통식 유통채널	42,416.7	40,446.6	39,369.2	35,424.6	29,117.4	11.4	△17.8	△9.0

*주1: 포코트리테일러(Forecourt Retailer) - 주유소 내 위치한 소규모 매점

*주2: 하이퍼마켓(Hypermarket): 슈퍼마켓·대형 할인점·백화점의 형태가 결합된 대규모 소매 점포

*출처: Euromonitor(2021)

-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1% 증가한 71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96조 6,422억 원)로, 이 중 99.7%가 전자상거래로 분류
 - 전자상거래 식품시장 규모는 711억 2,900만 유로(한화 약 96조 3,563억 원)로 전년 대비 42.3%, 최근 5년간 연평균 25.1%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홈쇼핑 식품시장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4% 감소한 2억 1,100만 유로(한화 약 2,858억 원)로 집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별 시장규모(2016~2020)〉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	전년비 (19/20)	연평균 (19/20)
합계	29,419.4	36,372.6	43,249.6	50,206.3	71,339.7	100.0	42.1	24.8
- 전자상거래	29,079.9	36,079.3	43,006.1	49,975.8	71,128.5	99.7	42.3	25.1
- 홈쇼핑	339.5	293.3	243.5	230.5	211.2	0.3	△8.4	△11.2

*출처: Euromonitor(2021)

2. 주요 유통채널 현황

가. 오프라인 유통채널

□ 2020년 현대식 유통채널의 식품 시장규모는 256013백만 유로(한화 약 원)로 전년 대비 1.9% 증가

- (할인점)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점의 장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
 - 주요 할인점들은 소비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율을 더욱 높이거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전략을 취함

<주요 할인점 브랜드>

매장명	Biedronka	Lidl	Netto
사진			
설립연도	1995년	n/a	1995년
점유율	67.1%	26.6%	4.4%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편의점) 소비지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약에도 식료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 잡음
 - 일부 편의점 채널은 커피 및 기타 식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코로나 19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여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는 등의 차별화를 꾀함

<주요 편의점 브랜드>

매장명	Lewiatan (Eurocash SA)	ABC (Eurocash SA)	Zabka (Zabka Polska Sp zoo)
사진			
설립연도	1994년	1993년	1998년
점유율	13.4%	19.6%	15.3%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슈퍼마켓)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방문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슈퍼마켓 체인에서 옴니채널 기능을 포함한 온라인 스토어 개발에 집중
 -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해주거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소비자의 차 트렁크에 제품을 실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

〈주요 슈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Dino (Dino Polska SA)	Stokrotka (Vilnius Prekyba UAB)	Intermarché (ITM Entreprises SA)
사진			
설립연도	1999년	1994년	1997년
점유율	22.5%	10.8%	12.6%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하이퍼마켓) 소비자들이 거주지에 인접한 소형 매장(편의점, 슈퍼마켓)이나 다양한 품목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점을 이용하면서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임

〈주요 하이퍼마켓 브랜드〉

매장명	Tesco Extra (Tesco Plc)	Carrefour (Carrefour SA)	Kaufland (Schwarz Beteiligungs GmbH)	Auchan (Auchan Group SA)
사진				
설립연도	2008년	1997년	1984년	1961년
점유율	14.0%	16.1%	28.1%	34.0%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 전통식 유통채널의 매출액은 291억 1,740만 유로(한화 약 39조 4,507억 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 수준으로 감소

- 현대식 유통채널의 이용률 증가로 전통식 유통채널을 찾는 소비자가 감소

〈주요 전통시장〉

매장명	Polenmarkt Hohenwutzen	market place
사진		

*출처: Euromonitor(2021), tripadvisor

나. 온라인 유통채널

- 2020년 온라인 식품 유통채널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2.1% 증가한 713억 4,000만 유로(한화 약 96조 6,678억 원) 집계, 이 중 99.7%가 전자상거래(온라인 플랫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코로나19로 많은 식품 소매업체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식품시장이 성장

<주요 전자상거래 브랜드>

채널명	Biedronka	Zabka	Stokrotka	Spar
사진				
설립연도	1995년	1998년	1994sus	1996년
홈페이지	biedronka.pl	zabka.pl	stokrotka.pl	e-spar.com.pl

*출처: 각 홈페이지

- (홈쇼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홈쇼핑 역시 침체가 계속되어 2020년 21억 1,220만 즈위티(한화 약 6,413억 원) 집계
 - TV 홈쇼핑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진 노인층이 잠재고객으로 유지되고 TV로 오락프로 시청을 좋아하는 폴란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TV 홈쇼핑에 할당된 방송시간과 시청자의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 Bonprix는 2020년에도 홈쇼핑 채널 내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Mango 24는 2020년 8월을 끝으로 종료됨

<주요 홈쇼핑 채널>

채널명	Bonprix	Yves Rocher	TV Okazje
사진			
점유율	57.8%	4.8%	3.9%
홈페이지	https://www.bonprix.pl/	https://www.yves-rocher.pl/	https://www.tvokazje.pl/

*출처: Euromonitor(2021), 해당 업체 홈페이지

IV.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수출 프로세스

1



수입 전 준비

- 공인경제운영인(AEO) 중 1개 인증 선택 취득
 - AEO C : 세관간소 인증으로 절차 간소화
 - AEO S : 세관안전 인증으로 사전신고 용이 및 세관검사혜택
 - AEO F : 세관간소 + 보안안전
- 품목 분류 사전심사(BTI)
- 세관등록번호(EORI) 발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AEO 인증 담당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수출업자가 보내온 EORI 번호 유효성 확인 후 발급

2



수입신고

- 수입신고
- 제출서류
 1. 수입신고서
 2. 운임보험
 3. 상업송장
 4. 포장명세서
 5. 선하증권
 6. 원산지증명서
 7. 관세가격보고서
 8.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제품정보, 운송수단 정보, 재무정보 등 신고내용 검토 및 세관신고 처리

3



통관 및 검역

- 각 국가마다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업무 :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진행

4



관세납부

- 수입관세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시 면제
- 표준부가가치세율 : 15 ~ 25%
- 감면부가가치세율 : 5 ~ 20%
- 특별소비세 : 담배, 주류, 석유 등

각 국가별 세관당국
· 세관 규정, 수출입 관리 및 감독

5



반출

2. 수입제도

가. 통관제도

□ 폴란드의 농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①적하목록 사전제출 → ②물품 반입 → ③ 물품신고 → ④검사 및 검역 → ⑤관세납부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됨

단계	내용
적하목록 사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인이 관할 세관에 제출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상세 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AEO 인증 여부 포함) - 운송 항로 등 운항 정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 적하목록 미제출(1회 이상) - 적하목록 허위 제출(3회 이상)
물품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지역 수입 물품의 통관 前 반입 장소(보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지정 세관 사무소 - 세관 지정 내지는 승인한 기타 장소 - 자유지역(Free Zone) - 상기 장소에서의 물품 반출, 검사 및 샘플 채취 등은 세관 허가 대상 ○ 수입물품 도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해당자는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수입물품 운송인 및 대리인, 통관절차 이행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관 즉시 통지 후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 가능 - 검사, 샘플 채취 및 운송 수단 검사 목적으로 세관은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포장 개봉 요구 가능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신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의 통관 시스템 전송 방식(인터넷) - 서면 신고서 세관 제출 방식 ○ 세관은 일부 수입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제출된 수입신고서 관련 서류 검증 및 추가 자료 제출 - 수입물품 검사, 분석 및 샘플 채취 ○ 폴란드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보건당국에 제품 출시 허가를 제출하여 수출 이전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전승인 프로세스는 약 1개월 소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검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정식 수입이 보류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폴란드 통관 시 필요한 기본 서류를 구비할 경우 통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의 위생검사 요청, 송장, 상품명세서, 물품의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송장, 운송 서류, 공인 연구시설 또는 제조자가 발급한 제품 및 원재료의 화학성분 분석, 수입과 관련하여 생산자가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면허, 모든 문서의 폴란드어 번역본

단계	내용
검사 및 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대상은 수입하는 식물, 구근, 종자, 절화, 과일과 채소, 흙 배양체, 일반화물의 목재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임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 보유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6,000유로 이하의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시에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 ○ 폴란드는 국내산 및 수입산 농축산물과 식료품에 대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감면부가가치세(5~8%)와 표준부가가치세(23%)를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율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의 부가세 : 신선식품, 감미료, 낙농품, 어류 조제품, 밀가루 조제품, 과일 조제품 등 - 8%의 부가세 : 그 외 가공되지 않은 식품 - 23%의 부가세 : 가공정도가 높은 식품

*출처: 관세청

나. 검역제도

□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 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

- 식물의 경우 위생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수출입 금지 식물에는 벼, 황겨, 벧집과 그 가공품, 호도의 열매와 핵자,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 및 흙, 살아있는 병해충 등이 포함됨
- 동물 및 축산물의 경우 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요
 -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의학적 검사 면제 대상 식품 목록의 변경으로 인해서 검사 면제 대상이었던 식품들도 조건을 만족 필요
 - 변경된 목록에는 육류를 함유한 제품, 충전된 젤라틴 캡슐,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기타 식품 보충제/첨가제, 알코올성 음료,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키토산 및 유사 성분을 함유한 소매용 식품보충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들의 수의학적 검사 필요
 - 복합식품은 식물재료와 결합된 동물성 가공 농산품을 함유한 인체 섭취용 식품으로 가공육, 가공 유제품(냉동), 저장이 안정적인 경우 50% 이상의 유제품, 50% 이상의 가공 수산물 및 난제품을 함유할 경우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EU 동물 검역제도에 따라 허가국 외 제3국으로부터 육류 및 유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제품 수입 허가국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음

□ 화훼류 검역은 EU에 수입되는 특정 식물에 대해 병충해 방지 및 수입국에서 사전에 검역 및 안전한 식물이라는 내용을 담은 식물위생증명서(병충해 방지 및 안전한 식물임을 인증)를 작성하여 통관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수송일 14일 전 검사,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기관에서 발급 여부, 위생검역증의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영어 번역본 첨부 등이 필요
- 화훼류 또는 목공품 수입 시 포장에 쓰이는 나무 패키징에 대해서도 규제
 - 제품 겉면을 포장하는 패키징 외에도 물건과 물건 사이를 지지하는 지지대, 받침대, 팔레트 등이 모두 해당되며, 병충해와 같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무를 재료로 한 목재 박스가 유럽 회원국 도착 후 만일에 있을 해충 및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 EU 국가로 수출 가능한 품목은 총 7개 품목 77종이며, 감자, 여주, 감귤 묘목은 수출이 불가함

- 해당 품목 외 수출 가능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수출가능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류(8)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일류(11)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17)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16)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8)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7)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장미, 카네이션, 난초, 국화 · 화훼류 기타(10) :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철쭉속, 장미, 카네이션, 국화, 튤립
수출불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여주, 감귤묘목

*출처: 2020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요건, 농림축산검역본부

- 특히 2021년 7월 5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 요령」이 개정되며 해당 고시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해짐
 - 신선 감귤 수출을 위해서는 하기 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대국측 우려병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anthomonas citri pv. citri ·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 Pseudocercospora angolensis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 Phyllosticta citricarpa (McAlpine) Van der Aa
수출단지 지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지정 신청 필요 -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수출단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 4조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보유하여야 함 - 해당 수출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 - 1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확보하여 수출단지를 관리하여야 함
재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정한대로 관리되어야 함 - 농산물의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수출용 농산물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을 표시한 표지판의 설치가 요구됨 -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을 경우,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농가 및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수출검역 요건 준수를 위해 매년 지역본보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의 이수가 요구됨
재배지검역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선과 30일 전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매년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함
재배지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에서 지정한대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할 경우,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 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함 - 재배지검역결과 기록부는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되어야 함 - 수입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재배지는 불합격 조치됨
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EU 수출용 감귤류가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감귤류 생과실을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해당 약제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를 활용하여 소독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수출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 검역 결과 지정한 바와 같이 검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래의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p><i>"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i></p>

- 분재류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한국산 분재 대 EU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관리 후 수출이 가능함
- 국화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1) 부록VII,4 : *Thrips palmi* Karny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Thrips palmi* Karny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Thrips palmi* Karny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2) 부록VII,7,b : *Bemisia tabaci* Genn 관련

- 생육 기간 동안 관련된 유럽연합 검역병해충의 증상이 없고,
- *Bemisia tabaci* Genn 없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확하기 전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Bemisia tabaci* Genn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Bemisia tabaci* Genn 박멸을 위해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3) 부록VII,8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Malloch)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Liriomyza sativae* (Blanchard), *Amauromyza maculosa* (Malloch) 무발생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출하기 전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재배지검사를 실시하여 *Liriomyza sativae* (Blanchard) 및 *Amauromyza maculosa* (Malloch) 가 생산지에서 관찰되지 않았거나,
- 수출하기 전 공식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였음

4) 부록VII,9 : 초본성 다년생 재식용 식물 관련

- 양묘장에서 재배되었고,
- 식물의 부스러기, 꽃 및 과실이 없고,
- 수출 전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하였고,
- 유해 세균,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유사 생명체의 증상이 없고,
- 유해한 선충, 곤충, 응애 및 곰팡이의 증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거나 또는 적절한 소독처리를 실시

5) 부록VII,25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관련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의 증상이 최근 생육기간동안 생산지역에서 관찰할 수 없었거나,
- *Spodoptera eridani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litura*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가 되었음

6) 부록VII,26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 관련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없는 국가에서 재배되었거나,
-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되었거나,
- 공식적인 검사와 실험에 의해 *Chrysanthemum stem necrosis virus*가없는 생산지에서 전 생육기동안 재배되었다는 증명

※ 소독처리 사항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 라벨링 규정

□ 식품 표기는 EU 라벨링 제도를 따르고 있음

- EU는 건강 및 인체에 직결되는 식품 관련 규정이 엄격해 성분 등 상세정보를 라벨링에 표기하도록 함
- 라벨링 표시 사항은 모든 식품(음료수 포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 사항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 사항으로 구되며, 의무 표기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품명
 - 성분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및 이름 및 주소 또는 EU 내 수입·판매업자
 - 섭취방법(섭취방법 부재 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 Net용량, 영양성분, 알코올도수(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 유럽 내 유통되는 식품(음료수 포함)의 경우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가 필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인자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러리 ·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는 곡물(밀, 귀리, 보리, 호밀 등) · 갑각류 · 계란 · 어류 · 루핀 · 우유(락토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패류 · 견과류(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넛, 퀴즐랜드넛) · 깨 · 대두 · 10mg/kg 또는 10mg/liter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
------------------------------------------------------------------------------------------------------------------------------------------------------------------------------------	-------------------------------------------------------------------------------------------------------------------------------------------------------------------------------------------------------------

□ 건강식품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 사용이 금지됨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식품, 어린이용 식품과 같이 카피 문구의 삽입이 필요한 제품에 관해서 법규를 어기고 판매될 시 판매 금지 및 수거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라벨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유럽위원회는 EU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5월 28일 식품 주요 성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라벨링 규칙을 채택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식품 라벨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 글씨 크기 규정
 - 가공식품 내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있는 성분의 경우 명확한 표기
 - 가공식품의 경우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
 - 식물성 성분 원산지 표기
 - 육류, 생선 포함 식품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
 - 해동 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기
-

○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돼지, 양, 염소 등 육류 및 가금류의 원산지 표시: 고기 양육 및 도살 장소에 대한 표시는 Regulation(EU) No 1337/2013 채택
 - 식품 재료로 사용된 육류 원산지 표시 : 식품 주성분으로 사용된 육류의 원산지 표기 필수
 - 육류 외 식품 원산지 표시 : 식품의 50% 이상 차지하는 성분의 원산지 또는 발생지 표기 필수
-

○ 식품업체의 다양한 식품 가공 방법을 고려해 책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V. 코로나19 이후 시장 및 소비 트렌드 변화

- **코로나19로 격리 기간이 길어지며 테이크아웃 및 배달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
 - 스타티스타(Statista)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4%가 코로나19 이후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식사를 포장해 집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응답
 - 또한 20%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포장 주문(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식당을 더 자주 방문한다고 응답
 -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주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비중은 20%로 집계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외식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9%를 차지

- **외출 제한 상황에 대비해 기본적인 식재료와 음료,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구매**
 - 폴란드인의 45%는 파스타 및 쌀과 같은 기본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응답하였고, 38%는 물·주스·음료와 통조림 식품, 소스류와 같이 유통기한이 길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
 - 육류와 유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각각 31%와 21% 차지

-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지역 내 소매식품점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오프라인 식품점 방문 시 1회 구매 규모 증가**
 - 폴란드의 시장조사기업인 PMR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37%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대형 식품점의 방문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8%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지역 내 소규모 식품점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
 - 또한 오프라인 쇼핑 빈도는 줄었으나, 식품점 방문 시 1회 구매 규모는 이전보다 증가함
 - 폴란드인의 53%는 당장 필요한 식품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다고 응답
 - 폴란드 무역회의소(PIH)에 따르면, 2020년 11월 폴란드 식품점에서의 평균 구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고, 1회 구매 당 품목 수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친환경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
 - 유기농 및 채식 식품의 인기가 증가함과 더불어, 식품 소비 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친환경 브랜드 및 매장 선호도 증가와 같은 트렌드가 발생
 - 이러한 소비행태 변화에 맞추어 폴란드 까르푸는 2022년까지 자체 브랜드 상품의 총 포장량을 5% 감축하고, 2025년까지 자체 브랜드에 100% 재사용·재활용 및 퇴비화가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